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오 성 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정 의 철 (상지대학교·교수)

최 승 희 (평택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김 영 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김 지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국내 거주 소수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또한 외국의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주요 연구방법은 심층면접 및 사례조사임. 면접대상은 이주노동자 자녀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 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 담임선생님, 시민단체 종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됨. 또한 정부, 민간, 학교의 지원 사례 조사는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담당자와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외에 문헌연구, 워크숍 개최, 국외출장조사 등이 사용됨.

2. 주요 연구내용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관련 연구를 정리함. 이론적 틀로는 적응이론과 사회정체감 이론을 제시.
- 소수집단 청소년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출입국관리국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또한 최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수집단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를 조사.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음.

첫째,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을 한국사회에서 보내서인지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단지 부모의 재혼 등의 이유로 갑자기 입국하는 경우 일반 이주노동자녀와 별 다를 바 없이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둘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정 부모들과 한국인부모들과의 교류가 매우 필요함.

셋째, 생김새 등으로 인한 차별, 따돌림과 관련, 국제결혼자녀들은 그다지 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지 초등학교 때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출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었음.

넷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쳐다보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다소 힘들어 했음.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반기지 않았으며 일반 한국 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음.

●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정규학교의 진입에 대한 교육기회는 보장받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자녀인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학교 입학조차도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했고,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음.

둘째,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유엔(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교육기회 수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셋째, 정규학교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실정임.

넷째, 정규학교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지원 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 이해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 학생들과의 마찰, 그들을 위한 커리큘럼과 준비된 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정책제언

●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 소수집단 청소년의 실태 확인

둘째, 소수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소수집단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넷째, 멘토링 제도의 활성화

다섯째, 다문화대안학교의 설립 확대

여섯째, 교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다문화 관련 강좌를 도입

일곱째, 소수집단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 지원

● 다문화이해정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둘째, 다문화이해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셋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시 확대

●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 방향을 실제적으로 추진·집행할 수 있는 국가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8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9
1. 이론적 배경	11
1) 적응이론	11
2) 사회정체감이론	13
2. 선행연구 고찰	14
1) 이주노동자관련 연구	14
2) 국제결혼관련 연구	20
3) 국내 소수자 관련 연구	29
3. 소결	33
III. 소수집단 청소년현황 및 생활실태	35
1. 소수집단 청소년 현황	37
1) 인원	37
2) 관련 법령	43
2. 소수집단 청소년 생활실태	49
1) 이주노동자자녀 생활실태	49
2) 국제결혼가정자녀 생활실태	70
3. 소결	83

IV.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실태	85
1. 정부지원	90
1) 국가청소년위원회 무지개청소년센터	90
2)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2
3) 교육인적자원부	104
4) 서울시교육청	104
5) 전북교육청(Kosian Edu Plan)	108
6)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12
7) 안산 'We Start'	113
2. 민간지원 사례	118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18
2)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122
3) 삶결두레아사달	123
4) 펄벅인터네셔널 한국지부	124
5)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126
6) 코시안의 집(안산이주민센터)	127
3. 학교지원	128
1) ㄱ 중학교	128
2) ㄴ 중학교	131
3) ㄷ 중학교	135
4) 대안학교○○	137
5) ㄹ 초등학교	139
6) ㅁ 초등학교	143
4. 소결	144
V. 외국의 소수집단 지원정책	149
1. 미국	151
1) 다문화교육 역사	151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154
2. 영국	157
3. 일본	159
1)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	160
2) 일본의 소수민족 청소년 정책 및 교육 지원	165
4. 호주	170
1)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천과정	170
2) 이민자 지원과 서비스: 한인이민자를 중심으로	176
3) 소수집단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180
5. 싱가포르	184
6. 소결	186
VI. 결론 및 정책제언	191
1. 요약 및 결론	193
2. 정책 제언	196
1)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정책	196
2)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 정책	204
3) ‘다문화 청소년 센터’의 설립	207
4) 언론기능의 확대	209
참고문헌	214
[부록1]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가정 면담질문지	237
[부록2] 이주노동자자녀관련 인터뷰	247
[부록3] 국제결혼가정자녀관련 인터뷰	274
[부록4] 시민단체 인터뷰	300
[부록5] 혼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321

표 목 차

<표 I-1> 등록외국인중 장기불법체류자 연도별 추이	4
<표 I-2>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2005년도)	4
<표 I-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연도별 추이	5
<표 I-4> 연구영역별 연구방법	8
<표 II-1> 베리의 문화적응 모형	12
<표 III-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37
<표 III-2> 초·중·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근로자 자녀 (2006.12.31)	38
<표 III-3> 일반학교 재학 국제결혼가정자녀 현황 (2006년 4월 1일 현재)	39
<표 III-4> 일반학교 재학 이주노동자 자녀 현황 (2007년 4월 현재)	40
<표 III-5> 초·중·고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적별 현황	41
<표 III-6> 일반학교 재학 국제결혼가정자녀 현황 (2007년 4월 현재)	42
<표 III-7> 초·중·고 국제결혼가정 부모출신국별 현황 (2007년 4월 현재)	43
<표 III-8> 심층 면담자(외국 출신 청소년과 부모)의 주요 배경	50
<표 III-9> 심층 면담자(교사와 시민단체 종사자)의 주요 배경	51
<표 III-10> 심층 면담자의 인적사항	71
<표 IV-1>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현황 (2007년 3월 현재)	93
<표 IV-2> 한국어 지도 및 방과 후 학교 지원	105
<표 IV-3> ㄷ 중학교 - 학교문화체험 일정	137
<표 IV-4> 대안학교 ○○현황	138
<표 V-1> Centrelink 주요 서비스	178

그림 목 차

[그림 V-1]	한인 집단 지원 경로	180
[그림 V-2]	CMYI 조직도	182
[그림 VI-1]	‘다문화 청소년 센터’ (가칭)의 역할	208
[그림 VI-2]	‘다문화 청소년 센터’ (가칭)의 구성	208
[그림 VI-3]	‘다문화 청소년 센터’ (가칭)의 조직과 센터별 역할	20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화, 지구촌화의 빠른 진행과 범세계적 인적 교류의 확대로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탈북자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김남국, 2005). 첫째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새로운 종교의 유입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경우다. 둘째는 캐나다나 미국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국가의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는 첫 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도 최근 다문화사회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남국(2005)은 다문화주의를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정의한다(99쪽). 사회적 인정과 문화적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접근은 공공영역에서 문화적 표현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집단적 자치의 권리를 허용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한국사회에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해 2005년 현재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485,14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표 I-1>참조).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해 2005년도에는 10만여 명(등록외국인의 21%)에 달하였다. 단기 불법체류 외국인 78,411명을 합치면 2005년 현재 불법체류외국인은 1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23.3%에 달하는 21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I -1> 등록외국인중 장기불법체류자 연도별 추이

연 도 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등록외국인 수	210,249	229,648	252,457	437,954	468,875	485,144
장기 불법체류자 수	39,803	64,813	80,457	68,640	85,935	101,824
불법체류 비율(%)	19	28	32	16	18	21

출처: 법무부(2006). 2005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순이었다(<표 I -2> 참조).

<표 I -2>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 (2005년도)

국적	중국(한국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명	42,678 (36,699)	13,605	13,249	11,146	10,838	10,354
국적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기타	총계	
명	6,321	5,521	4,991	24,833	180,235	

출처: 법무부(2006). 2005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서 재구성.

또한 1990년대 이후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성사된 국제결혼 건수는 19만 7천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만 8천여 명이고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6만 8천 8백여 명이다(설동훈 외, 2005). 1990년 4,710건에 불과한 국제결혼 건수는 2003년에는 25,658건으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35,447건으로 급속히 증가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43,121건)를 차지했

고 특히 이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 72%에 달하였다. 2006년도에는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39,690건을 기록해 전체 혼인건수의 11.9%를 차지했다(통계청, 2007). 2000년대 초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중국, 일본, 필리핀이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연도별 추이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 혼인건수 대비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증감률	16.5	23.7	4.5	61.2	38.2	21.6	-8.0
한국(남)+외국(여)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 감 율	26.5	37.0	10.1	74.4	33.2	21.8	-3.1
한국(여)+외국(남)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증 감 율	4.6	4.2	-6.4	31.6	52.9	21.2	-20.6

출처 : 통계청 (2007). 2006년 혼인통계결과.

최근 베트남이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혼혈 청소년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혼혈인들¹⁾은 전통적인 단일민족이라는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우리사회의 다수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그들은 혈통과 단일민족 중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고, 타자(the other)의 위치로 주변화 되며,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백선기, 2005). 즉,

1) '혼혈'이란 용어자체가 '순혈'에 반대되는 의미로 다소 부정적인 사회적 의미를 띄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나 두 가지 이상의 인종적 속성이 함께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혼혈집단은 정치·경제적으로 약자임과 동시에 한국민족 중심의 문화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문화적 약자이고, 사회의 공식적 채널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표현할만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여 상징적 의미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다(김예란, 2005).²⁾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국민들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동남아시아와 같은 저발전 국가들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중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정현숙, 2004). 이 때문에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결혼이민자들과 혼혈자녀,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멸시와 조롱은 심각한 수준이다(한건수, 2006).

사실, 한국계 혼혈 하인즈 워드의 방한 전까지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의 방한은 혼혈인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과 소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혼혈인 등 소수집단³⁾도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원주의 사회의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소수집단들은 뿌리 깊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신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문화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생활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국내 거주 소수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의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정

-
- 2) 김예란이 분류하는 약자의 범주는 네 가지(신체적 조건 및 자연적 요인 · 계급적 요인 · 국가주의적 요인 · 문화정치학적 정체성)로 나뉘는데, 이 중 혼혈인은 국가주의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 3) 윤인진(2004)에 따르면, 소수자란 사회의 제반영역에서 성, 연령, 인종, 종교, 경제력 등의 이유로 지배적인 기준 및 가치로부터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소수집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 면에서 배제되고 열세에 놓인 집단을 의미한다.

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조사를 위해 그들의 한국사회의 생활과 적응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소수집단 청소년들은 인종적, 문화적 소수자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 위주로 조사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혼혈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내용은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정체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 차별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⁴⁾.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민간, 학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지원의 내용과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향후 지원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생활실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외국의 소수집단지원정책사례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5개 국가가 선정됐고 이 외국 사례들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언론의 역할을 감안, 혼혈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했는데 이는 하인스 워드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 전후의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언론이 다문화관련 이슈를 보도할 때 어떤 논조와 보도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⁵⁾.

4) 자세한 질문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5) 혼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돼 있다.

3. 연구방법⁶⁾

우선,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이주노동자 자녀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 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 담임선생님, 시민단체 종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소수집단에 대한 언론보도는 프레임분석에 기초한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정부, 민간, 학교의 지원 사례 조사는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담당자와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외국사례 조사는 현지조사(일본과 호주)와 문헌연구(기타 외국사례)가 병행되었다.

<표 1-4> 연구영역별 연구방법

연구영역	연구방법
소수집단 청소년 생활실태	심층면담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사례	현장 인터뷰 (정부 6곳, 민간 6곳, 학교 6곳 조사)
외국의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정책	문헌연구 및 국외출장
소수집단 언론보도	내용분석

6) 연구방법은 각 내용을 다루는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고찰
3. 소결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대체로, 이민자집단으로서 소수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인종정체성(ethnicity)과 관련되어 진행되어 왔다. 히스패닉과 한인을 포함한 미국 내 소수인종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는 문화동화론(assimilation)과 다원주의적 관점(pluralistic perspectives)의 틀 내에 분류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기의 미국 이민자연구는 이들이 미국주류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것으로 봤으나 점차 이민자들이 그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에 따라 다원주의적 관점이 우세하게 됐다. 또한 1950년-60년대의 연구들이 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적응 등에 초점을 둔 데 비하여 1980년대 이후 연구들은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접촉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정진경, 양계민, 2004). 이에 따라 후기 연구자들은 이민자와 같은 소수집단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적응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집단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 갈등을 겪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같은 소수집단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패턴이나 갈등양상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문화적응이론이다.

1) 적응이론

문화적응이론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사회나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과정을 일컫는다. 대체로 초기 문화적응이론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주류문화에 대한 괴리나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 주류문화와 고유문화간의 통합이 잘

이뤄질수록, 그리고 주류집단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도가 클수록 문화 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회적 지지나 의사소통능력도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즉 본국 출신 친구나 이웃이 많은 경우 또한 현지어를 잘 구사할수록 이민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낮다는 것이다.

고든(Gordon)은 이민자들의 새로운 사회 적응과정을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적 적응이란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의 행동과 신념체계가 지배집단의 것과 비슷해지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 적응이란 소수집단이 주류사회의 사회, 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서 재인용).

적응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베리(Berry)는 개인이 겪는 문화적 적응 유형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참조).

<표 II-1> 베리의 문화적응 모형

차원2	차원1	고유문화의 가치와 특성 유지	
		그렇다	아니다
주류사회접촉 및 참여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출처: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122쪽서 재구성함.

즉 개인이 이전에 속했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얼마나 유지하고자 하느냐와 새로운 문화집단에 접촉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에 따라 각각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의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도 수용하는 유형인 반면 주변화는 고유문화와 새로운 문화 둘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이다. 동화는 고유문화를 거부한 채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유형이며 분리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이다.

물론 이민자 개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민자 개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전략은 이민자들의 집단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2) 사회정체감이론

타즈펠(Tajfel)과 제자들에 의해 정립된 사회정체감이론은 집단 간 심리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영향력이 강한 이론 중의 하나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개인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동기화된다는 것이다(김범준, 2002). 개인적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은 지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려는 동기가 있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내집단으로부터 자존심과 자아정체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내집단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외집단 사람들은 내집단의 구성원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특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정체감의 획득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과의 사회비교를 통하여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독특성 확보를 통하여 가능하다(김범준, 2002).

이처럼 사회정체감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범주화, 비교, 내집단 선호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정진경·양계민, 2004). 즉 이 이론의 중심적 개념은 분류화(categorization)와 사회적 정체성이다(오타 히로시, 200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가 속한 내집단에 대하여 보다 바람직한 언어를 사용해 그 행동이나 성격특성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고 내집단을 통하여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민자집단의 적응을 설명해 보면 개인이 동일시하고 싶어 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응양상이 달라진다. 가령, 새로운 사회로 이주해 오기 전 가졌던

집단의 문화를 중요시한다면 이러한 가치를 유지, 보존하려는 정체성을 강하게 지닐 것이고 새로운 사회나 문화에 대한 동일시가 높다면 새로운 사회나 문화를 수용하려는 정체성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체감은 연령, 성,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 선행연구 고찰

1) 이주노동자관련 연구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대부분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는 취학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574명의 이주노동자자녀가 초·중·고(외국인학교포함)에 재학 중이었고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아직도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7~12세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는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만 발급받아 인근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노출우려로 정규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경우도 미숙한 한국어, 따돌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동안 연구된 결과를 대상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 자녀의 적응 실태 연구

이주노동자자녀의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몽골출신 자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노충래·홍진주(2006)는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 적응실태와 민족정체성, 한국과 몽골문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8주에 걸쳐 국내에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67명의 몽골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관련 경험을 살펴 본 결과 응답자의 29.9%는 정규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학교에 못간 이유는 대부분 학교 측 거부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사회 내에서 경험한 도움을 사회복지관련 도움과 종교기관의 도움으로 나누어 파악해 본 결과 응답자의 70.1%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6.1%로 나타나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종교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도움 욕구로는 한국어 교육(27.03%)이 가장 많았고 학교공부에 대한 지원(24.07%), 기술교육(10.67%) 순으로 나타나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학습관련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응답자들(70.1%)은 한국어와 몽골어를 병행해 사용했고 한국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1명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89.6%는 몽골출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했고 83.6%의 응답자들은 한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몽골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7%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3.1%는 한국에서의 진학,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몽골에서의 진학,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는 59.7%로 나타나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고국 보다는 한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을 계속하거나 취업하기를 원하였다. 우려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자들은 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적응 지원 ▲몽골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민족정체감 고취 ▲이주노동자자녀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조기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원(2006) 또한 몽골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대한 관찰과 담임교사, 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몽골출신 학생들의 학교교육실태를 분석하였다. 2005년 6월 3주 동안 연구

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3명의 주 제보자의 학교생활을 관찰했고 주 제보자 학생의 동료학생들, 교과담당교사, 학교장 등을 면담하였다.

이 학교는 2002년 처음 몽골학생을 입학시켰는데 정규학생이 아닌 청강생 자격으로 받아들였고 이 외에도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였다.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도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5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거주사실증명서만으로도 국내입학을 가능하게 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입학은 학교장의 허용 여부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청강생자격으로 입학하다보니 몽골학생들은 재적학생이 아닌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몽골학생들은 자신들이 ‘재적 외 학생’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하여 견디기 힘들어하였다. 출석번호도 일반학생과 달라 한 학생은 42명 학급에서 51번이었다. 학급에 전학 올 학생들을 예상해서 번호들을 비워뒀기 때문이다. 재적 외 학생이다 보니 몽골학생의 성적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 그들의 시험지는 별도로 담임교사들에게 전달됐다. 담임교사들도 이들의 성적이나 출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고 오히려 학급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쏟았다.

몽골학생들이 몽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얻는 가장 큰 성취는 한국어 학습이며 이들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하였다. 즉 한국 학생들과 계속 어울리다보니 한국말도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몽골학생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같은 처지의 몽골학생들과 안 어울리려고 하고 몽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한국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확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김정원 외(2005)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복지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1군데, 외국인 학교 1군데 등 총 4개의 학교와 각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4개 지역의 관련 지원 단체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관찰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제보자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19명(몽골 15명, 방글라데시 1명, 페루 1명, 카자흐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그들의 부모 10명, 학교 담임교사 8명, 교과 교사 및 학교행정가 17명, 지원단체관계자 6명 및 자원봉사자 11명 등이다. 질적 연구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 82명과 학령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부모 86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교육기회의 측면에서 지역별, 학교별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학 및 졸업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입학이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 측면으로는 학년배정과 학교부적응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구사능력이 부족한 외국인근로자자녀들이 몇 살이나 아래인 한국학생들과 같은 반에 배치되다보니 서로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자녀의 부모 또한 한국어에 미숙하며 한국의 학교제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등 자녀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 자녀 중 일부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지만 많은 경우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자녀 사이에서도 피부색에 따라 학교 적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백인이면서 준수한 외모를 지닌 카자흐스탄 출신 아동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데 반해 피부색이 시커먼 페루 출신 아동은 단짝이라 할 만한 친구가 없었다. 외모가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몽골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특히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였으며 몽골인임을 부

정하고 싶어 하였다.

흥미롭게도 외국인근로자녀들은 방과 후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방과 후에도 이들의 학습을 지원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 외 활동으로 운동이나 친구와의 대화에 보내는 시간보다 컴퓨터 게임이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 중 31.3%는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장기 결석한 적이 가끔 혹은 자주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주 노동자 연구

정현숙(2004)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나 직원들과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경험한 갈등을 연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네팔출신 외국인 노동자 18명, 방글라데시인 1명, 몽고인 1명 등 모두 20명이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고용주나 직원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문화적 요인으로 ▲위계중심의 감정적인 인간관계 ▲외집단과 내집단을 구별하는 폐쇄주의와 차별주의 ▲전체 지향적 사고 ▲한국음주문화 등이 나타났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은 피부색과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하여서는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동남아시아와 같은 저발전 국가들의 국민에 대하여서는 무시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한 응답자는 한국의 언론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국 언론에 비친 외국인 근로자 출신지의 모습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낙후되고 더러운 장면 등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여자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한국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손이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추태를 겪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유린과 이들을 향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이 실제로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한국인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자세와 타문화와 타문화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김현주,전광화,이혜경(1997)은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사회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인 469명을 대상으로 1996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근로자 119명, 화이트칼라 종사자 150명, 주한 미군 192명이었다.

연구자들은 고든(Gordon)의 논의를 인용, 외국인의 현지문화 적응과정을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적 적응이란 외국인 개개인의 행동과 가치관이 주류 문화와 어울리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회적 적응은 소수집단인 외국인이 다수집단인 주류사회의 사회, 경제체제에 참여하는 현상이다. 문화적 적응의 정도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수준과 한국문화 수용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측정됐고 사회적 적응수준은 전체 친구수 중에서 한국인 친구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조작 정의됐다. 연구자들은 응답자의 교육, 소득수준, 한국어구사능력, 한국사회체류기간, 한국인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 한국미디어이용 등이 얼마나 그들의 한국사회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어 구사능력이 외국인의 한국사회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 접촉이 빈번할수록, 한국미디어를 많이 접할수록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의 정도가 높았다. 반면 자국민들과의 빈번한 접촉은 외국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외국인들의 한국사회적응과정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또한 그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인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 국제결혼관련 연구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등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9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세대들이 성장하여 학교에 다니고 청소년기가 되는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 보다는 초등학교에,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 실정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오성배, 2005),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들의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초기 연구로 심층면담에 의존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처한 문제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거나(오성배, 2005) 기존의 연구 조사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와 지원방안을 모색(조영달, 2006)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6)은 혼혈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 경기권으로 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의 규모도 크지 않다.

그동안 연구된 결과를 주요 대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코시안 아동 실태 연구

오성배(2005)는 코시안 가정의 성장환경과 가정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코시안 아동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 가정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코시안 가정 가운데 어머니의 출신국가, 가정배경, 거주 지역을 안배하여 다양

한 배경을 가진 여덟 가구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언어와 문화가 한국과 유사한 중국의 조선족 출신과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코시안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행동특성을 근거로 그들의 성장과정을 언어학습, 정체성 형성, 대인관계 형성과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시안 아동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과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기쓰기와 독후감이 취약했고, 문장이해력이 떨어지며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언어능력의 부족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였다. 이처럼 코시안 아동들은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었으나 이해력, 작문실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사교육 중심의 한국 교육문화에 대하여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 줄 것인가 아니면 한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정체성 혼란은 그들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쳐 자녀들 또한 대부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언어장벽은 곧바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면담자 대부분 대인관계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시안 아동들은 특히 입학초기, 학년 초와 같은 낯선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도 다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족 출신 어머니 자녀의 경우 외모로 인한 놀림은 없었으나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은 한국인과 다른 외모로 인하여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면담대상 가정의 코시안 아동들은 대부분 대인관계 형성이 능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출신국의 차이에 따라 코시안 아동들의 성장과정과 경험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앞서 살폈듯이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은 조선족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자녀들은 외모로 인한 놀림도 많았고 이질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면담대상자들은 코시안 아동에 대한 유아 단계부터의 프로그램과 외국 출신 어머니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학교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연구자는 코시안이 아닌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포용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향후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한다.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생활 실태 연구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 언어능력부족으로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했고 ▲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으며 ▲ 집단 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였다(조영달, 2006). 즉 그들은 한국말이 서투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았다. 이러한 언어능력부족은 곧바로 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현저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은 또한 10명중 2명꼴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34.1%)이었고 그 다음이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20.7%)이었다(설동훈 외, 2005). 일반 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 해서인 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요소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부족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문화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부진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어머니들을 위한 한글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특히 한글 맞춤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고급수준의 한국어 강좌개설, 경제적 지원 등의 필요를 강조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이나 취업, 문화 차이 등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확충도 필요하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한국전통문화체험, 국어맞춤법교육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원했고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의 운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10명중 1명꼴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자는 10명중 2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명자 외(2006) 연구는 일반학교와 혼혈인 학교에 재학 중인 7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와 사회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의 자아정체감, 소속감, 직업선택 뿐 아니라 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 폭행 등의 문제를 설문조사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자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2.6%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여겼다. 특히 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60.0%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반면 어머니가 비(非)아시아인인 청소년의 경우 단지 21.4%가 자신을 한국인으로 여겼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은 의사나 학자와 같은 전문직(12.9%)이 가장 많았고 교직(12.9%), 군인/경찰직(10.0%) 순으로 나타나 전문 직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 응답자의 10%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14.3%는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편이라고 말하였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8.6%(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런 편이다)에 달하였다. 하지만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나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4%에 불과

하였다. 흥미롭게도 인터넷과 게임 등 컴퓨터 사용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고 답한 사람은 27.2%(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런 편이다)에 달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을 때 22.9%가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고 18.6%는 참았으며 11.4%는 시간이 지난 뒤에 감정을 표현한다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2.9%는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0% 가량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공부 싫어서(10.1%)가 가장 많았고 차별과 불공평(5.8%), 선생님과 아이들 싫어서(5.8%)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5% 가량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문제(11.6%)였고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5.8%)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민 희망 이유와 관련, 교육혜택(20.0%)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취업기회(17.1%)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 차별 속에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교육혜택과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가장 갈망하고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낮은 경우,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과 무력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모에 대한 놀림도 더 많이 겪었고 길거리에서의 수군거림도 더 많이 경험하였다.

(3) 결혼이민자 연구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요컨대, 한건수(2006)는 전북 지역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적응과 갈등 양상, 그들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통합에 관한 민족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실군에서 13명, 순창군에서 4명, 남원시에서 2명을 선정, 총 19명의 이주여성을 면접하였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자신이나 본국의 가족이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이 결혼을 결정한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적응에 대한 준비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한국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 상당수는 남편이나 시댁의 경제력이 결혼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즉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의 나라나 문화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외국인 며느리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 며느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다 보니 고부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살림을 맡아 하는데도 모든 경제권은 여전히 시어머니나 남편이 관할하고 있는 점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철저히 한국 음식만 고집하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주위의 이웃들을 통하여 한국 음식 조리법을 배워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부부간 학력과 연령의 차이 등으로 남편과 부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민자 여성들이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 시부모나 남편들이 대부분 반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들은 아내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외국인 아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학습했는데 이 중 텔레비전이 중요한 통로였다. 따라서 하루 종일 한국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처럼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민자 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살림이나 자녀 양육 등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했으며 짧은 맞선을 통하여 결혼하다 보니 남편과 부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정기선 외(2007) 연구는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 1,013 가족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부부·가족관계, 가족생활, 자녀양육, 사회 및 문화생활, 취업, 사회보장 및 의료실태 등 결혼이민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부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 중 70% 이상은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이들 중 절반가량이 주변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만났고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경우 5명 중 3명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결혼했으며 일본 결혼이민자의 90%는 통일교를 통하여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대부분 20~30대(78%)였고 일본과 중국 조선족이 30대 후반인 반면 베트남 이민자는 23.5세로 가장 연령이 낮았다. 응답자의 18%는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하여서 알았던 정보가 달라 결혼 후 한국인 남편과 부부갈등이 많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12.5%는 결혼 후 한국인 남편이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거나 외출금지, 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대다수인 84%는 한국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장 큰 생활의 어려움은 언어문제였고 그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 한국문화의 이해 순이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한군데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으로 3명 중 1명이 한국어교육을 받았으며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한국생활 안내, 한국요리강습 등도 5명중 1명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한국가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사교육비나 숙제돌보기, 성적 등 주로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자녀가 한국어를 잘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응답자는 40%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돕는 한국어교육과 또래엄마와의 교류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여자와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경우 60%는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한국여자와 결혼했고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경우는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외국인남편들의 77%는 한국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고 그 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취업관련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언어문제의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와 대조를 이뤘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 사교육비나 숙제돌보기, 성적 등 주로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여해 본 경험은 60%로 주로 학교 행사나 교사 면담이었다. 한편 외국인 남편의 취업률은 93.6%로 매우 높았고 대부분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였다. 외국인 남편들은 외국인 부인들에 비해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약 10%만이 한국문화체험, 한국생활안내, 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언어와 자녀양육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이웃과의 교류가 많지 않아 그들의 조기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서는 그들이 지역사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과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들이 지역행사나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취업욕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돕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 등을 받는 동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윤형숙(2004)은 1990년대 말부터 급증한 한국남성들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연구하였다.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광주 가톨릭센터가 주관하는 한국어교실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였다. 남편들이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 의사소통은 대부분 단어와 손짓발짓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부재는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적인 차이는 음식문화에서부터 자녀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부부 위계에 대한 생각 등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녀가 평등한 전통을 가진 필리핀 여성들은 권위주의적인 남편의 태도를 수용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하였다. 또한 필리핀 여성들은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아이를 애정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매질을 하는 경우 부부싸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잦은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여성들은 주로 혼자서 참는 편이었다. 한국인 남편들은 아내가 외부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필리핀 여성을 비롯한 국제결혼 배우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우선, 돈벌이에 급급한 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강화다. 이어 외국여성들이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함께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다. 대다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3) 국내 소수자 관련 연구

2000년대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소수자들 이전에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거주하던 소수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혼혈인 실태연구

김동심 외 (2003) 연구는 기지촌 출신 혼혈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인권상황을 드러내고 차별과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2003년 9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총 45명의 혼혈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혼혈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1만원으로 매우 낮았고 월평균 생활비는 75만원으로 나타나 벌어들이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가구 가운데 77.7%가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주택(40.0%)에 살고 있었고 절반이 넘는 가구가 다달이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혼혈인의 어머니는 대개 저학력의 빈곤층 출신 여성이 많았다. 응답자들의 어린 시절 경험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혼혈인들이 피부색으로 인하여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거나 교사에게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경우도 42.2%에 달하였다.

혼혈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체적인 차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차별은 전체의 75.6%가 경험하였고 욕설과 같은 폭언은 57.8%가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40.0%로 나타나 혼혈인들이 당하는 차별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자살충동을 느껴 본적이 있는 혼혈인은 전체의 57.8%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혼혈인은 전체의 42.2%였다. 혼혈인이 받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용차별, 이성교제와 결혼의 어려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13명의 혼혈인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1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다른 1명은 필벽 재단, 1명은 종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설문응답자의 82.2%가 혼혈인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생계보장이 가장 많았고 자립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김미혜 (1983)는 에릭슨(Erikson)의 성격이론에 입각해 혼혈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집단을 혼혈청소년, 결혼가정청소년, 정상가정 청소년으로 구별하여 세 집단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비교하였다. 조사기간은 1982년 10월 2일부터 24일까지로 혼혈청소년 조사대상자는 총 45명(남 25명, 여 20명)이었다.

조사결과 혼혈청소년은 정상가정 청소년보다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였다. 혼혈청소년간의 인종별 자아정체감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어 인종적 요인이 이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중학생 혼혈청소년과 고등학교 혼혈청소년 간의 자아정체감수준은 전자가 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혼혈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일반 청소년과 달리 자아정체감확립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 혼혈청소년은 같은 또래의 결혼가정과 정상가정 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정체감수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혼혈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혼혈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고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향상된다면 이들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화교실태연구

박경태 · 장수현 (2003)은 전국의 화교⁷⁾ 69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영역별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7) 화교인구는 1972년 3만 3천 명 정도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 대략 2만 1천여 명의 화교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박경태 · 장수현, 2003).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할당표집과 전략적 체보자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56%는 대학입시에서 느끼는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77%는 취업과정에서 차별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는 화교들도 각각 50%, 58%에 달하였다. 휴대폰, 인터넷 가입 등과 같은 상업적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훨씬 심각하였다. 응답자의 79%가 인터넷 가입 과정 등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한 한국 화교들의 98%는 귀화여부를 묻는 질문에 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화교들이 대만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만국적유지 ▲화교정체성과 문화유지 ▲자녀의 대학진학 등이었다. 즉 화교들의 경우 부모가 모두 화교일 경우 대학입시에서 외국인의 특례입학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한국으로 귀화하지 못한다. 연금반환일시금규정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화교들의 경우 해외로 이주하게 되거나 기타 이유로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도 화교들이 겪는 차별 중의 하나다. 한 화교는 한국에서 정당한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화교들에게 국가 간의 상호주의를 내세워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화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부분의 차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혜택 개선 ▲화교학교 지원 ▲대학입시제도 개선 ▲상업적 서비스이용의 편의 제공 ▲연금제도 개선을 제기하였다. 즉 부모 중의 한 사람이 화교이고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외국인 특례입학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의 개선을 통하여 화교들이 인터넷서비스나 은행 등의 이용에서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교들이 부여받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뒷자리 첫 번호가 5번이나 6번으로 시작되어 단번에 외국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도 잘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등록 외국인들에게 아예 주민등록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이윤희(2004)는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들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2003년 8월27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7명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교류방식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관련, 면접대상자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는 점, 아내가 한국인이어서 자식을 한국대학에 보낼 수 없는 점, 인터넷 게임을 할 때 불편 등을 토로하였다.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 면접대상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보였다. 이는 화교 자녀들이 대개 화교학교에 다니며 대만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교들 간의 교류는 대부분 사적인 친분관계나 개인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과의 교류 및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정도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든 세대들은 한국인과의 교류를 기피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거리낌 없이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드라마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화교 공동체는 공식적인 형태의 교류는 많이 약화된 반면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의 유대감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교학교를 통한 전통 문화 및 모국어 교육의 영향으로 중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도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민족주의적 배타성과 폐쇄성을 떨쳐버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3. 소결

적응이론과 사회정체감이론은 이민자 뿐 아니라 그들 자녀의 주류사회 진입과 적응양상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적 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수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주류 집단의 포용력과 수용성이 결합되어야만 원활한 사회통합이 이뤄짐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가 보여주듯이 이주노동자 자녀 및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은 제한된 의사소통과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머니 또한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낯선 한국문화 등으로 한국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학교입학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식 입학생이 아닌 청강생 자격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시어머니나 남편의 간섭과 통제로 살림이나 자녀 양육 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민자 여성들이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 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시부모나 남편들이 대부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한국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꾸준한 다문화교육이다.

Ⅲ. 소수집단 청소년현황 및 생활실태

1. 소수집단 청소년 현황
2. 소수집단 청소년 생활실태
3. 소결

Ⅲ. 소수집단 청소년현황 및 생활실태

1. 소수집단 청소년 현황

1) 인원

2006년 출입국관리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전년도 보다 21.8% 증가한 910,149명이다.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해마다 1.88%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의 주된 요인을 일시적인 관광이나 상용목적의 단기체류자보다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의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장기체류외국인 수가 2002년도에는 체류외국인(629,006명) 중 43%(271,666명)를 차지하다가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전체 체류외국인 수(910,149명) 중 약 73%(660,607명)를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2006년도 출입국관리국 통계연보).

<표 III-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인 구	44,553천명	44,553천명	45,985천명	48,294천명	48,297천명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 인구 및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자료임.

※ 출처 : 2006년 출입국관리국 통계연보

장기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취학연령대의 청소년들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체류 중인 등록외국인(합법체류자) 중 5세 이상 19세 이하는 전체 외국인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25,488명이다(교육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 2007). 이 가운데

2007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1,209명으로 이들의 취학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 형태(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와 수, 가족 유형을 파악하는 것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보다 적게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III-2> 초·중·고에 재학 중인 외국인근로자 자녀(2006.12.31)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 외국인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 8,341명('06.12.기준) 제외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16개 시·도청 홈페이지)

<표 III-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006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7,998명으로 전년도(6,121명)에 비해 30.6% 늘어났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전남, 전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일반학교 재학 국제결혼가정자녀 현황(2006년 4월 1일 현재)

시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서울	187	175	130	111	76	77	756	60	60	28	148	32	25	20	77	981
부산	50	71	67	45	36	37	306	7	21	9	37	9	6	6	21	364
대구	32	44	40	19	12	11	158	11	8	3	22	3	3	4	10	190
인천	56	47	35	31	24	14	207	10	8	7	25	5	4	5	14	246
광주	28	26	25	14	11	14	118	1	5	2	8	3	2	2	7	133
대전	17	24	26	27	16	19	129	9	7	8	24	5	3	3	11	164
울산	16	21	14	10	7	7	75	5	6	4	15	1	2	2	5	95
경기	278	353	306	227	143	147	1,454	118	135	85	338	27	22	11	60	1,852
강원	108	95	91	48	23	33	398	17	16	7	40	5	4	1	10	448
충북	64	80	88	36	36	27	331	10	7	6	23	1	5	0	6	360
충남	98	117	112	62	41	34	464	24	13	16	53	4	7	4	15	532
전북	186	135	168	86	50	54	679	34	7	4	45	3	5	3	11	735
전남	200	229	229	100	76	44	878	20	22	12	54	6	7	2	15	947
경북	92	113	104	59	31	33	432	16	17	7	40	4	8	1	13	485
경남	67	87	87	44	38	34	357	19	20	10	49	2	1	1	4	410
제주	10	9	12	9	8	5	53	1	2	0	3	0	0	0	0	56
총계	1,489	1,626	1,534	928	628	590	6,795	362	354	208	924	110	104	65	279	7,998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도 4월 현재 전국의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는 모두 1,2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2명이 줄어든 수치다. 증가하는 체류외국인(합법/불법) 수에 비하여 그 자녀들의 취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초등학교에 다니는 불법체류외국인 자녀들에게 졸업 시점까지 그 부모와 함께 한시적으로 체류를 인정해주는 제도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취학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II-4> 일반학교 재학 이주노동자 자녀 현황(2007년 4월 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서울	199	233	36	468
부산	43	13	3	59
대구	28	1	0	29
인천	97	6	2	105
광주	7	1	0	8
대전	25	6	0	31
울산	2	0	0	2
경기	204	97	11	312
강원	28	4	4	36
충북	23	12	1	36
충남	17	1	1	19
전북	3	1	0	4
전남	1	0	0	1
경북	14	1	1	16
경남	64	15	4	83
제주	0	0	0	0
계	755	391	63	1,209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16개 시·도청 홈페이지)

<표 III-5> 초·중·고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적별 현황

시도	부 모 출 신 국 별													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 시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	기타	
서울	106	55	21	3	4	1	7	214	6	6	13	5	27	468
부산	8	8	6	6	1	0	4	2	2	6	6	1	9	59
대구	5	5	0	3	1	0	0	1	0	6	0	0	8	29
인천	3	27	1	18	23	4	6	5	6	5	6	1	0	105
광주	0	5	0	0	0	0	1	0	0	0	0	0	2	8
대전	10	5	0	0	0	0	1	1	0	3	0	0	11	31
울산	0	0	0	0	0	0	0	1	0	0	0	0	1	2
경기	47	35	16	31	2	2	11	103	3	30	11	3	18	312
강원	8	14	1	3	4	1	1	0	0	1	1	0	2	36
충북	9	19	1	1	1	0	0	1	0	0	1	1	2	36
충남	4	3	4	1	0	0	0	2	2	2	0	0	1	19
전북	0	1	0	0	0	0	0	0	0	0	0	0	3	4
전남	1	0	0	0	0	0	0	0	0	0	0	0	0	1
경북	5	4	0	1	2	0	0	0	0	0	0	0	4	16
경남	62	5	0	2	0	0	0	0	1	2	1	0	10	83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58	181	50	69	38	8	30	329	20	58	39	11	87	1,209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16개 시·도청 홈페이지)

<표 III-5>에 나타나듯이, 지역별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학생들의 부모 국적을 살펴보면, 몽골이 가장 많은 329명이고, 다음으로 일본이 258명,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181명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필리핀, 남부아시아, 미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자녀도 13,445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무려 68%(5,447명)나 증가하였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부모는 압도적으로 일본출신(6,261명)과 조선족(3,172명)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순이었다. 반면 유럽출신은 98명에 불과해 대부분 국제결혼은 아시아권 출신의 사람들과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일반학교 재학 국제결혼가정자녀 현황(2007년 4월 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서울	1,040	234	73	1,347
부산	391	67	25	483
대구	283	33	8	324
인천	421	54	20	495
광주	279	32	11	322
대전	191	30	9	230
울산	177	22	4	203
경기	2,283	460	127	2,870
강원	729	67	11	807
충북	642	66	15	723
충남	950	131	35	1,116
전북	970	99	10	1,079
전남	1,361	101	17	1,479
경북	651	53	18	722
경남	968	125	27	1,120
제주	108	14	3	125
계	11,444	1,588	413	13,445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표 III-7> 초 · 중 · 고 국제결혼가정부모출신국별 현황 (2007년 4월 현재)

시도	부모출신국별												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 국	필리 핀	베트 남	태국	러시 아	몽골	인도 네시 아	남부 아시 아	중앙 아시 아	유럽		기타
서울	686	258	42	133	40	15	14	40	13	23	12	31	40	1,347
부산	144	109	13	71	25	2	36	2	14	13	10	7	37	483
대구	157	72	5	53	10	2	1	0	0	3	0	5	16	324
인천	22	103	8	106	119	34	11	26	28	8	16	8	6	495
광주	170	67	3	52	12	3	1	4	0	2	0	2	6	322
대전	114	33	18	22	10	3	10	2	4	3	2	2	7	230
울산	91	34	1	27	31	0	1	3	0	0	3	2	10	203
경기	1465	501	51	371	104	40	52	58	21	117	17	18	55	2,870
강원	383	199	6	139	29	17	3	1	0	4	4	1	21	807
충북	348	226	5	91	18	7	3	8	0	4	3	6	4	723
충남	511	345	13	125	46	12	5	5	0	5	6	3	40	1,116
전북	524	328	2	171	14	12	4	6	2	3	3	2	8	1,079
전남	749	352	1	286	42	25	2	2	5	1	0	3	11	1,479
경북	324	214	5	96	35	14	4	2	5	1	4	2	16	722
경남	507	316	7	176	35	23	10	3	2	1	1	4	35	1,120
제주	66	15	4	19	4	0	1	0	0	0	0	2	14	125
합계	6261	3172	184	1938	574	209	158	162	94	188	81	98	326	13,44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2) 관련 법령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따라 최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발효된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관련 법령 및 국제결혼 가정과 관련된 법령과 대표적인 국제협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계획하거나 수행 중에 있다. 그 가운데 소수집단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움직임이 최근 몇 년 사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6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간소한 절차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가능토록 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 개정 2006.6.12).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와 제82조에 따라 학칙과 학교장에 의하여 전입학이 허용되고(제75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전형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제82조). 실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국내에서 학교급에 따른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학교급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급에서는 이들의 직접적인 입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는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도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완화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지침, 2003.05). 또한 취학중인 불법체류 아동들을 초등학교 졸업시점까지 그 부모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구제 조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조치들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기회

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에게 부분적이지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법무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간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2) 재한외국인⁸⁾ 처우 기본법안

이 법안은 법무부가 2006년 12월 제안, 2007년 4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그해 7월 18일 시행되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의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이 법안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 1주간의 기간을 외국인 주간으로 삼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8)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이 법안은 장향숙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국회의원이 2007년 5월 2일 발의, 2007년 12월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법률상담·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업무,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특히,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지원내용은 제15조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잘 명시되어 있다.

제15조(아동의 보육 및 교육)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속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그 부 또는 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의 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여기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제 9조)고 되어 있고, “부모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부모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제 10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3년 7월 1일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법적,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부가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주요 내용으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모든 장소에 있어서 법률 앞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고,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자녀가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에 취학할 것을 원할 때, 부모 중 어느 한사람의 체류 내지 취업이 비합법이거나 취업국에서 그 자녀의 체류가 비합법임을 이유로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제30조)고 명문화돼 있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 협약은 보호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자녀는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중등교육과 나아가 고등교육까지 그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더불어 이 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2003년 UN의 권고까지 받게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몇 년 후면 급속히 늘어날 소수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2. 소수집단 청소년 생활실태

1) 이주노동자자녀 생활실태

(1) 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과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확인하는 부모, 학교 담임교사,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은 <표 III-8>과 <표 III-9>에 잘 나타나 있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몽골 출신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집단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녀의 동반 비중은 대단히 크며, 특히 국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수에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3국을 제외하면 저개발국 가운데에서는 몽골 출신이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 현재 국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총 1,574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약 74%)이 일본, 몽골, 중국, 미국(각각 386명, 270명, 262명, 238명) 출신이며, 그 중 몽골 출신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5. 김정원, 2006 재인용). 따라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청소년 자녀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몽골 출신 자녀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III-8> 심층 면담자(외국 출신 청소년과 부모)의 주요 배경

사례 번호	이름	출신 국	성 별	나이	입국 연도	현재 소속	부의 모국 직업	부의 현재 직업	부의 학력	모의 모국 직업	모의 현재 직업	모의 학력	거주 지역	동거 형태	체류 형태
4-학생1	몽샤가	몽골	남	18세	2003	k중 2학년	교사	무직	대졸	교사	공원	대졸	서울	모-동거 부-모국	불법
4-학생2	오랑	몽골	여	7세	2005	k중 2학년	공무원	공원	고졸	무직	공원	고졸	구리	부모-동거	불법
6-학생	씨	몽골	남	19세	2005	무	교사	무직	대졸	교사	공원	대졸	서울	모-동거 부-모국	불법
6-어머니	해나	몽골	여	41세	2002	공원		씨(1-5)의 어머니					서울		불법
10-학생1	아리오	몽골	여	15세	2002	몽골 학교 중 2학년	무직	무직	대졸	무직	공원	고졸	안산	모-동거 부-모국	불법
10-학생2	탕소트	몽골	여	10세	2006	몽골 학교 초 3학년				무직	무직	고졸	인천	모-동거	합법

- ※ 표에 기술된 이름은 모두 가명임.
- ※ 4-학생1 몽샤가, 4-학생2 아리오, 6-학생 씨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임.
- ※ 10-학생2 탕소트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남성과 재혼하여 한국국적 취득 직전 단계임.
- ※ 10-학생2 탕소트의 경우 한국어가 매우 서툴러 아리오(10-1)의 도움을 받아 면담이 진행됨.

그들의 가정배경과 나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형태 등을 안배하여 면담자를 선정하였다.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며 취업하고 있는 가정과 부모 중 한 쪽이 국내 취업 연한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가정, 모친의 한국 남성과 재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 가정을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본국 직업과 학력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 형태의 경우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외국인 학교의 한 형태인 재한몽골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무학인 경우를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III-9> 심층 면담자(교사와 시민단체 종사자)의 주요 배경

사례번호	이름	주요특징
2-교사1	박미순	43세, 경력 16년차, 몽근샤(4-학생1)의 담임교사.
2-교사2	배영옥	50세, 경력 26년차, 오랑(4-학생2)의 담임교사.
3-교사	이경애	42세, 경력 6년차, 몽골학교 교감선생님
3	박현주	39세, 경력 6년차, 몽골학교 행정실장
5	김성주	48세, 경력 20년차, 안산 통합(한국인+외국인) 어린이집 원장
8, 11	손주희	38세, 경력 14년차, 안산하늘초등학교 외국인특별학급 담임교사
8	신대광	44세, 경력 11년차, 안산 평화중학교 교사
1	조영지	43세, 경력 7년차, 수원이주노동자상담소 사무국장
1	박주영	42세, 경력 10년차, 안산이주노동자상담소 총무
7	최영훈	40세, 경력 11년차, 안산 원곡동 성당 주임신부
9	글란	44세, 경력 14년차, 필리핀이주노동자의집 신부, 필리핀인
8	이영민	34세, 경력 10년차, 다문화교육과정 전문가

* 표에 기술된 이름은 모두 가명임.

심층 면담 대상의 교사들은 실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내학교 교사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몽골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이후 학생들의 특성과 제도적·실제적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감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통합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어린이집 원장 수녀님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종사자들을 선정하였다.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자료는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연구자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어머니, 교사, 시민단체 종사자 등을 심층 면접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은 개

별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1회당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차례 이상 면담하였다. 처음에는 질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면담자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성장 과정과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과정을 통하여 국내 청소년들에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후에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였다.

이주노동자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한국사회 적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어려운 점들을 확인하고, 그 부문이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별개로 연구자는 이주노동자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외모와 행동에 나타나는 특성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였다.

교사, 시민단체 종사자와의 면담에서는 국내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자녀와 관련하여 호소하는 점들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특히 적응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제도적인 어려움, 동료집단 내에서의 문제, 시설을 비롯한 환경적인 문제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사, 동료집단, 학교의 배려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면담과 분석 과정에서 심층면접 대상자 외의 교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분석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자녀와 부모,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와주고 있는 관련단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이주노동자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실태에 초점을 두었다. 정체성 형성과 성장, 한국에서의 적응,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의 적응 등을 고려해야하는 다소 특별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자녀들이 한국의 교육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

장하는지를 심층면담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교육환경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의 교육 실태를 확인한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이들을 둘러싼 생활과 교육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① 유아시기

면담대상자 중에서 유아시기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자녀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 시기의 이주노동자자녀들은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언어 교육과 생활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개인적인 이유 또는 사회적인 이유에서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네팔에서 온 한 노동자 부부는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4살 정도 되었는데, 집에서는 부모가 네팔말만 쓰니까 애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고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갈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서 학교에 바로 입학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육아가 힘들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계속 신경을 써야하니까 일에 방해된다는 거죠.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 하는 일들이 12시간 이상이고 야간업무도 주로 있으니까 양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고국으로)보내고 자기는 돈을 좀 더 벌어서 가겠다고 이야기 했어요.(사례번호 1-3. 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한국의 제도상으로는 이주노동자 어린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니까요. 저 아이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 엄마, 아빠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들이 4-5세가 되도록 컸고,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육아를 하지 못하니까 봐줄 곳이 필요해요. 애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00신부님한테 우리 아이를 한국 아이들하고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현재 받아 준 아이

가 3명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가정보육학원이니까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5-6살이 되면 정식유치원이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하는데 거기에서 재네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고요. 재네들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5-6살이라고 해도 노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한국 애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한국 애들과 구별이 안 되어요. 우리가 5-6살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지금 0000 어린이반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기들을 봐준다고는 하지만 3살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와야 해요.(사례번호 5-1. 이주노동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이주노동자들에게 유아교육기관은 시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기관들은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례에 따라 잘 적응하기도 하고, 적응에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며,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상당수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큰 무리 없이 또래집단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요. 아이들끼리는 편견이 없어요. 애들은 모이면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장난감이라 이런 것들로 생기는 다툼은 어른들 말을 따르기 때문에, 금세 풀어지고 다시 잘 어울리고 그래요. 유아들은 서로 문제가 없고, 잘 지내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잘 어울려서 길러지면 똑 같은 아이라 생각하게 되고 큰 문제가 없는데, 갈라서 자라게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사례번호 5-11. 이주노동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과 문화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3-4살 그 나이는 어느 나라든지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나이잖아요. 나라에 상관없이, 그 나이는 한국말을 가르치면 한국말하고, 손으로 먹게 하면 손으로 먹고, 숟가락으로 먹게 하면 숟가락으로 먹는 시기라서요, 가르치

기 힘들거나 발달이 늦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한국 아이들과 똑 같아요. 또 엄마도 한국말을 잘하고, 아이도 잘 하는 경우는 더 어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이 참 잘 따라와요.(사례번호 5-2. 이주노동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린 이집 원장)

이 사례들은 생김새, 피부색과 같은 외형으로 인한 인종적 편견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이 시기에 한국아이들과 이주노동자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어울림이 한국인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인종집단에게서 더욱 쉽게 나타나며, 외형적인 이질성이 두드러질수록 부적응하고 동료들에 의한 놀림, 성인들의 편견어린 시선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부모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한국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담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안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는 한국말로 교육을 받을 텐데, 우리가 말 붙여도 잘 안 해요. 엄마하고는 말리 말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있을 때 야단은 한국말로 치는데, 대화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외모나 인종적인 면에서 한국인들과 완전히 이질적이어서 그런지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필리핀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죠. 그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고, 이 아프리카 애도 유치원에 다니는데, 필리핀 친구들은 한국말도 잘 하고 우리한테도 잘 안기고 그래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모가 한국에서의 대인관계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사례번호 1-2. 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특히 이주노동자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교육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실태 파악이 어렵다. 다수의 다른 아이들 속에 섞여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자녀들은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적응이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노동자 부부가 있어요. 아이의 엄마가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아이는 한국말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개별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써주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니까 큰 문제없이 묻혀서 지내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 아이들과 함께 교육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 아이 엄마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깐 말썽이 있을 때 상담소 쪽으로 연락이 오곤 해요.(사례번호 1-5. 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이주노동자자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의 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이 소수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여 교사와 또래집단들과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필리핀 아이들 둘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따갈로어로 말할 때는 우리 교사들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재네들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전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말이지요. 이럴 때 가르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아이들 엄마랑은 짧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요. (사례번호 5-4. 이주노동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아무리 한국에서 자란다지만, 부모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놀이문화가 있나 봐요. 노는 방법이 유아기를 거치면 한국 아이들과 필리핀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필리핀 아이들은 밥을 누워서 먹는 경향이 있고, 손으로 먹고 그래요. 한국에서 계속 교육받으면 그런 사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그저 지나가는 단계에 불과하게 되겠지만,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려면 그런 방식이 그 아이들에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뭐가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교육을 시키는 거죠.(사례번호 5-10. 이주노동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교육기관, 교사, 프로그램 등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과 유아교육기관 측은 이주노동자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2) 초등학교 시기

합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에 허용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하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자녀들이 많다. 2007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정규 초등학교 과정을 일부라도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한국에 있는 중학교 진학이 수월해진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금년(2007년)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도 졸업장을 줄 예정이예요. 작년에는 졸업장을 줄 근거가 없어서 수수료증을 뒀거든요. 올해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 학교장 재량으로 졸업장을 주기로 했어요. 수업을 못 따라가는 외국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추어서 졸업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어떤 외국 아이들은 부진한 한국 아이들을 단기간에 따라잡았어요. 그런 졸업자격이 충분한 아이들이 졸업장이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졸업장을 주는 걸로 되었죠.(사례번호 11-1. 초등학교 교사)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교육에서 소외받던 불법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생활을 면면히 고려하지 못하여 드러나는 한계들이 있다.

학교에서 외국 아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이 개설되었을 때, 외국인들에게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불법체류자들과 그 자녀들은 문의만 하지 불안해서 결국 학교에 보내지 못해요. 몽골이나 중국과 같이 한국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면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데,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시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가 다르니까 등하교 길에서 2개월 단위로 검문이 있으니까 잡혀서 강제출국 될까봐 학교에 오지 못하는 거죠.(사례번호 8-2. 초등학교 교사)

불법체류 외국인들 자녀를 위한 한시적인 구제조치가 생겨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강제출국이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

이나 위치가 노출되는 신변불안을 더 느끼게 된 점도 있어요. 이런 것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사례번호 8-4. 초등학교 교사)

국제결혼으로 인한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것은 보장이 되는데, 불법체류자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한시적인 조치로 불법체류자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도 그 신고기간 당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신고를 못한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자녀는 현재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요.(사례번호 9-1. 필리핀신부님)

한국에서 몽골학교 다니기 전에 2년 정도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이 비자 있다고 물어봤어요. 저는 비자 없으니까 무서워서 학교를 그만 뒀어요. 그래서 00학교(외국인학교)로 왔어요.(사례번호 10-2. 몽골학생 1)

이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한 조치들이 이들을 도리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한시적인 조치들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의 교육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른 제도적 허점은 이들의 전입학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부분이다. 학교장들이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입학을 꺼리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첫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인 경우, 불법체류인 신분 자체가 가지는 문제 때문에 이 학생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번호 8-1>처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도 학교 내 정원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들의 신분 안전이 확보되기는 하나, 학교 내 정원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입학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이주노동자자녀들이 학교 제적 수에 포함되지 않고,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의 신분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부담되고 불안해요. 애들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요. 학교 등하교하는 것도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다만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교 제적 수에 포함에 되어서 정원 내에서 관리되면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어서 좋아요.(사례번호 8-1. 초등학교 교사)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사실 아이들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거부를 하니까 자신들을 받아주는 학교로 찾아오는 거예요. 거리는 먼데, 다들 와요. 아이들의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일단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는 그 것 때문에 아이들의 입학할 거부하고, 합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한국아이들과의 적응문제 때문에 입학할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사례번호 8-5. 초등학교 교사)

정원 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관리되면,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상이 되는데 정원 외에서 관리되면 사고 났을 경우에도 전혀 보상이 안돼요. 그런데도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학교장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을 정원 내로 관리하려고 하질 않죠.(사례번호 11-4. 초등학교 교사)

둘째, 합법적인 체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자녀와 한국 학생들을 함께 공부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언어/문화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특별학급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또 한국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교 내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경우 이주노동자자녀들의 한국어 소통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과 적응상태에 따라 분리해서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요. 물론 외국 아이들을 분리해서 가르치면 그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겠지만, 일반 학급에 넣는 것과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시간표나 교과서, 교사인력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사례번호 8-7. 초등학교 교사)

교장선생님이 외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제한을 하세요. 외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상담프로그램이에요. 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연계가 잘 안되니까 생활지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어차

피 생활지도를 위한 상담사가 있어도 외국어 소통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상담사가 있어도 소용없지 않나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외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사례번호 11-5. 초등학교 교사)

셋째, 이주노동자자녀들의 학습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우려로 이들의 입학에 꺼린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향이 많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자녀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학습동기가 유발되기 힘들며 지속적인 학습활동(예를 들면,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학에 문제를 제시한다.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입학시키고 정식 학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정원 내로 관리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니까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듯해요. 사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이 확실한 학습동기가 유발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출석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학년을 올려줄 때나 졸업장을 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정원 외로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사례번호 11-3. 초등학교 교사)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초등학교를 통한 공교육 진입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즉,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교육제도들은 외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단지 제도적 조치들이 만들어 내는 불안함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의 불안정한 경제적인 상황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변불안을 느끼는 것도 불법체류자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학비와 급식비 등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되어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사례번호 8-3. 초등학교 교사)

이제까지 이주노동자자녀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한계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태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면, 입학한 이후에 이주노동자자녀들이 겪게 되는 생활은 좀 더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보인다.

하나는 이주노동자자녀들이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겪는 문제로, 한국어 의사소통과 그로 인한 학습부진으로 자신의 연령보다 어린 학년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아이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 연령에 맞는 학년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과 학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들 때문에 15-16세 되는 외국 아이들을 몇 달 간 방치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한국어 구사는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보다 못하지만 정신연령은 다 성장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중학생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사례번호 11-7. 초등학교 교사)

한국에 와서 일반 초등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한 반에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을 만들긴 했는데, 별로 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나이보다 2-3세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반에 들어가서 학교를 같이 다닐 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저는 다른 학교를 다니니까 그냥 가끔 연락정도만 해요.(사례번호 10-3. 몽골학교 학생 1)

한국어 실력과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한국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 학생들의 사고 수준은 자신의 연령대에 맞게 이루어진다. 이는 학교에서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정체성 형성과 학교 적응, 또래관계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가르치는 특별학급을 개설하거나, 한국 아이들과 교류를 권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면담사례에 의하면 한국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은 이들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한테는 또래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하는 야영이나 놀이프로그램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 직접 부대끼니까 아이들한테는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사례번호 11-8. 초등학교 교사)

이주노동자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경험한 바 있는 교사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면 특별학급은 장단점을 가진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정체성 형성과 학교 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학급만을 고집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이야기이다. 특히 특별학급이 있는 경우, 관련자들은 특별 관리하는 것에 관한 이주노동자자녀들의 거부감과 한국 학생들이 이들에게 느끼는 이질감이 더 커질 우려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외국 아이들을 한국아이들의 학급에 온종일 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나 한국 학교 적응을 필요로 하는 초기에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효과적이긴 한데, 외국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고 특별학급으로 외국 아이들을 따로 떨어뜨려놓으면 다음 날 일반 학급에 가서 섞이질 못해요. 이런 걸 보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사례번호 8-6. 초등학교 교사)

외국인 아이들한테 너무 분리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인들은 싫어해요. 그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로 이들을 보기 보다는 그냥 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봐주는 시각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리고 교육과 관리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의 교육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저 방치되는 거죠.(사례번호 8-13. 초등학교 교사)

다른 하나는 이주노동자자녀들의 한국 체류에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부모를 따라 잠시 한국에 체류하는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에 열의를 보이지 않거나, 일하는 부모의 빈자리가 타국에서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녀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불어 앞서 살펴보았던

교육을 받기 위한 제도적·상황적인 제약은 청소년기 이주노동자자녀들을 방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주노동자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행동에서 자제가 안돼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굳이 문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는 상황도 외국 아이들의 경우는 폭력사태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이 많은 00지역은 학교나 학교 밖에서 그 아이들이 폭력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학급담임이 학생을 쫓 담당하는 초등학교는 덜 한데, 중학교에 가서 다소 교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사례번호 11-6. 초등학교 교사)

이주노동자자녀들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문제들과 이들의 교육을 방치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3) 중고등학생 시기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이주노동자자녀가 바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중학교의 경우 한국에서 받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에서 받은 중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편입학이 가능하다.

재한 몽골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의 중학교로 편입학이 가능해요. 한국의 중학교에서 몽골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면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자격이 주어져요. 한국 중학교에서 몽골학생을 받을 때, 청강생이 아니라 정식 편입학생으로 받아주면,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한국 학교로 편입학은 법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2002년과 2003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사례번호 3-8. 몽골학교 교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재한 몽골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가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몽골학생은 일반 중학교로 편입한 후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학교에 전혀 다니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자녀들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아시기 또는 초등학교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자녀들에 비하여 고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자녀들은 한국 교육으로의 접근이 더욱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아들이 16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고등학교도 졸업할 나이인데, 한국에 와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데, 비자 없이 불법체류니까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몽골학교는 조금 다녔는데 졸업할 나이 3개월 조금 더 다니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다닐 나이에 공부 안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안 좋아요.(사례번호 6-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몽골인 부모)

요즘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집에서 TV보고 컴퓨터하고, 밥 먹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아요.(사례번호 6-2.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몽골 아이-18세)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하여 2005년 한국으로 들어온 이 몽골 아이는 2007년 5월까지 약 2년 정도의 한국 체류 기간 중 단 3개월 학교교육을 받았다. 이 몽골 아이는 현재 18세이다. 이 아이가 한국 체류 중 다닌 학교는 한국에 소재한 몽골학교로 외국인 학교로 인가받은 곳이다.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있는 이 학교에서 3개월을 다니고 졸업할 나이 3개월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과 컴퓨터 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고, 부모들도 한국어에 서툴러, 이 몽골 아이의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힘든 상황이다.

이 몽골아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1명 정도이고, 몇 명의 또래 친구들이 집에서 놀거나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불법체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우리 아들한테 한국어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돈 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사례번호 6-8.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와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 부모)

이 아이와 같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한국에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은 2007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집한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자녀를 파악한 자료에 잘 나타나있다(표** 참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체 학생 1,209명 중에서 중학교 재학생은 391명(32%), 고등학생은 63명(5%)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주노동자자녀들에게 주어지던 교육적 제약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인식과 제도의 보완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 몽골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중학교에 편입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야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것도 안됐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교장, 교사들의 인식이 우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몽골학생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어요. 2003년 즈음에 제도적으로 몇 가지가 뒷받침 되면서 한국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덜 하지요.(사례번호 3-7. 몽골학교 교사)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자녀들은 교사, 또래집단과는 큰 문제없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학업부진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 몽골학교를 졸업하고 공립중학교로 전학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면담한 결과 생활적응 면에서 이 학생들은 잘 적응하고 있었다.

몽골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한국 학교로 온 아이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친구들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서로 어색한 것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사례번호 2-5.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외국인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을 한 반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함께 있어서 서로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은 세계화시대에 더 잘 적응해 있어요.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깨어있어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인식은 우리보다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사례번호 2-10.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물론 한국어에 능숙한 정도와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이 겪게 되는 한국의 학교생활 초기의 한국 학생들의 놀림은 언어문제를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모습도 보여준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지만 잘 적응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자녀의 경우 한국인 친구와 교사의 배려와 도움이 이들의 적응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한국 학교에 다니게 됐을 때 한국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지내가지고 놀리는 애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이상한 말을 시키고요, 저는 모르는 건데 개네들은 알잖아요. 내가 하니까 애들이 웃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알아요.(사례번호 4-4. 한국체류 3년째이고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처음 담임 맡았을 때는 몽골학생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전학을 해서 그런지 다른 한국 아이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 몽골학생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담임이 이야기하는 전달과정을 풀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옆에 짝꿍이나도우미학생을 뒤서 제가 개별적으로 도와주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사례번호 2-1.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생각 외로 학생들이 몽골 아이들에 대하여서 우호적으로 도와줘요. 봉사 활동이나 교외행사 같은 경우는 외국 아이들이 길을 몰라서 잘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차편 확인하여줘라, 만나서 같이 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도와줘요. 우선 외향적인 면에서 몽골아이들이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니까, 한국아이들이 전혀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몽골학생들이 워낙 착하고 성실해요.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사례번호 2-2.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한국에서) 학원도 다녀봤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학원에서 한 70%정도는 알아들어요. 쓰기는 좀 힘들어요. 쓰는 것은 느려요. 요즘은 모르는 것을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잘 가르쳐줘요.(사례번호 4-8. 한국체류 3년째이고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이주노동자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는 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부진에서는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면담사례에 따르면, 듣기와 읽기보다 쓰기영역에서 많이 부진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자녀들은 한국어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온) 00학생들이 학업적인 면은 확실히 떨어져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지필로 하는 경우는 더 잘 안되죠.(사례번호 2-3.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성적이 가장 낮았죠. 외국인 학교에서 아무리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해도, 여기 와서 직접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한 학기 동안은 성적이 거의 밑이고요. 서술형 문제는 아예 답안지를 못 쓰더라고요. 서술형 50점이 들어가는데, 답안을 백지로 냈더라고요.(사례번호 2-9.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이주노동자자녀들도 자신들의 학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과목을 보충하고 진학을 위하여 여느 한국 학생들처럼 사교육을 받기도 하고, 자원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한국) 에들하고 지내는 것은 좋은데,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 가지고요. 공부가 잘 안 돼요.(사례번호 4-1. 한국체류 2년째이고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한자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국어와 국사 같은 것도 힘들고요.(사례번호 4-2. 한국체류 2년째이고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한국에서) 학원도 다녀봤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학원에서 한 70%정도는 알아들어요. 쓰기는 좀 힘들어요. 쓰는 것은 느려요. 요즘은 모르는 것을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잘 가르쳐줘요.(사례번호 4-8. 한국체류 3년째이고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공부 배워요. 대학생들이 한국말로 수학, 영어, 국어 가르쳐줘요. 몽골말고도 중국, 필리핀 애들도 있어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도움이 되요.(사례번호 4-9. 한국체류 2년째이고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이주노동자자녀들이 학습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이외에 학교 안에서 이들의 학습을 돕는 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자녀들의 위한 제도권 안의 프로그램들이 다문화교육의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하였으나, 개별학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또는 방과 후에 외국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만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일부 과목에 대하여서 외국 아이들이 공부를 따라가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개별적으로 외국인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진행을 했거든요.(사례번호 2-11.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

(한국) 학교에서 우리나라(고국)의 역사나 문화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별활동시간에 하긴 했는데, 우리 후배 몽골학생들한테는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남아서 공부 가르쳐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사례번호 4-7. 한국체류 2년째이고 한국의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한국에의 적응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적응을 잘 하는 아이들부터 전혀 한국사회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몫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 시민단체 등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겪는 문제는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배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이 겪는 문제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의 배제, 실제 교육현장-교육과정, 교과서 등-에서의 소외, 또래집단들의 괴롭힘, 학비 및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부족, 학제와 졸업장과 같은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습부진, 청소년 비행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겪는 교육 이외의 문제들은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모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 온 연령에 따라,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는 것은 청소년기에 겪는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타국에서 맞게 되는 이 통과의례는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일부 면담 대상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한국인 청소년과 이주노동자 자녀들 간의 충돌과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형성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모국에 대한 이해, 한국에 대한 이해, 모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생활의 실제에서 이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국제결혼가정자녀 생활실태

(1) 연구대상

<표 III-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접대상 가족은 모두 10 가정이다. 부모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세 경우로 가장 많고 중국조선족이 두 사례, 말레이시아, 러시아고려인, 수단, 필리핀, 이란이 각각 한 사례다.

이 중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은 모두 8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중학생이고 1명은 초등학생이다. 박00 학생(사례 6)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렸을 때 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따라서 2004년 한국에 입국한 박00 학생을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잘 했다. 사례 8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였고 사례 8은 아버지가 수단 출신 외국인이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외모는 일반 한국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손00(사례 10)은 일반학생들과 외모가 다소 확연하게 구별됐다. 일본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경우 외모는 한국학생들과 똑같았다.

<표 III-10> 심층 면담자의 인적사항

사례 번호	이름	부모 출신국	성별	입국년도	자녀수	자녀 학년	거주 지역	비고
1	박○○ (부모)	중국 조선족	여	1994년	2명	초등학생	보은	
2	김○○ (부모)	말레이시아	여	1989년	2명	중학생, 고등학생	청주	아들(중학생)과 인터뷰 병행
3	리○○ (부모)	일본	여	1993년	3명	유치원, 초등학생	서울	딸(초등학생)과 인터뷰 병행
4	준○○ (부모)	일본	여	1988년	3명	중학생, 고등학생	서울	딸(중학생)과 인터뷰 병행
5	마○○ (부모)	일본	여	1989년	3명	중학생, 고등학생	서울	아들(중학생)과 인터뷰 병행
6	박○○ (자녀)	러시아 고려인	여	2004년	본인	중학생	서울	생활지도 선생님과 인터뷰 병행
7	전○○ (부모)	중국 조선족	여	1994년	2명	유치원, 초등학생	부산	
8	박○○ (자녀)	수단	남	1995년	본인	중학생	서울	담임선생님과 인터뷰 병행
9	최○○ (자녀)	이란	여	한국 출생	본인	중학생	서울	
10	손○○ (자녀)	필리핀	여	1995년	본인	중학생	경기	담임선생님과 인터뷰 병행

(2) 자료수집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은 편의적 표집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교육청이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구체적 면접일정을 잡았다. 면접은 학교나 근처 커피숍에서 주로 진행됐고 면담내용은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 안팎이었다. 대부분 우리말을 잘 해 별 문제가 없었으나 박○○(사례 6)의 경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우리말이 약간 서툴렀다. 이 경우 되도록이면 쉽게 질문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3) 연구결과

인터뷰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한국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와는 달리,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한국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두세 살 때 한국으로 이주해온 경우가 많아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현재 외모로 인한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지 초등학교 시절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은 일부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가정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은 그다지 낮지 않았다.

주요 영역별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혼재된 정체성

대체로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은 자신을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라고 여기면서 두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연구자: 자신의 정체성은?

학생: 물론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다. 요컨대 일본 전통 옷이나 음식에 대하여 무척 알고 싶고 일본어도 배우고 싶다. (사례 3)

학생: 수단이름이 있긴 하지만 한국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한국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8)

학생: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문화를 반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면이라 생각한다. (사례 9)

학생: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필리핀은 2년 전에 가보았는데 고향처럼 느껴졌다. 한국에 있어도 편하다. (사례 10)

하지만 한국에 온지 3년밖에 안된 박○○ 학생은 자신을 러시아인으로 생각했다.

마음은 러시아 사람이고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 아직도 러시아인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사례 6)

이처럼 한국에 머문 기간이 길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② 한국어위주의 언어사용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은 대개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학생들과 달리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 인터뷰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보다는 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웠다. 반면,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는 자녀가 한글을 배우는데 어머니의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 대화할 때 주로 한국어를 사용했다. 어머니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교육은 가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거나 아버지의 반대로 한국어와 부모 출신국의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연구자: 자녀의 한국어교육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부모: 저는 무조건 비싼 학원에 보내 한국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낮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사설학원에 보내는 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 많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말도 느린 편이고 이해력도 낮은 실정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집안에 갇혀 살다보니 자녀들의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경우가 많죠. 또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자녀도 많습니다. 경제력이 열악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학 전 6~7세의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곳도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사례 1)

부모: 애들의 경우 한글은 유치원에서 배우거나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웠다. 집에서 대화할 때는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 (사례 2)

연구자: 우리말은 어떻게 배웠나?

학생: 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서 처음에 우리말을 가르쳐줬다. 어머니 추천으로 지금은 YBM 시사학원에서 일주일에 한번 세 시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주로 단어공부와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독서시간에 책 읽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집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

어를 혼용해 쓰고 있는데 아직은 러시아말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사례 6)

학생: 어머니가 한국어와 함께 이란어를 같이 가르치려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해서 한국어만 배웠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 이란어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어는 잘 하는데 이란어는 잘 못한다. 네다섯 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웠다. 어머니는 TV를 보면서 혼자 우리말을 배웠다. (사례 9)

흥미롭게도 일본인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돼서야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을 시켜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언젠가 큰 아이가 “엄마 왜 일본어 해?”하며 일본어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어서인지 이때부터 일본어 가르치는 걸 중단하였다. 그래서 7살 때부터 한글공부를 시작하였다. 늦게 한글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받아쓰기 점수가 낮아 고생을 많이 하였다. (사례 3)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안 시켰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국어를 다 알고 간다고 듣긴 들었는데 너무 시키면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본의 학교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의 학교도 알아서 잘 해줄 꺼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우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한국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후회스러워요. 그때 조금 더 많이 했었다면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리 공부해 놓지 않으면 계속 뒤처지니까... (사례 4)

조선족 출신의 학부모는 최근에서야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다.

연구자: 아이들 한국어 실력은?

부모: 매우 잘 하는 편입니다.

연구자: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 어렸을 때는 주위 사물을 보고 중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딸애가 한동안 안하겠다고 해서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니다. 여기 있으면 한국말을

사용해야 하고 중국에 가면 중국말을 써야 되어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나 봅니다. 집에서 대화할 때는 주로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한국말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중국어를 하고 싶어 해서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자를 매우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례 7)

한편 박00의 경우(사례 8)는 어머니가 한국인이어서 어머니로부터 우리말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매년 방학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수단에 머물면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국말이 서툴러 00이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 주로 아랍어를 사용하고 어머니와는 한국말로 대화한다고 한다. 00이는 매년 방학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수단에 머물면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이 아랍어를 잘 하길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단에 친척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아랍어를 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아랍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③ 학습부진

국제결혼가정 부모들은 학습내용이 어려워 아이들 학습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연구자: 자녀의 학습지도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 주로 학원에 많이 의존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원에 보냈다.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반에서 2-3등)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없다.

연구자: 학원을 많이 보내게 된 계기는?

부모: 남편은 학원 보내는 걸 반대했지만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애기하다보니 너도나도 학원을 보내 우리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말레이시아에는 학원이 거의 없어 학생들이 오후 5시쯤 집에 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례 2)

부모: 해봤는데, 잘 안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4학년 때 학원에 보냈었어요. 학원에 보냈을 때 일시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었다가 남편만 일을 해서(경제적

으로 어려워서) 그만두고 나서는 성적이 다시 떨어졌어요. 혼자 공부하는 안하는 것 같아요. (사례 4)

부모: 학원에 보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목은 내용이 어려워서 사실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기 힘들다. 주로 동아전과와 같은 참고서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사례 3)

연구자: 학원은 다니고 있나?

학생: 학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을 배운다. (사례 10)

학생: 한 달 정도 종합학원에 다녔는데 혼자서 해도 된다는 생각에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다. (사례 9)

가정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박00(사례 8)는 학원 다니는 걸 싫어해 학원 대신 수학과 영어 과목 과외를 대학생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그는 수학을 어려워했고 음악을 좋아했다.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렇다보니 다른 과목보다 특히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00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하위권에 속했다. 한 선생님은 다문화가정아이들의 성적 수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구자: 다문화가정 학생들 성적 수준은?

선생님: 한국어가 잘 안 되어 우리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은 밑바닥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다 온 아이들은 잘 하는 편이다. 평균이 30점 정도다. 시험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6)

손00의 답안은 00가 우리말은 잘 하는 편이지만 글을 일반 아이들만큼 빠르게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구자: 00가 우리말은 잘 하는 편인가?

답안: 우리말은 여기서 태어나서 잘 하는 편이지만 글 쓰는 것은 잘 하는 편은 아니다. 맞춤법은 눈에 띄게 못하지 않는데 글 자체를 길게 쓰거나 빨리 쓰지 못한다.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분량도 많지 않고, 글씨도

빠르게 쓰지 못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작성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그런데 지난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는데 영어를 써서 잘 하는 것은 아닌데 흥미가 있다. 잘하지 못해도 나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있다.

한편, 일본인 부모들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낯설어 자녀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냈다.

연구자: 한국과 일본의 자녀 교육 방식의 차이는?

부모: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일본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일본은 방과 후에 운동 중심의 클럽활동을 많이 한다. 한국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고 들었다.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아는 일본인 엄마는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아쉽다. 일본에서는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돕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사례 3)

부모: 차이점은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는 공부 이외의 것을 많이 해요. 중학생은 모두 오후 3시쯤에 끝나고 그룹 활동을 해요. 거의 70%가 운동을 하고 30%는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요. 이 나이에는 운동 같은 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는 운동을 시키려고 해도 태권도만 있고, 시키려고 해도 돈이 들어요. 저는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오로지 공부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공부 잘하면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일본은 공부를 못해도 만화를 잘 그리거나 하면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사례 4)

④ 학교생활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한국에 온 지 3년 된 박00는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고 국어, 사회, 역사 과목을 어려워했다.

연구자: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학생: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 러시아에서는 공부 외에 다양하고 흥미 있는 적성교육을 하는데 한국은 지나치게 공부위주다. 또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없어 힘들다.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17살)인데 한국말이 서툴러 중학교에 들어갔다. 나이가 한살 어린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하니까 힘들다.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국학생들이 같은 또래의 러시아학생에 비해 체격도 작고 덜 성숙되어 있어 많이 놀랐다. 애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 왔다고 싫다고 한다. 일본 사람 닮았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적은 없다.

연구자: 어떤 과목이 어렵고 어떤 과목이 쉽나?

학생: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 사회와 국사과목이 어렵고 국어도 어렵다. 러시아에서 영어를 3년간 배워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쉬운 과목이다.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학교 영어시간은 너무 재미가 없다.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다. 영어를 미국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우리말이 서툴기 때문에 토론수업에는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6)

⑤ 따돌림등 차별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생김새나 부모의 출신국가 때문에 따돌림을 받거나 차별받는 경우는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외모가 한국인과 다소 구별되는 혼혈청소년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 한두 번은 생김새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대상이 되곤 했다. 일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경우는 외모가 한국인과 거의 똑같아 외모로 인한 놀림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

연구자: 학교생활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나?

학생: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멸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 애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 혼혈아인지 잘 모른다. 설사 친구들이 내가 혼혈아인지 알더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먼저 나서서 친구가 되자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가끔씩 ‘안녕하세요?’가 말레이시아 말로 뭐냐며 묻는 친구들이 있곤 하지만 가벼운 인사치레 정도다. (사례 2)

연구자: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생: 없어요. 대부분의 친구들 어머니가 일본인이어서 학교 다니면서 어려웠던 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어시간에 조금 더 알려달라고 하고 어머니가 일본인

이어서 놀랜 친구는 있었지만 따돌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여중이라 남녀공학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사례 4)

학생: 어머니가 일본인인걸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따돌림을 당한 적은 없다. 친구들이 가끔씩 인사하는 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이 일본어로 튀냐고 묻는 정도다. (사례 5)

외모가 한국인과 뚜렷이 구별됐던 손00의 경우와 다소 피부가 검은 박00도 초등학교 때 놀림을 당하긴 했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자: 외모로 인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

학생: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놀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주로 친구들이 까꿍이라고 놀렸다. 싫긴 했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친구들이 가끔씩 물어보면 필리핀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사례 10)

학생: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이들이 얼굴이 까맣다고 놀려 한바탕 싸운 적이 기억난다. 하지만 지금은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아본 적이 없다. (사례 8)

답임: 외모가 한국인인데 까만 피부를 가진 것 같지, 외국인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외모가 달라서 아이들과 다투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00이는 친구들도 많고 사이 좋게 잘 지낸다. 그리고 여기가 이태원이라 워낙 외국인들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아서인지 그런 것에 예민하지 않다. 만약 00이가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단지 조선족 출신 전00는 최근 아이들이 초등학생인 딸을 'made in China' 라고 놀려 힘들어했다.

연구자: 자녀의 학교생활은?

부모: 그동안 별 문제없이 학교에 다녔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made in China'라며 딸을 놀려 딸아이가 무척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중국서 만들어진 제품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는데 그 말을 더럽고 불량스럽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조사를 하는 바람에 중국출신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례 7)

이란 출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최00는 따돌림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다소 힘들어했다.

연구자: 외모로 인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

학생: 지금까지 따돌림은 없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재미있었다. 가까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거리를 지나갈 때 이상한 눈으로 흘깃 쳐다보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물을 때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어 싫었다. 가령, 택시를 탈 때 ‘어디서 왔어요? 우리말 잘 하네’ 며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들을 때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 싫었다. 혼혈이란 말을 듣는 것과 예의 없이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나? 고 묻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예쁘게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말해 줄 때 좋았다. (사례 9)

이처럼 생김새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따돌림이나 놀림은 중학교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7, 8, 10에서도 나타나듯이 초등 학교 때 이런 따돌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교우관계

인터뷰에 응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중 성격이 비교적 활발한 학생들은 친구가 많았다.

연구자: 친한 친구들은 몇 명쯤 되나?

학생: 초등학교 때는 소극적 성격이어서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성격이 활발한 형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사례 2)

학생: 10명가량 있다. 친구들이 이란출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 대해줘 학교생활은 그다지 힘든 점은 없다. (사례 9)

연구자: 00의 학교생활은?

선생님: 오히려 한국 아이들보다 더 활발하고 적응을 잘 하는 편이다. 친구들도 많고 잘 지낸다. 그래서 00에 대하여서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없다. (사례 8).

(선생님은 인터뷰 중간에 개인 기록부 중에서 00 어머니와 00가 작성했던 '00이의 장점'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00의 장점으로 '사회성이 뛰어나고 센스가 있다'고 답했고, 00이 역시 '친구를 잘 사귀다'고 답하였다. 선생님은 00가 한글을 쓰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것이 한국아이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연구자: 친한 친구들은 몇 명쯤 되나?

학생: 학교에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같은 반은 아니고, 2명은 엄마가 일본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아빠가 일본인 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쪽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같은 반에도 함께 다니는 친구가 5명이 있고 밥을 같이 먹는 친구는 2명이 있어요. (사례 4)

학교에서는 주로 몽골출신 학생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점심시간 때 몽골학생들과 자주 같이 밥을 먹는다. 동생처럼 잘 대하여주려고 한다. 한국인 친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친구들이 많다. 00교회에 다니는데 같은 처지의 고려인들이 많아 친한 언니와 오빠들이 많은 편이다. (사례 6)

손00의 경우 같은 반 아이들 네다섯 명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사회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구자: 아이들이 놀린 적은 없나?

선생님: 그런 적은 없는데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글씨체가 초등학교 글씨처럼 크고 다듬어지지 않은 글씨체이다. 한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글씨를 많이 배우는데 00는 어머니가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인 것 같다. (사례 10)

연구자: 아이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선생님: 사회성이 부족한 것에 신경을 쓰지만 편애하진 않는다. 그리고 혼자 불러서 남자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그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00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착실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이 아이들과 조금 다른지 잘 섞이는 것 같진 않다. 동생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하기 때문인 지도 모르겠다. 너무 순진해서 사교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

⑦ 필요한 지원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양하게 언급했다.

한 학생은 다문화가정아이들과 일반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향후 지원은?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받는 느낌을 들지 않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한다. 주변에서 보면 혼혈 아이들과 같이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혼혈 아이들과 일반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사례 9)

한 아이는 일본처럼 학교에서 무료로 음악이나 미술, 운동을 방과 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례 4). 이 학생의 부모는 한국 부모와의 교류를 다음과 같이 간절히 원했다.

연구자: 다문화가정을 위하여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한국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는 수준에 맞춰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분위기나 정책 등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한국 엄마들을 잘 알면 정보를 알 수 가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엄마들하고 교류가 잘 되지 않아요.

한 일본인 학부모(사례 3)는 한국문화나 역사체험을 강조했다.

연구자: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앞으로 이뤄져야 하나?

부모: 예전에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경복궁, 남산, 한강 등지를 데리고 다녀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문화나 역사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박○○(사례 1)의 경우 향후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참여확대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를 강조했다. 손○○(사례 10)의 담임선생님은 학생들보다는 이들의

부모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외국인 어머니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3. 소결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5년 후가 지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률적 토대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자녀와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인터뷰 결과 전자보다 후자의 적응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대부분 어렸을 때 한국으로 이주해온 경우가 많아 오랜 세월을 한국서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정체성은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 또한 외모나 국적 등으로 인해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그들은 쓰기 영역에서 일반 아이들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한국어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을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획일적으로 이뤄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IV.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실태

1. 정부지원
2. 민간지원 사례
3. 학교지원
4. 소결

IV.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실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지역아동복지센터 프로그램, 무지개청소년센터, 안산이주노동자 센터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특성,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향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의 5개 부처의 지원정책은 주로 결혼 이민자들의 체류와 생활안정을 위한 접근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일회적이거나 미온적이었다. 그나마 2007년에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 교육청, 대학 등 개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타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지원되던 것과 달리 교육부가 이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조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국 시·도에 공통되는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지속 점검·관리하고, 시·도별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공모형식을 통하여 선정·지원하며, 연구·개발을 위한 ‘중앙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부 추진과제는 부처 간 및 지역 간 협력체제 구축,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추진과제는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반(KSL)·특별학급 등 운영, 교재 개발·보급,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실시, 학부모 연수 등 주로 학교에서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07, 12억 4천만 원), 전국 18개 대학(‘06 ~ ‘07, 9억 7천만 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청

을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06 기준, 22억 원)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사업의 세부추진과제를 교육복지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항목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추진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11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공모사업은 관련 학생·학부모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며,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중앙 다문화교육 센터가 지정 운영된다. 중앙 다문화교육 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다언어 교수·학습 지도 교재 개발·보급,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담당교사 연수를 위한 핵심교원 등을 양성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NGO, 언론사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그 참여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시·도 다문화교육 센터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관련 사업이 현장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상향식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농림부도 2007년도부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중 한국 농촌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족을 선발하여 격려함으로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이 한국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⁹⁾,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으로의 통합지원¹⁰⁾등의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벤트성 행사와 서비스에 국한되었던 정책들이 점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

9)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실시: 1가정에 대하여 1년에 5개월 동안 1주일에 3회(방문 2회, 소그룹 1회) 한국어 교육 및 소그룹 교육 지원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생활예절, 요리강습, 전통문화교육 등이다.

10) 부부교실(생활예절,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으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지원), 가족캠프, 모범가정격려(모국 방문 비용지원 및 선진영농현장 견학실시 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지원의 내용에서 공교육 내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좀 더 소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총 20개의 지원정책 중 이주여성 자녀를 위한 정책은 충청남도의 ‘자녀학업자료 지원’이 유일하다. ‘상당수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부모의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개입 및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 판단된다. 민간차원의 자녀지원은 서울, 경기, 충북의 각 1개 민간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을 위한 사업을 후생하고 있으나, 방과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이나 코시안 아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을 위한 일회성 문화체험 행사에 비해서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실제 학업과 생활에서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50.5%(33688명)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체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예상할 수 있다(차유림, 조정아, 2006).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들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건강, 교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의사소통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한국어 소통 능력미흡(29.9%)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양육은 주로 가족이 직접 하고 있으나(68.5%),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7.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교육과 생활지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이를 기초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정부지원

1) 국가청소년위원회 무지개청소년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4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을 위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센터는 새터민 청소년의 입국 초기부터 학교와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전 적응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7년부터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등 다문화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 3월 현재 소장과 부소장(비상근직), 6명의 직원(상근직) 등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 사업으로는 ▲ 다문화가정자녀의 거주 실태 및 인권상황 파악 ▲ 다문화이해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 다문화가정청소년과 지역사회 간 협력 및 교류 지원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코시안의 집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언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재한몽골학교와 연계해 몽골 근로자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2006년 9월에는 ‘다문화청소년과 친구되기’ 공모전을 개최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극복과정에 대한 글과 영상물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관련, 센터직원들은 우선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쉽게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교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각 대학 한국어 어학당 교재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한국어 교재를 써야 할지에 대한 문의가 센터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마땅한 교재가 없어 추천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

정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어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문화적 차이와 교육 방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같은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학력수준이 높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우수 인력을 집중적으로 선발해 육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방과 후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공부방의 부족도 지적됐다. 서울의 경우 하월곡동, 미아리, 청량리 등지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공부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찾아 공부방 운영을 확대하여 갈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의 경우 거주지를 벗어나 활동하기가 힘든 만큼 이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공부방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년과 나이의 불일치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모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했다라도 한국어가 서툴러 한국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 친구처럼 어울려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국의 학교생활과 경험을 존중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게 학교에 다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1999년 한국에 온 몽골출신의 따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어려웠다. 스스로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2006 다문화 청소년 친구 되기 공모전 출품작).

한편, 김두현 활동복지단장은 다문화청소년지원방안으로 ▲학교 내 지원 체제 마련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회적 안전망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일반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제시했다(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자료집, 2007). 즉 다문화청소년의 학업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나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와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교육도 병행하여 그들의 정체감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직접 접촉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중요하다.

2)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한글교육, 자녀양육지원 등의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3월 현재 전국에 37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활동 중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표 IV-1>과 같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가는 서비스’를 실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에서의 조기 적응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임신·출산·육아·지리적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녀지원, 출산전후 도우미 제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한국어에 능숙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강사교육도 실시하여 이들이 한국체류기간이 짧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다음은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그 효과 등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다.

<표 IV-1>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현황 (2007. 3. 현재)

시 도	센 터 명
강원도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남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	경상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경상북도	구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포항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문경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광주시	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구시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달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대전시	중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부산시	부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울산시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인천시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라남도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영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라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제주도	제주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출처 : 여성가족부.

(1) 서울 영등포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 센터는 2007년 3월 개소했으며 2006년 5월 설립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속해있다. 2007년 5월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1,000명가량의 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은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상근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2007년 5월 현재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 결혼 이민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ex: 한글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이 있나요?

현재 실시중인 프로그램은 한글교실과 아동 양육지원 사업이다. 6월부터 기본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한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주로 진행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한글교실의 경우 영등포 구민회관서 월, 수, 금 오후 1시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25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수강하고 있는 데 이중 80% 가량이 중국계(조선족 포함)고 나머지 20%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개소 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미취학 연령대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아동들을 위하여서는 아동양육도우미를 각 가정에 파견하고 있다. 현재 7명의 양육도우미가 활동 중인데 이들은 상담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아동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 등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단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다보니 자리를 비워 공백이 생길 경우 마땅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 예산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후원 받으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예산지원은 여성가족부와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받는다. 후원을 못 받게 되어 있다.

(2) 서울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 센터는 2006년 9월부터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내 동대문구건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하여 이 센터가 추진 중인 활동은 크게 교육사업, 상담활동, 문화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상근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상근직원은 한 명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기업체 직원과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대략 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행사 안내, 전단지 배포, 이름표 작성 등을 거두고 있다. 특히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생들의 통역 지원이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 결혼 이민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ex: 한글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이 있나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및 자녀보호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정서 지원프로그램이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에는 ▲한국어교육 ▲문화교육(음식 만들기, 우리나라 고유의 춤 배우기) ▲가족지원교육(부부상담, 부모교육) ▲직업·정보화교육(직업, 컴퓨터 배우기)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상담 및 자녀보호 프로그램에는 ▲상담 ▲이민자의 수업을 돕기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인 신나는 놀이터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서 지원프로그램은 ▲가족축제 ▲열린 음악회 ▲다문화 포토스튜디오를 실시하고 있다.

-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주로 진행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한글배우기는 주중에는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4시까지 2개월 과정으로 3개 반이 수준별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월 과정이며 중급반까지 레벨테스트를 해서 통과한 이민자들이 듣는 수업으로 쓰거나 한국사회와 문화를 배운다. 경희대 국제교육원 강사들이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국어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다.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총 40명 정도 이고 각 반

별로 12~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일본 여성이 3분의 1가량 되고 나머지는 중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한글교재는 여성가족부와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나온 교재를 주로 사용하는데 교육원에서 나온 교재의 내용이 좋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교육의 질이 좋아 먼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센터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 광진 초등학교에서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사를 파견하여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로 가족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에는 경희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민자 가족과 한국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느리게 걷기'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다. 결혼이민자 가족과 한국인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교류하고 접촉하는 장이었다. 우리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들과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2006년에 결혼이민자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며느리 나라 이해하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 향후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한국어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하지만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이런 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결혼이민자들이 더러 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취학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양육도우미가 각 가정마다 일주일에 3번, 한 시간씩 방문하여 독후감쓰기, 일기쓰기, 수학이나 사회 등 교과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선생님 7명이 총 35가구를 개별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직교사, 가족 관리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양육도우미

로 선발된 두 교육을 받고 현장 활동을 한다. 미취학 아동들도 한국어교육을 받고, 놀이, 건강·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모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자와 한국인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복지관서 관내 노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혜자의 위치에 있었던 결혼이민자들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흐뭇해했고 노인들도 결혼이민자들의 노고에 고마워하였다.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한 행사였다.

- 예산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후원 받으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예산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50%씩 받고 있다. 그리고 그랜드코리아와 같은 기업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오기도 한다.

- 질문 외에 말씀하시고 싶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민자 부모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더욱더 성장했을 때, 일반 한국인과 다르다고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라고 느낌을 주는 개념의 이름, 예를 들어 온누리안이나 코시안(Kosian)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면서 한국인과 구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들을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3) 장수 민들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장수지역은 초기에는 일본과 중국 조선족이 많이 이주해왔으나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장수군 결혼이주여성세대는 2007년 1월 현재 128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 센터는 전북 장수지역에서 비교적 빠른 2004년 말부터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운영하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 한글교육이 아닌 한국어교육 ▲ 동화정책이 아닌 다문화주의정책 ▲ 삼중언어교육(아버지 언어 한국어, 어머니 모국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삼중언어교육사업 중 어머니의 모국어교육 필요성과 관련, 이현선 소장은 어머니의 모국어교육은 자녀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영어를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자녀들이 사회적인 소수자 집단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력한 다문화주의, 다언어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상근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센터 소장과 사무국장 등 모두 2명이 상근하고 있다. 또한 5명의 한국어 강사가 한글교육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결혼 이민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ex: 한글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이 있나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장수민들레교실’을 운영하면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주여성들의 국적은 대부분 필리핀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도 있다. 교실에 오는 자녀들은 20여명 가량 되는데 어머니가 교육받는 동안 아이들은 다른 교실에서 아동교육 자원봉사선생님들에게서 동화읽기, 노래지도 등 수업을 받는다. ‘찾아가는 민

들레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민들레자녀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민들레컴퓨터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주여성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과 상담기관들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이주여성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문 통역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대학이나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경우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먼저 배우게 한 다음 일정 수준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민자와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불안정하다. 정부지원예산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까지 자체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해보지만 국제결혼가정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은 쉽지 않다.

(4)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 센터는 2006년 9월 13일 개원했으며 진주시 상대2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내 YWCA 2층에 위치해 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 한국어교육(2007년 현재 수준별로 5개 반 한글반 운영) ▲ 한국 음식만들기(연 4~6회 실시) ▲ 가족단위 프로그램(봄, 가을소풍, 운동회, 여가활동 등) ▲ 상담(가족상담, 부부상담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글교육 위주로 진행되던 2006년과는 달리 2007년에는 상담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져 결혼이민자의 시부모나 남편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센터에서 일하는 간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상근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상근직원 수는 여성가족부에서 모든 센터에 1명을 배치하라는 방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받은 상근직원 1명과 센터장, 센터 직원 등 총 3명이다. 자원봉사자들은 한글 교사 6명, 차량봉사, 아이돌보기, 프로그램 보조 역할을 맡은 분들까지 합하여 총 15명이고 주로 한국인 어머니들이다. 자원봉사자들 체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바쁜 업무를 원활하게 해준다. 상근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현장 경험도 많은 분들이지만 결혼 이민자 사업이 1년 단위로 이뤄져서 직원들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보니 월급이 적은 편이다.

-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우선,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빨리 한국어를 습득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영어나 러시아, 중국어 등)를 가르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빨리 한글을 배워 이들이 장차 같은 민족출신의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고, 같은 나라의 사람이 한글을 가르치는 데 대한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자녀 역시 어머니가 강사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어머니의 국적을 속이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한글 교재를 해당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한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진행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YWCA건물에서 실시하며, 접수된 인원은 100여명 정도이지만 임신 등 개인사정 때문에 실제로는 90여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아동(유치원, 초등학교)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못했었는데 올해는 아동 양육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 양육도우미란 0~12살까지를 대상으로 결혼 이민자 자녀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아동을 키우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우선, 직원 수는 적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너무 바쁘다. 또한 한글 배우기 교실의 경우 5개 반 20명 정원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원변동이 너무 많아 일하기가 어렵다. 수준별로 반을 개설해 놓았지만 도중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 수준별 학습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더 시급한 문제는 최근 이혼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상담 요청 사례가 늘고 있어 한글교육업무 외에 상담까지 하려니 힘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근할 수 있는 상담사를 국가에서 배치했으면 좋겠다.

- 예산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서 80%, 진주시에서 20%의 비율로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역시 두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비율은 정확하지 않다. 후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즉 고학년들이 어느 초등학교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요?
고학년보다는 초등학교 2, 3학년이 주로 많고 신안동 등 좋은 학군에 다니는 아이들과 변두리에 다니는 아이들 등 여러 곳에 퍼져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조사했을 때는 없다고 나온 학교에도 실제로는 한, 두 명씩은 분포되어 있다.

- 그밖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현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그들이 청소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복지 지원제도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담을 담당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춘 상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5) 안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006년부터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글교육 :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요리교실 : 한국음식 만들기와 한국음식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가족단위일일 나들이지역문화탐방 :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족애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 노래배우기 : 민요, 가곡, 유행가 등을 배우며 한국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상담지원 : 국제 결혼한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상담 및 지역 사회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부모와 자녀들의 음악성, 창의성, 표현력, 집중력, 사회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달크로즈 음악 표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8월부터 동화구연프로그램이 시작될 예

정이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지원되다 보니까 참여 도중에 취업, 출산 등의 문제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직원 1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 부담이 크다.

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4월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선정
-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1대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 교원연수 강화(소수자 배려 교육·한국어(KSL) 교육·한국문화 교육)
- 교육과정 개정 시 중3 도덕교과에 ‘타문화 편견 극복’ 단원 포함
-2006년 하반기에는 우선 「교과서 지도 보완자료」 발간·배포
-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한 지역단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 위한 부처 협의 추진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2006년부터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자녀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서울시교육청

2007년 서울시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어교육 및 방과 후 지원이다(아래 표 참조). 이 사업은 크게 학습지도, 특기지도, 인성 및 적응지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표 IV-2> 한국어 지도 및 방과 후 학교 지원

영역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예시
학습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능력에 따른 한국어 지도, 기초학습지도, 학력 부진과목 집중 지도 ○ 독서지도, 학습방법지도, 숙제하는 방법지도 등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지도 • 기초학습 지도(국·영·수) • 독서지도 • 신문을 활용한 수업(NIE) • 숙제 도와주기
특기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영역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데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지도 • 음악(성악, 악기)지도 • 운동지도
인성·적응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심성계발, 성취의욕 동기부여, 진로 동기 고취 등을 길러주는 데 중점 ○ 문화의 다양성과 자기문화에 대한 긍지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교육 ○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 ○ 부모교육 및 부모모임을 통하여 자녀간의 대화 방법, 학교교육내용이해, 자녀의 진학지도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실시 - 연극, 고적답사, 각종 박람회 참관, 도자기, 염색, 찰흙공예 • 현장체험실시 - 운동 경기 참관, 등산, 자전거, 갯벌탐사, 별자리탐사, 직장탐방 • 부모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모임) • 체육활동 프로그램 - 실내외 활동 • 사적지 탐방 프로젝트 - 궁궐답사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 지원계획(2007)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계획의 목적은 (1) 다문화가정 자녀(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자녀, 귀국학생)의 학습 및 문화 적응력 향상 (2)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통한 자립성 제고 (3)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사회적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한 사회 통합의 토대 마련 (4)해외에서 귀국한 귀국자 특별학

급 학생들의 사회적응력과 해외의 우수한 능력 유지·발전이다. 구체적인 추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방과 후 학교 지원’이다. 이를 통하여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책무를 완수하고 인성·진로·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및 이해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학습지도, 특기지도, 인성지도 및 적응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특기, 인성, 창의성을 계발을 하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운영 방법은 수업이 종료된 후, 토요일휴업일 혹은 재량 휴업일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지도수당으로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하며, 학년 간 연계나 인근 학교 간 연계를 통하여서 지도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무학년제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번째로, ‘귀국자 특별학급 운영 지원’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외국에서 장기 거주 후 귀국한 학생의 효율적인 학습 적응을 돕고, 귀국 학생의 국내 문화·환경의 조기 적응과 문화 주체성을 확립하며 외국에서 습득한 언어와 문화적 경험·국제적 소양을 유지·신장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방과 후 한국어반 운영(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지도)과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준별 교과지도와 같은 학업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활동(한국 민속촌 체험활동, 한옥마을 탐방, 박물관 탐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며 각 학교 상담실에 귀국자를 위한 상담코너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또한 국제이해 교육을 실시하며 원어민 교사와 수업, 다양한 외국어 관련 활동과 같은 외국어 능력 유지 및 신장을 지도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세 번째로, ‘한국문화 체험캠프 개설 및 운영’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응력을 신장하고, 국제이해 프

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상호 존중의식을 함양한다. 따라서 사회적응력 신장 및 진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진로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통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자료 발간 및 보급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 시민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국제 이해력을 고양하고, 다문화 세계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학생의 다문화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의 유형으로는 다문화가정 편견 해소와 이해를 위한 홍보자료를 중고등학교, 지역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에 배부하고, 교사용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이해를 위한 워크북을 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수업에서 워크시트로 직접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어울 마당’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문화 체험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나라 문화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국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대상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이며 토요 휴업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내용은 먹을거리 행사를 통한 이웃되기, 문화 행사를 통한 이웃되기, 경연(노래, 춤, 놀이)대회를 통한 특기·적성 살리기와 기타 문화 활동이 포함된다. 지역 교육청 혹은 서울시교육청 단위, 서울시와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지역 사회와 연계하고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 외에 청소년상담센터 내 다문화가정 자녀 상담코너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5) 전북교육청(Kosian Edu Plan)

(1) 교육지원 개요

경기도, 서울, 전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국제결혼가정이 많은 전라북도¹¹⁾는 특히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코시안 교육전담팀을 구성하여, 입학 전 안내자료(4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배포하였으며, 학부모사랑방(초, 중, 고 207개 학교)과 자녀사랑방(초, 중, 고 659명)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사랑방을 통하여서 국제결혼이민자 부모의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와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 사랑방에서는 담임과 지역사회 또래간의 일대일 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서 온누리안¹²⁾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누리안 만남의 날, 어울 한마당 등 지역사회참여행사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운영(<http://onnurian.jbe.go.kr/>)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 교육지원서비스

서비스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국제결혼 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5)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명)	668	250	157	287	127	113	10	1,480	304	279	345	517	587	468	457	52
비율(%)	11.24	4.08	2.56	4.69	2.07	1.85	0.16	24.18	4.97	4.56	5.64	8.45	9.59	7.65	7.47	0.85

12) 전라북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명칭을 2006년 공모를 통하여서 ‘온누리안’으로 선정하여 모든 도교육청 프로그램을 온누리안으로 변경하였으나, 다문화가족들이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며,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다시 다문화가정으로 칭하고 있었다.

- 교육전담팀 운영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종교단체,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전문대학), 법률기관(법원, 변호사),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의원, 보건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연계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을 위하여 언어소통 및 문화이해를 위한 한글공부방을 운영하고, 국제결혼이민여성을 방과 후 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여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도 교육청 내에 60여명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방과 후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본인과 그들의 자녀, 가족, 지역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어울 한마당¹³⁾ 등 가족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시부모,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국제이해 교육연구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아동들의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¹⁴⁾를 발간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프로그램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상담실 및 한국어 공부방을 운영한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나라별 친교활동을 도모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원어민 강사활용, 다문화가족지원 및 학생지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하여 동기부여에 노력하고 있다.

- 단위학교별 학부모 사랑방 운영

학교별로 학부모 사랑방을 운영하여 다문화 아동과 담임교사 결연 맺기, 결혼이민자와 학부모자원봉사자 결연 맺기를 시도한다. 이 결연 맺기 프로

13) 주요 활동 내용은 다문화 아동에게 신입생 장학금 지급, 적응사례발표(학부모), 우수지도사례발표(교원, 학교), 한국어말하기 대회, 한국문화퀴즈대회, 가족 노래 자랑 등이다.

14)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안내와 입학식 때까지 준비해야 할 학습도구, 입학 전 기본학습 훈련, 학교생활 적응지도, 언어생활, 수 개념 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내 자료도 4개 국어로 제작 보급하였다.

그럼은 이들의 정서적, 학업적,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자문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이들의 학교적응과 학부모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담임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국제결혼이주자들의 한국어 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학생지도와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단위학급 별 자녀사랑방/마을사랑방 운영

다문화아동과 담임 간 일대일 결연(자녀사랑방)을 통하여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동네친구와도 일대일 결연(마을사랑방)을 맺음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친구사귀기와 한글쓰기 등의 도움을 받는다.

- 유아교육 통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전통 예술교실, 우리 동요, 동화교실 등을 운영한다.

2006년도부터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중에서 70여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6개월 정도 학습지원을 하였는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4개 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된 신입생 입학 전 안내책자는 간단한 소개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교육정책과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특정한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실천정도와 성과도 일선 학교의 학교장과 담당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 교육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및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방과 후 활동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어려운 점으로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이 원해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대와 이해부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여름캠프에서도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130가정은 다문화가정으로, 70가정은 일반가정으로 하였는데 오히려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교육청 프로그램 내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폭력실태조사에서 또래간 폭력의 문제는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정 내 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이해도 필요하다. 현재 전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의 70%정도가 통일교로, 과거 일본에 한정되었던 통일교로 인한 종교적 결혼이 필리핀, 중국 등의 국제결혼에도 매우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저학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집단적, 혹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학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주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고학년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로 인하여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오히려 대학생들을 통한 일대일 멘토링 등과 같은 개별서비스 제공을 원한다고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들의 다중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홍보를 통하여서 강조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으며, 가족들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자녀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교육정도가 달라지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능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

6)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 16,510명 중 영등포구가 1,007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대림동 중심에 분포되어 있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200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온 참가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함께해요 프로그램 : 본 복지관 어머니회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멘토가 되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하여 친정엄마, 친정언니의 역할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을 보육을 지원한다.
-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체험 : 상황 · 장소별 이용, 화폐사용, 한국음식, 예절, 다도, 민속촌, 공연관람 등
- 수준별 한국어교실
- 세계문화축제 : 각국 음식축제, 민속놀이, 패션쇼, 전통혼례 등
- 가족캠프 : 결혼이민자가족 간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캠프
- 캠페인 :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여의도 벚꽃축제 기간 동안 다문화가족 사업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임. 사진전 전시, 캠페인 물품 제작해서 배포)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 자녀들이 많아서 프로그램 참가동안의 보육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는 한국어지원과 사회성 증진을 목적으로, 학령기 아동인 경우에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7) 안산 'We Start'

안산시 We Start에서는 지역 내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체계적 사례관리를 위해 민(위스타트사업 수행기관)-관(시청 위스타트팀) 통합의 팀 접근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와 가족을 위한 개입사례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1) 사례개요

- 개입경로 : 2006.4월 안산시 초지동으로 전입되었으며, ct는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가구의 생활보장형태는 국제가정(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부의 조울증으로 인해 모의 어려움이 많아 고위험으로 사례관리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 가족사항
 - a. 父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가정폭력과 병원치료 거부로 일상활이 어렵다. 일용직등으로 불규칙하게 일하나 한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음.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청소년기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 b. 母 : 태국인이며 종교가 통일교로서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한국어가 부족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폭력, 자녀의 건강문제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c. ct(7세) :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적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많다. 건강상태로는 아토피가 심하며 편식, 잦은 장염등으로 허약함. 07년 취학대상아동이나 한글 수 등의 취학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 d. 弟(2세) : 05년도 폐렴을 앓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 욕구 사정에 대한 개입과정

구분	1차 욕구	1차 개입
교육	-ct의 어린이집 적응	-유아 교육중재프로그램 참여
경제	-생계비지원 희망	-초지동사무소 연계: 수급신청 서류작성 상담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 책정(7월)으로 의 료급여 1종대상자가 됨.
건강	-가족의 의료비지원 -부의 병원치료와 자녀들의 건강검진	-가정방문 건강검진 시행 -단원보건소 연계: 자녀들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및 모의 건강검진 실시 -정신보건센터 연계: 부의 병원진료와 약물복 용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실시
심리 정서	-ct의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과격 한 행동 언어표현의 어 려움	-장애인복지관 연계: 심리정서 및 언어발달 검 사 실시

구분	2차 욕구	2차 개입
교육	-모의 한글학습 -동생의 어린이집 입학	-모는 용신평생교육원 연계: 한글학습시작(주 2~3회 출석) -동생의 어린이집 대기자 신청
경제	-부의 취업교육	-부의 직업교육 안내: 국고지원 자격증취득 교 육과정과 시청 911취업관장 안내
건강	-가족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We Start 건강지킴이 가정방문사업지원

구분	3차 욕구	3차 개입
교육	-ct의 취학준비 교육 -가족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욕구	-장애인복지관연계: ct는 심리정서 소그룹 프로 그램 참여 시작(1년간) -예비초등학교 준비프로그램 참여 -한솔복지재단연계: '희망특공대' 1년간 한글학 습 교재와 방문교사 서비스 신청(11월 시작) -주말가족프로그램 참여(3회)
경제	모의 취업의지	-안산세무소 연계: 외국인 미용실운영에 관한 정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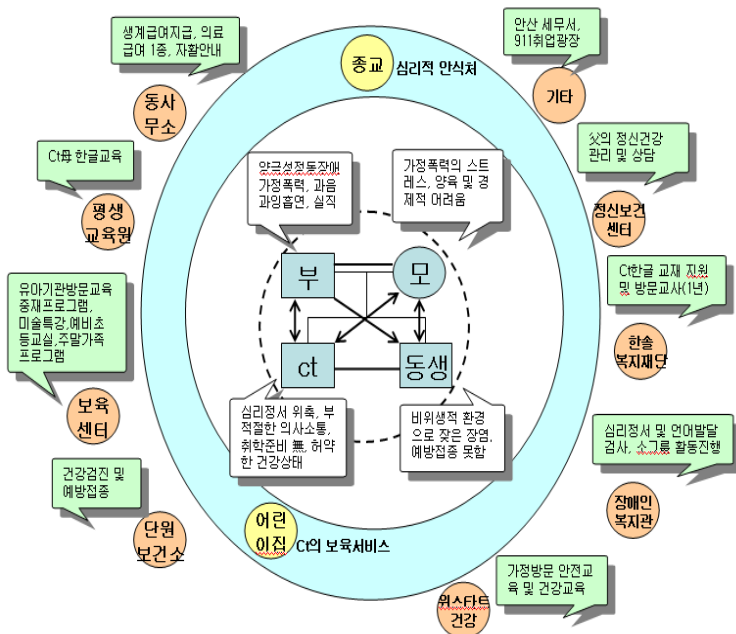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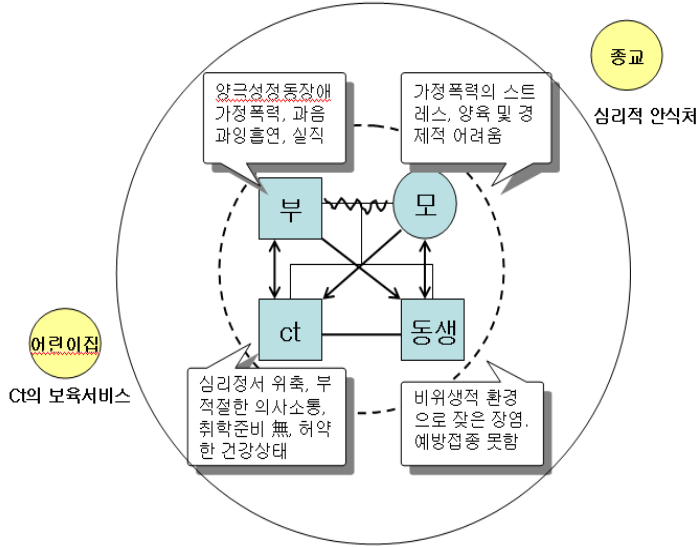
결과

- **父母의 변화** : 부는 정신보건센터 연계 후 병원지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며 이후 폭력적 성향이 잦아들고 취업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확고해졌다. 모의 한글교육이 이루어지며 한국에서 미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립의사와 안산내의 종교, 평생교육원, 보육시설, We Start와 의 지지체계가 탄탄해지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다.
- **ct의 변화** : We Start의 교육중재 프로그램 및 미술특강, 예비초등학교 교실을 통하여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장애인복지관의 소그룹프로그램의 참여로 과격한 신체표현이 줄고 의사표현방법이 발전됨. 또한, 한솔복지재단의 1년간 한글학습지와 방문교사의 지원으로 모와 ct의 한글학습능력 향상과 체계적으로 취학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되었다.
- **주변인의 변화** : 국제가정에 대한 거부적 태도, 가정에 대한 편견 등이 관심과 도움으로 바뀌고, 모와의 의사소통 시 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배려하려는 노력의 변화. 단기간의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로 가족기능의 강화 및 향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향후
계획
방향**

- 父의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 및 취업교육 실시, 母의 양육기술 향상과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 Ct의 취학준비도 향상 및 긍정적 또래관계 지속을 위한 정서적·교육적 지지체계 안정화해야 한다.
- 전입 후 9개월 간 가족기능의 향상 및 가족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지지 체계 및 생태도 변화



현재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가정, 국제결혼가정 중심)의 대상자 발굴은 위스타트는 사업지역이 초지마을, 본오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대상자 또한 법정저소득 및 차상위 가정을 우선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산시청 위스타트팀에서 공적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고 위스타트 사례관리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사례발굴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위스타트사업 중 외국인자녀 양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혼인에 의해 국적취득이 되어진 현황 자료를 전산을 통해 파악하고 그 중 12세 이하 아동이면서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대해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외국인 전담어린이집과 원곡동(등록외국인 가장 많은 지역)에 소재한 공공립보육시설을 통해 대상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대상을 의뢰해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상자에 따라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는 대상자도 있으면 위스타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 제공받는 대상도 있다. 외국인자녀에 대한 개입은 법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례 관리 건수가 적은 편이다.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나 부재하고, 기존 서비스 등도 교육적, 발달적 접근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개입이 미시적이면서 개별적인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 개입 형태가 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중재프로그램, 정신건강지원사업,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라고 본다.

위스타트 사업의 담당자가 제안하는 앞으로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혹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은 국적취득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정착 영유아기 때는 국가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재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결혼이민자는 제외). 외국인 전담어린이집이 우리시에서 설치되어 있지만 시설지원(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있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불가하여 굳이

이들 시설이 신고시설로 신청할 동기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나 아이돌봄이 등 바우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호계획을 세우고 세부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위스타트 사업의 본래 취지가 그렇듯이 어리면 어릴수록 적극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득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은 관심과 투자 한 만큼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생부터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셋째, 위스타트를 통해 영아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유아를 위한 교육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지 및 언어발달을 도모하고 학령기아동을 위한 학교적응력향상 및 가족지원사업을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나 외국인자녀를 위한 공적전달체계에서 조직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수행기관을 설정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조직 및 인력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민간지원 사례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1년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부설인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의 집"이 설립되면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대표 1명과 2명의 직원, 그리고 인턴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음은 직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되나?

이주여성 가정에 방문하는 가정방문 팀이 20명 정도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가정 당 2명의 자원봉사자가 방문한다. 센터 교육 팀에는 13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교육관련 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업업무보조를 맡은 사람이 2명, 모성보호 팀이 10명 내외가 있고,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팀이 8명 정도 된다. 정책팀은 변호사,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기타 통역 자원봉사자, 변호사 지원단, 그리고 전문상담가, 베트남어 교육, 한방 진료를 맡은 한의사도 있다. 전문상담가와 변호사들은 주로 이혼, 체류,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어를 교육하는 자원봉사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이다. 한방 진료는 2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 결혼 이민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ex: 한글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컴퓨터 교육, 베트남어 교육이다. 한국어 교육은 초, 중, 고급으로 나눠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험은 작년까지는 김치박물관 방문하기, 민속촌 방문하기 등을 추진하면서 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에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인들이 즐기는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뮤지컬, 미술관, 노래방 방문하기 등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이 체험하는 문화생활을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주여성 열린 대학,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부부교육 프로그램(남편 교육 위주), 생활교육, 외부에서 하는 경제교육, 가족 캠프(외국인 노동자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가족 대상)를 실시하고 있다.

-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주로 진행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요?

문화체험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센터 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컴퓨터 교육, 베트남어 교육은 정기적으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등록인원은 80~90명 정도 인데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재 30~40명 정도 있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문화체험은 한 달에 한 번, 컴퓨터 교육은 2주에 한 번, 베트남어 교육은 남편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

-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먼저 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교육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와서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없어 답답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 같은 국적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을 통하여서 한국 생활의 적응 문제에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또한,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정책 개선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라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의 자녀 나이가 적을 뿐더러, 학교에 입학하면 주로 학원을 보내는 것 같아 센터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드물다. 몇몇 아이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할 생각이 있다. 가령 자원봉사자들이 결혼이민자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주여성의 자녀가 한국어가 서툴다든지 하면 한국어 교육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학업에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리고 컴퓨터에 온 이주여성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기는 하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를 하거나 자료집이 발간되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주여성보다는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한다. 그리고 재정이나 인력이 충원된다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 예산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후원 받으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개인 후원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타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받기도 한다. 여성재단에서 실무자,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연극 티켓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뮤지컬, 국악 등 문화체험활동은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었다.

- 질문 외에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주성과 자녀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에서도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존감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줘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구성원들을 한국인으로 만들려는 동화주의 성향이 강하였다. 어떤 입장이 옳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선

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한 쪽만을 고집하지 않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2)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는 충청권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한국여성과 이주여성들의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단법인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상근직원 3명과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업무까지 맡았다. 이 센터는 기독교장로교회 충북교단의 도움으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2007년 4월말 현재 청주에는 783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있으며 이중 중국이 456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91명, 일본 54명, 필리핀 36명 순이다.

2006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은 ▲ 교육 및 문화적응사업(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등 운영) ▲ 상담 및 쉼터지원 ▲한국어교사양성 및 다문화강사교육 ▲ 자조집단사업 ▲ 자녀보호사업 등 다양하다.

특히 흥미를 끈 사업은 자조집단 사업인데 센터는 7개국 결혼이민자 공동체 모임을 결성, 지원하고 있다. 동일한 출신국가로 구성된 공동체모임 구성원들은 대체로 한 달에 한번 씩 모임을 갖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곤 한다. 센터 직원들이 모임이 결혼이민자들의 고충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말한다. 가령, 이 같은 모임을 통하여 누가 어떤 문제로 요즘 고민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센터 입장에서선 상담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센터는 모임요청이 들어오면 모임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회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모임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사업으로는 2006년 10월 개소한 온누리아동센터가 있는데 주로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자녀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 속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 더불어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이주여성인권상담소도 개소되어 이주여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인권유린이나 침해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령, 가정폭력이나 남편과의 언어소통이 잘 안 되어 생기는 여러 갈등이나 오해,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에 대한 상담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설립된 사회교육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역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교육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자립을 위하여 설립됐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다문화강사교육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시내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면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번갈아가면서 출신국가의 전통문화나 역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를 같이 배워본다든가 외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보는 경우도 있다.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교육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다문화강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 삶결두레아사달

충북 보은에 위치한 이 단체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비롯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보은군 내에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상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2007년 현재 보은군 내 총 4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베트남 출신이 99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78명, 필리핀 50명, 중국조선족 47명 순이다.

2006년부터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어교실은 30~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어 실시되고 있다. 농촌지역이다보니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한국어강사가 결혼이민자들을 집까지 태워

다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바쁜 농사철의 경우는 이주여성들이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참여교육은 이주여성들이 직접 군내 초등학교를 방문, 모국을 소개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초등학생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은군 근처 전통유적지를 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 및 답사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 운영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 펄벅인터네셔널 한국지부

펠벅재단 한국지부는 소설 ‘대지’의 작가 펄벅(Pearl S. Buck)여사가 한국의 혼혈아동을 돕기 위해 1967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혼혈아동복지기관으로, 설립 초부터 미국군인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계 혼혈아동(Amerasian)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아시안계 혼혈아동(Kosian)과 새터민 아동 등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Health Care) - 여름수련회 기간 중 참여아동 및 가족 전원의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외 6곳의 병원이 연계되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 이용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다.
- E(Education) -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왕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 중, 고생 등 학년에 따라, 그리고 가정형편에 따라 정확한 사정 후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다.

- 교육 장학금 지원
 - 특별교육비 지원
 - 원어민연계 영어학습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아동 한국어 교육
 - 학습자원봉사 지원
- L(livelihood) :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극빈가정에 생계비 지원 및 부모대상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건전한 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근 학원과 연계하여 적성별 직업훈련 실시(2차례 실시를 했었음-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네일아트 제빵, 학원비 지정하면, 학원비 지원했음)하고, 또한 직업훈련 시에는 별도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 P(Psycho-social Protect) : 다문화가정 아동으로서 느끼게 되는 자기정체성 혼동 및 저소득층 가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지지, 양육방법 소개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 여름캠프
 - 크리스마스 파티
 - 부모교육
 - 농촌체험 학습
 - 상담(개별/집단, 전화/방문)서비스
 - 어린이날 행사
 - 각종 문화체험
 - Fatherland Tour
 - 생일케이크 배달

사회에서 소외되고 소위 ‘왕따’ 를 당하는 혼혈아동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수시 상담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수시 상담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급과 상담제공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생업에 모두

중사하고 있어 정보에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도 탈락한 경우, 다른 대안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학원에 다녀야 하는지, 학원비 등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학원 교육으로는 부족한 학업을 자원봉사도우미를 활용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일반아동들과 교사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천시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인권이동교실을 개설하여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일일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다문화가정 인권이동교실’은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게 된 배경인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소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가진 언어적, 문화적 강점에 대한 강조, 다문화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함께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례와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님을 일일강사로 활용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 참가자들이 수도권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매번 이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화서비스의 업무가 과중하여, 가정통신문과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으로 효율적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은 1993년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다양한 교육활동

을 통하여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도우며, 노동조합건설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타종교를 존중하는 정신 아래, 복지활동과 각종행사를 통하여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국내외 연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상담활동 : 노동문제(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기타)상담, 집단상담, 심리 및 성, 의료, 출입국, 국제결혼, 난민문제, 상담을 제공한다.
- 교육활동 : 한글, 컴퓨터교실운영, 노동법, 현안 관련한 이주노동자와 지도자교육, 자원봉사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운영(Wehome)
- 의료 활동 : 의료공제회운영,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모임지원활동 : 네팔남성과 한국여성이 결혼하여 만들어진 가족들의 모임인 네코모임과 각종 나라별 공동체를 지원한다.
- 국내단체 및 국제연대 : 이주여성인권연대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지부와 연대 및 일본 가나가와 시티유니온, 도쿄커뮤니티유니온, 오사카 인권위원회 독일Agigra, UNFER와 연대하여 활동한다.
- 안양지역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 사례집 발간 및 조사 작업

6) 코시안의 집(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모임은 1996년 4월에 우리 사회의 소외 속에서 서로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에서 시작된 이후 2000년 9월에 이르러 코시안의 집이라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코시안의 집은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코시안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에 코시안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한 코시안의 집의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시안의 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코시안의 집(영유아 보육)을 운영 : 맞벌이를 하는 코시안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하여 종일반이 운영된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이들을 위하여 실비만을 받고 있다. 현재 6세미만의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 코시안 스쿨 운영 : 코시안 다문화 가족의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한국어를 비롯한 학습지도와 특별활동(피아노, 미술치료, 재즈댄스, 미디어 교육, 아동캠프, 문화체험 등)이 다양하게 제공한다.
- 코시안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코시안 다문화가정을 매주 방문하여 양육지원, 의료지원, 가족상담 등 코시안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코시안 다문화가족관련 상담 : 코시안 다문화 가족이 갖는 법률적인 상담, 부부상담, 아동상담, 의료상담 등 건강한 코시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상담을 제공한다.
- 공동체 모임과 행사 : 코시안 다문화 가족모임, 부모 교육, 가족캠프, 명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코시안 다문화 가족 간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결속력 등을 강화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권리 확대를 위한행사를 개최한다.

3. 학교지원

1) ㄱ 중학교

이 중학교에는 몽골 출신 학생 9명이 재학 중이다. 학교장 방침이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작년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이들을 지

원하고 있다. 이 예산 운용은 방과 후 활동과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다. 몽골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외모가 한국 사람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몽골아이들이 일반 한국학생들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다보니 한국아이를 괴롭히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힘이 센 한 학생이 한국학생의 돈을 뺏고 때려 아이들이 무서워하기도 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왜 이런 아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 주어야 하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학생은 교사들에게 많이 혼난 뒤로 올해 들어서면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몽골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생활기록부상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학교생활을 한다. 따라서 담임선생님 외에 일반 다른 선생님들은 몽골출신 학생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학교에 잘 나오고 있는데 간혹 한두 명이 장기간 결석하는 경우가 있다. 한 학생의 경우 몽골에 잠시 들어갔다가 한국비자를 발급받아 나오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바람에 학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만들어 당국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학년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몽골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없고 교육청 계획에 따라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 프로그램을 짰다. 우선, 기초학습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문화관련 행사가 있으면 안내를 하거나 캠프 참가 시 무료지원을 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어, 영어, 독서지도 등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과 탁구와 컴퓨터 교육 등 특기활동, 그밖에 박물관이나 고궁견학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 작년에는 수학, 영어, 독서 교육을 위하여 그룹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결과 댄스와 힙합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외부 강사를 섭외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자체나 선교단체에서 지원을 받기도 해

이중 삼중으로 여러 혜택을 받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 방학 때는 고향가고 이런저런 행사에 불려 다니다 보니 시간이 잘 안 맞아 교사가 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 사실 몽골 학생들은 학습기초와 관련 선생님이 이것저것 시키고 하니 귀찮아한다. 가능하면 교과학습에서 탈피 박물관견학이나 민속촌 방문 등 문화체험활동으로 집중 하려고 했으나 기초학습강화에 대한 지시가 있어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초기에는 교사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20여개의 프로그램을 공지를 해서 지원자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려 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우선 학년부 선생님들을 찾아가 개별적으로 설득해 협조 요청을 하였다.

- 학생들의 우리말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2000년대 초에 한국에 온 학생들이 많아 한국 온 지가 오래 되어서인지 우리말을 잘 하는 편이다.

- 학업수준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은 하위권이다. 글쓰기는 되지만 이해력이 부족하다. 어떤 아이는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다. 학업능력은 많이 떨어진다.

- 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담실에서 집단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담임선생님이 주로 한다.

- 부모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몽골자녀들의 부모들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거나 지하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모들과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담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 외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십시오.

소규모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지내기에 좋아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걱정이다. 중학교 졸업장은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고교진학이 곤란하다. 교육청에 문의를 해 봤지만 아직 확실한 대답을 못 얻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지금처럼 기초학습의 강화보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프로그램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특히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들이 너무 많아 중복지원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교단체에서도 출입국관리나 한글교육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학교 몽골학생들처럼 혜택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2) L 중학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중학교에는 모두 1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이다. 다음은 생활지도부 문00 선생님과 인터뷰 내용이다.

- 학교 내에 다문화가정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 학생들의 부모님 국적

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14명입니다. 전학과 전출로 한두 명씩은 유동이 있습니다. 14명 중에 5명은 부모님이 몽골인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입니다. 이 중 반 정도는 부모님이 몽골에 계시고 학생만 한국에서 거주하며, 나머지 반 정도는 한 가정 부모, 이혼가정 등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 1명, 부모님이 우즈베키스탄인인 경우가 1명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부모님이 한국인인데 미국 등에서 살다가 귀국한 자녀들입니다.

- 언제부터 학생들이 입학했습니까?

반 정도는 중학교 입학 동시에 입학했고, 나머지 반은 2학년 때 전학 혹은 편입을 했습니다.

-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정규수업시간에 귀국자반 특별수업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정규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에 특별수업을 실시합니다. 국어(한국어)는 일주일에 4시간 씩, 수학과 사회는 일주일에 2시간 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시간에는 학생들이 주로 모르는 단어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체험학습을 하는데 여행, 연극, 영화관 관람, 고궁 방문 등을 중간고사 이후나 기말고사 이후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방과 후에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합니다. 특기적성교육에는 사물놀이반과 한국어기초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어기초반이 한 학기에 30시간을 할당하여 운영했으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2007년 2학기에는 60시간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언제부터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추정하기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990년도 후반부터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귀국자 학급이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이 지정했기도 했고, 지리적으로도 교통이 편리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몽골 이주민들이 많고 귀국자학급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 학교에는 없고 교육청에서 주관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담임선생님이 전적으로 맡으시나요?

그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주로 담임선생님께서 맡으십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나 학교에 관련된 용어를 모르는 경우 등 기타지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별도로 주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자녀의 프로그램을 맡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학생들의 수준격차가 너무 커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인의 자녀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해독을 너무 어려워하며 제가 몽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지도가 어렵습니다. 한국어 실력이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는 반면, 한국어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지도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가 없다는 것도 또한 어려운 점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선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 하는지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 향후 어떤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다문화학급에 중학생에 맞는 자료개발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서 체험학습 시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부터 실행하는 것 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지도를 맡게 되셨나요?

국어, 사회, 수학 선생님께서 순번으로 1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며 학교에 신청을 합니다.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지도를 맡을 수 있습니다. 순번으로 하지만 자율적으로 맡고 있고, 저 또한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방과 후 활동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배정할 때, 획일적으로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귀국자 학생, 이주노동자 학생, 국제결혼가정 학생 등으로 나눠

서 학교에 배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업에서 수준을 맞추기가 용이하며, 전문성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3) 다 중학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중학교에는 2007년 8월 현재 모두 5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중 3명은 주한몽골대사관 직원 자녀들인데 2명은 2006년에 한국에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툰 편이었다¹⁵⁾. 하지만 나머지 1명의 몽골출신 학생은 처음에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었으나 매사에 적극적이고 부모도 뒷바라지를 잘 해주어 지금은 우리말을 잘 하는 편이다. 몽골출신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혼혈학생들인데 1명은 이란출신의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1명은 미군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음은 이 학교 미술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다문화가정 학생 5명과 일반학생 5명 등 모두 10명을 데리고 한국문화체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교육청에서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한국문화체험을 제안하였다. 청소년문화학교의 협조를 얻어 고궁 등을 방문하였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2006년 1학기 때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한글이 서툰 몽골출신 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대학생들은 1:1로 한글을 가르쳤다.

15) 선생님은 이 중 한 학생이 쓴 글을 보여줬는데 예상대로 맞춤법이 틀리고 우리말 표현이 미숙하였다.

- 한국문화체험을 제안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정아이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고 미술을 담당하고 있어 전통적인 그림에 관심이 많다. 민화박물관에서 강사를 섭외해 학생들에게 민화 그리는 것을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한국문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 일반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재로서는 없다.

- 아이들의 학업수준은 어떻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리말이 아직 서툴다 보니 성적은 낮다.

- 향후 다문화가정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아들로 소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반아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한다. 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들의 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아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요원들이 각 학교에 배치되어 1:1로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표 IV-3> ㄷ 중학교 - 한국문화체험 일정

동아리 명	회 수	일 시	장 소	비 고
문화 탐방	1회차	7월 23일(월) 09:30-12:30	경복궁	필기도구·카메라
	2회차	7월 27일(금) 09:30-12:30	종묘	필기도구·카메라
	3회차	8월 1일(수) 09:30-12:30	창경궁	필기도구·카메라
	4회차	8월 3일(금) 09:30-12:30	민화박물관	필기도구·카메라
	5회차	8월 7일(화) 09:30-12:30	창덕궁	필기도구·카메라
	6회차	8월 9일(목) 09:30-12:30	서울역사박물관	필기도구·카메라
민화 그려 보기	1회차	7월 23일(월) 13:30-16:30	보성여자중학교	까치호랑이 그리기
	2회차	7월 27일(금) 13:30-16:30	보성여자중학교	닭 그리기(벽사도)
	3회차	8월 1일(수) 13:30-16:30	보성여자중학교	화조도 그리기
	4회차	8월 2일(목) 13:30-16:30	보성여자중학교	문자도 그리기
	5회차	8월 7일(화) 13:30-16:30	보성여자중학교	책가도 그리기
	6회차	8월 9일(목) 13:30-16:30	보성여자중학교	어해도 그리기

4) 대안학교 oo

oo는 코시안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초등대안학교로 2006년 9월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문을 열었다. 교육이념은 첫째, 인간·사회·자연을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

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종적, 민족적 편견과 차별에서 해방되어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셋째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신과 사회와 역사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2007년 6월 25일 현재 모두 2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표 V-4 참조). 이 중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14명인데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 7명, 중국(조선족) 4명, 네팔 2명, 베트남 1명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학생들의 경우 러시아 여성과 재혼한 한국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5명이고 한 명은 부모 다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1명은 러시아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네팔에서 온 아이 2명은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한 네팔출신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트남 학생의 경우는 아버지가 라이파이한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다.

<표 IV-4> 대안학교 00 현황

학년	교사	학생
1, 2학년	지도교사 1명	7명
3학년	지도교사 1명	7명
4학년	지도교사 1명	3명
5학년	지도교사 1명	8명
계	4명	25명

* 이 외에 한국 온지가 얼마 안 되어 특별학급에 편성되어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 2명의 학생(러시아출신)이 더 있음.

학교 건물 2층에는 교무실과 교실, 강당이 위치해 있다. 교실은 학년별로 야호반(1,2학년), 황소반(3학년), 오리반(4학년), 코알라반(5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설학원처럼 한 반에 10여명 남짓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강당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뛰어놀 수 있는 자그마

한 공간이다.

3층에는 전산실, 주방, 도서관, 음악실이 위치해 있다. 얼마 전 KT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놨지만 컴퓨터 강사를 아직 구하지 못하여 컴퓨터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방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매일 먹는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곳이다. 이 학교 택견 선생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점심식사에 필요한 식재료는 기업체 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에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동화책과 그림책이 진열되어 있다. 피아노는 모두 5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 피아노 교육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학교 수업은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단지 저소득층 자녀가 많기 때문에 택견이나 연극 등, 방과 후 프로그램이 오후에 주로 진행된다. 따라서 수업은 오후 4시 30분에 끝난다. 눈에 띄는 것은 영어 외에 중국어 수업이 별도로 진행되는데 이는 다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7년 2학기 때는 러시아어 수업이 실시될 계획이다. 수업이 끝나면 이 학교 교장선생님과 이사가 각각 두 대의 승합차에 학생들을 태운 뒤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 아침에 학생들을 태워 학교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이들이 맡고 있다.

교사는 1,2학년 통합과정 담임 1명, 3학년 담임 1명, 4학년 담임 1명, 5학년 담임 1명 등 총 4명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이기 때문에 6학년은 받지 않았다. 현재 학교인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사 외에도 1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어강의와 예체능, 독서 등을 지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학원 강사들이다.

5) ㄹ 초등학교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체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 ㄹ 초등학교에서는 12명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운영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특별학급 교실 환경구축(국제이해 교육전시실 설치)하며 특별학급 협력지원 체제 구축(특별학급 운영위원회 구성, 협력학급 운영,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연수, 일본의 국제화학급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교실 운영(교내 동아리 체험교실, 교외 현장 체험교실 운영),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국의 예절, 놀이, 음식, 명절 익히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구촌 도움방’ 개설 및 운영, 어린이 예술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으로, 문화언어적응 교육과정 운영, ‘신나는 학교 행사’ 프로그램 운영, 버디 프로그램 운영, 국제이해교육(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수업;CCAP운영¹⁶⁾, 다문화존중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일반학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함으로써 특별학급에 특별교사를 배치하고, 특별학급에서의 문화언어적응, 생활적응, 교과적응 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계 지도하기 위하여 일반학급 중 협력학급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협력학급의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협력학급은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학생이 학급당 2명 이내씩 지정되도록 하였으며 단, 학년에 1명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나)협력학급은 지도 교사의 외국어 구사 능력, 교과 지도 능력, 교사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협력학급 지정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다)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학생의 협력학급 내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문화언어적응 교육과정, 생활적응 교육과정, 교과적응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라)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환급 시 특별학급의 환경과 상이함에서 오는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16) 문화교실수업(CCAP):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실수업(CCAP :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또 기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한국 학생들도 지구촌 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의 중요성과 타문화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일반학급의 어린이들과 노작 중심의 언어표현 능력 확장과 유대감 형성에 비중을 두고 운영하였다.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 실시한 교사연수는 1학년 하교지도 중 학부모(불법체류자 검거)로 인한 대처방안 토의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불법체류자) 신변보호에 대한 연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생활지도 방향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학부모 대상 연수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 설치 배경과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함께 생활 할 한국 어린이들의 가정교육과 예절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담당 교사는 일본의 오쿠보초등학교(시립) 일본어 국제화학급의 교류를 통해서 교육의 기본방침과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일 양국의 교육환경이나 학급운영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사가 동의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의 아동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기 쉽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활동 속에서 경험을 재조직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였다.

특히 특별학급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국제결혼가정과는 또 다르게 부모들이 모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부모들의 교육에의 참여가 거의 없거나 소극적이고, 학교교육이 가정에서 지속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급운영비의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2000만원이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원적을 특별학급에 두고, 담임제로 운영하였다. 보통 특별학급에서 하루 2-3시간의 수업을 받으며, 정규수업은 특별학급 교사와 일반학급 교사가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기타 활동 등을 지원하였다.

특별학급을 운영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점은 첫째, 학교교육이 가정으로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점이다. 부모님이 외국인근로자인 관계로 가정에서 모국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국어 유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학교

에서 배운 한국문화를 경험하거나 한국어를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둘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방과 후나 주말에 있는 경우 아동의 부모가 불법체류신분인 경우 동반인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방과 후 학생지도에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학력 및 자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의 프로그램 실시경험을 기초로 2007년도에는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통역자를 활용하여 학부모 상담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한국학생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지구촌 가족 활동' 17)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일 국적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멘토를 지정하여, 이들이 본국어를 잊지 않고, 읽기와 쓰기, 말하기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문화의 차이로 빚어지는 오해나 이해부족에 대해서 교사에게 설명해주는 역할도 수행해 주었다. 2006년도에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CAP교육이 가장 호응이 좋았으며, 2007년도에는 지구촌 가족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매결연 학생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활동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학급에서 다른 또래들과 어려움에 처할 때 중재역할을 해주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 시간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또래들로 변화되었다.

담당교사는 본 프로그램을 2년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담임교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가정과 연계지도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생활적응과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시

17)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지구촌가족(학급에서의 자매결연)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한국학생들과 일대일결연을 맺어 야외수련활동, 문화캠프, 도자기박물관 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긍정적인 접촉과 관계형성을 원조한다.

기에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교육과 지역사회 내에서 순회 상담교사와 같이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자원이 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며, 자원 인력 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복지 및 적응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민간주도의 전시적 행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 인성형성이나 습관 정착을 위한 지도가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바른 습관 정착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이외에도 가정과 방과 후 및 주말에 실시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6) □ 초등학교

경기도 교육청의 연구학교 2곳 중 하나인 □ 초등학교는 언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언어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ㄹ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학생의 입학과 환급을 관리하며, 학생들의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학년 학급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진단하여 개별학습 프로그램과 수준별 국어 학습지를 개발하여 활용하며, 수학도 마찬가지로 눈높이 수학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국어 및 교과목의 학습내용은 경기교육청 내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 있는 원일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방법, 교육교재 개발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외국어 능력의 유지 및 신장을 위해서 외국어 말하기 및 일기 쓰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국제이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체능 교과와 재량 활동의 경우 협력학급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계발 활동, 학년전체활동(현장체험학습) 등은 협력 학급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소결

앞서 살핀 대로, 소수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 할 것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인력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소수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의 일개부처나 민간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관계 부처와 지역의 민간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건강, 교육, 취업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과 연령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수집단 청소년 중에서도 교육과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 청소년들을 위한 실태 및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따돌림, 중도탈락 등의 문제와 위험성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제시된 것이 없으며, 소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욕구 등이 파악된 것이 없어 외국의 선행연구와 프로그램에 기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소수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서는 소수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부처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의 청사진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의 5개 부처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오던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과 더불어 2007년도에

는 농림부에서 추가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농업인 육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원이 가족과 부부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대상자들도 학령 전 아동들에 대한 보육지원과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은 교재와 교육내용의 다문화의 가치와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사들의 문화적 역량 증진, 일반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로 인한 사회문제는 비단 다문화 청소년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나 점점 고학력으로 진입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적응의 문제로 인한 중도탈락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몇몇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학교에서의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 내에서 학업지원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들의 장기적인 사회참여와 적응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수 청소년들의 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들이 경험하는 문화갈등, 의사소통의 문제, 폭력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가족들은 개방적이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노력하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여성들의 고충과 어려움은 자녀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3개월간 하

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좀 더 강제적인 적응교육과 지원이 소수집단 다문화가정과 그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하여 발간한 보건복지부의 생활정보책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하여서 한국에서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에 대한 이해과정을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역량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남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으로 문화적 갈등과 이해부족으로 오는 문제들에 대한 즉시적인 해결을 원조하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언어교육 혹은 사회복지 준전문가로 양성하고, 활용하여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과 그들의 자녀의 이중 언어의 강점을 살리고, 이중문화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난민들을 위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위기 상담(culturally appropriate crisis counselling)을 위한 IMHP(Indochinese Mental Health Project)을 실시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위기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전문상담자들을 양성하였다. 초기에는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인도차이나 사람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통역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체계는 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하여 IMHP가 실행되었다. IMHP는 거의 750명의 인도차이나와 미국의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문화적으로 적절한 위기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훈련시켰다. 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에 맞게 수정된 위기 면접방법의 활용과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 지역의 정신보건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의뢰하기, 중개자, 옹호자 서비스 제공, 인도차이나 난민들을 클라이언트로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공기관을 지원하기 등이다. 결국 IMHP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위기 상담으로서 매우 유용하였다(Weiss, B. S. & Parish, B., 1989). 이와 같이 가장 큰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심층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전문가로 양성하여 개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방과 후 언어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같은 모국어를 활용하는 가정과 아동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담 및 복지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투입하는 계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국제결혼가정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담당 공무원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문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몽골 청소년과 베트남 출신의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족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문화이해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이 가지는 문화적 강점을 수용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일곱째, 소수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보다,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자녀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모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등

에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방과 후 교실,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연구학교 사업을 통하여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집중으로 지원됨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수용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개별 상담 및 학교인식개선 등에 대한 지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 외국의 소수집단 지원정책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호주
5. 싱가포르
6. 소결

V. 외국의 소수집단 지원정책

1. 미국

1) 다문화교육 역사

미국은 국가의 성립시기부터 인종이 다양한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사회는 상당 기간 동안 공교육체제를 통하여 이들을 ‘미국인’으로 개조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 공교육체제는 다양한 이민자 집단을 교육시키면서 미국의 정체성 발달에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이른바 ‘동화(同和)’에 대한 강요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판받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제가 주요 교육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대체적으로 학교가 학생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의 주류 문화와 구분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미국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다문화 교육이 전개되고 있다(Ornstein and Levine, 2006:373).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전문가들은 주로 소수 민족을 배려한 교육기회 배분 방안과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상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 방식의 특성, 방언(흑인 영어)의 교육적 의의,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의 시행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민족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족적 배경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적합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수 민족의 경우

일대일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적합한 학습 방식을 선택하여 상호작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남서부의 원주민이나 멕시코계 학생들에게는 경쟁적 상황을 배제한 협동학습이 효과적이며, 하와이 원주민 출신 학생들에게는 비형식적 상호작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시아계의 경우 수업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는 학력신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John-Steiner and Smith, 1978; Losey, 1995; Tharpt et al., 2000; Klug and Whitfield, 2002; Wolf and Rickard, 2003; Kathryn and Kawakami, 1985; Yao, 1987).

그러나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과 상관없이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표준어의 강요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공교육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방언(흑인 영어)이 성취가 낮은 저소득층 흑인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읽는 법을 배우는 단계까지는 흑인 영어를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표준어를 가르치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Harber and Bryan, 1976; Torrey, 1983; Fillmore, 1997; Gupta, 1999; Stein, 2002; O'Neill, 1997).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은 영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확대 시행되었다. 1968년에 의회는 이중 언어교육 법령을 통과시켰고, 1974년 대법원은 Lau v. Nichols 판례에서 만장일치로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실 경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재정은 1969년 7천 5백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정책입안자들은 이중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 (1)학생들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하며, (2)교육이 일정기간 이상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3)학생들의 발전 과정을 자주 확인하고, (4)임의

대로 프로그램을 종결하지 말고 항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1)적극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2)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교육하며, (3)다른 과목과 영어 과목을 적절히 조화하며, (4)교육과정을 학생들의 가정과 지역사회 경험에 연결시킬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Tikinoff, 1985; Carter and Chatfield, 1986; Montecel and Cortez, 2002).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학생들을 초기에 영어 환경에서 학습하게 해야 영어를 숙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영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모국어를 통한 초기의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Epstein, 1977;Porter, 1990;Chavez, 1991;Rossell, 2000;Ovando, 2001;Mora, 2003).

다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은 196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 집단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기 위하여 교과서와 참고 자료들은 개정되었다. 교원연수에서는 교사들이 다문화 학습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과 인종 집단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수업 방법을 공유하였다. 다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른 인종, 민족 집단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타민족 타인종과의 원활한 대인관계의 형성, 문화적 자아정체성 형성, 타 문화와 인종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 등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Wolpert, 1995; Almeida, 1996; Romo, 2000; Gay, 2003; Barton, 2004).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사회 형성은 국가의 성립과 때를 같이 하지만,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인종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에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오랜 기간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은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도 없지 않지만, 주로 이주민들을

미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어교육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정책들은 동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공존’ (Quilt)을 통한 단계적 동화와 ‘흡수’ (Americanization)를 통한 전면적 동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이주민들의 이주 전 문화를 인정하고 일정 정도의 적응기를 거치면서 사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이주민들의 적응과 사회 유지 과정에 마찰을 적게 한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집단을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 빠른 적응과 사회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문화 교육의 연구 초기에는 ‘흡수’를 통한 전면적 동화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공존’을 통한 단계적 동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의 변화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 정책의 지향점도 ‘흡수’와 ‘공존’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교연계 통합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조정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환경인 교육환경에서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제별로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학생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으며, 부모의 반대나 무관심 등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힘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학교라는 체계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심리사 등이 배치되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문제들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적응과 성장을 위하여서 가장 유용한 실천 틀

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의 강점을 살리는 것과 보호요인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적응성(resilience)을 높이는 것이다. 적응유연성, 혹은 탄력성의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적요인, 가족적요인, 외부 환경적 지원 등을 들고 있다(Hopps, Tourse & Christian, 2002¹⁸⁾).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상과 민족적 정체감을 통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것 등이 포함되고, 가족적 요인에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가족의 문화적 강점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 환경적 지원에는 교육체계 내의 교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차별과 소외,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라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이러한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적응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입을 활용하고 있다.

(1) P.R.I.D.E(Promoting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학생들이 문화적 공통점과 상이함을 수용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P.R.I.D.E(Promoting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프로젝트는 10회기, 방과 후 일주일에 2번 실시하였다.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5-7명의 학생들이 학습과 상호작용 활동을 통하여 집단 내의 개별화와 다양성에 대하여서 토론을 하며,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가족의 독특한 배경에 대하여서 탐색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참여한 학생들은 자

18) 집단 개입을 위한 적응유연성 실천 준거 틀(resilience framework for group intervention)의 4가지 요소로서 1) 사회 환경에의 적응성 2)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에서의 생존 3) 생존을 지지하는 가치와 윤리 4) 긍정적인 적응과 변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신, 또래관계에서의 자신, 사회 속에서의 자신을 찾는 노력을 통하여 자아 개념, 역할 정체성 등을 발견하게 도와준다. 또한 자신의 배경이 되는 인종, 민족, 문화적 유산과 전통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원조한다. 또한 문화가 가지는 가치(가족을 존중, 노인을 공경, 높은 학업지향성,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를 인식하고, 강화한다.

신의 자아의 문화적 인식을 통하여 건강한 자존감을 발달시킨다(Cancilla, 2002).

(2) 협력학습을 통한 자존감향상 및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인종적·민족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교육학 분야에서도 주된 관심분야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이 주류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협력학습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A.E.S.O.P.(Afrocentric Enhancement and Self-Esteem Opportunity Program), E.S.P.A.N.O.L.(Ethnic Studies Promote Achievement and Nurture Opportunities to Learn and HAITI)를 들 수 있다(Vison 2002). AESOP는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문화적 인식과 자부심을 배우고,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을 통하여 임파워먼트 되기를 원하는 흑인 남학생들과 그 밖의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흑인 남학생들의 학업성취 뿐 아니라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SPANOL은 히스패닉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자부심, 자기 확신, 존중, 학업성취 등을 목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문화적 교육프로그램은 특정인종과 문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공통점은 문화적 자부심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Passport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에 대한 자료는 학교도서관, 백과사전 등을 활용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문화권 부모들의 경험과 정보 등을 활용한다. 부모들은 학급에 초청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적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각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 역사, 음악, 국기, 화폐, 언어, 유명한 음식 등을 탐구하고, 음식과 음악, 춤 등을 즐기는 문화축제도 함께 연다. 또한 그들이 배운 정보와 그 정보들이 각국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하며, 교과서적인 정보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국가인식을 하도록 원조하고, 차별에 대한 대처 전략 등도 가르친다.

2. 영국

영국도 오랜 기간 동안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형성해 오고 있다.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념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자유주의적인 입장은 모든 집단과 시민들에게 단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고, 그들에 대한 기회의 배분도 균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입장이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이다(Olssen, 2004).

영국정부는 이 가운데 후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소수민족을 위한 교육기회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체제에서도 소수 인종에 속하거나 소수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교육기회와 관련된 연구들도 공교육을 통하여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초·중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차이와 학업 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여 쟁점화 하기도 한다(McEachron & Bhatti, 2005).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기회의 배분 방안과 더불어 다인종 다문화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수민족의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이나 선입관 또는 인종적 편견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Stephen Lawrence Inquiry’ 보고서(Macpherson, 1999)의

제언을 토대로 2000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모두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형성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와 서로간의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 공동체 시민의식의 결집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시도된 것이다(McGhee, 2003). 이 교육과정에는 인종 차별이나 따돌림과 같은 반사회적, 공격적 행동들을 하는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http://www.teachernet.gov.uk>).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공동체, 예를 들면 백인들과 무슬림, 동양계 등의 집단이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해하거나, 서로를 적대시 하는 문제 때문에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약화시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인종 다문화 공존의 사회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시행하기도 한다. Bradford 지역의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과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Bradford에서는 특히 사회에서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2) ‘Centre for Diversity, Learning and Living’ 설립 : 이곳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인종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 차별을 막기 위한 활동 등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다. (3) 직장에서의 다문화 규범 제정 : 이것은 모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다인종 다문화를 이해하고 행동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준적인 행동 지침을 구성하고,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 고용된 노동자들의 다양한 문화가 이해되고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4) 평등과 다양성의 조화 추구 : 모든 지

역 주민들은 평등과 다양성의 조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연계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얻게 된다.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계되어 차별의 해소는 물론, 다문화의 조화로운 상생과 발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McGhee, 2003).

Bradford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에만 차별의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도 이러한 기구가 존재한다. 영국 정부는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종 간 격차와 갈등에 관련된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 기구로 특별위원회인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 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소수 인종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문화의 이해와 공존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Parekh, 2000).

영국사회의 다문화 교육은 이념적 논의를 통하여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 기회의 보상적 배분을 근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의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전개과정에 국가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연구와 지원은 물론,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일본은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북해도의 아이누족과 오키나와의 유구인처럼 일본에 편입된 소수민족 집단과 과거 식민지배 시기에 유입된 재일한인 등 전통적 이주민이 존재하고 있다(김이선, 2007).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지배적 이념은 일본이 인종적,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라는 것이었다(권숙인, 2005 참조). 이러한 이념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사회를 지배했던 니혼진론(日本人論)¹⁹⁾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권숙인

(2005)은 동질성에 기초한 이러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통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1)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사회에는 다문화주의, 다문화공생, 이문화이해, 내부의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개념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인도차이나반도출신의 난민수용²⁰⁾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일본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신부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본계 브라질인 등 과거 남미로 이주해 갔던 일본계 후손들이 대거 입국한 결과, 1992년 외국인 등록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을 만큼 사회적으로 가시적인 집단이 되었다(김이선, 2007). 2003년 말 외국인등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6개국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이 1,915,000 여명에 달하였다. 2005년도 연말 기준으로 일본에 등록된 외국인등록자 수는 2,011,555명이며 등록되지 않은 외국국적의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약 600만 명, 180여 개국 국적의 구성원들이 한울타리 안에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日本法務省入国管理局, 2006).

체류자는 주로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유학생 등이며 단기체류에서 장기체류로, 장기체류에서 정주(定住)로 이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출신은 중국, 브라질, 필리핀, 한국 순으로 나타나 브라질 노동자의 증가²¹⁾가 눈에 띈다.

19) 니혼진론은 일본인/일본문화/일본사회의 특징과 특수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글쓰기/글 읽기 장르이다.

20) 일본정부는 1978년 난민의 '정주 허가' 방침을 정하고 이듬해 인 1979년 최초로 인도차이나반도의 난민 500명을 수용하였다. 그 뒤로 일본 내 난민 수는 꾸준히 증가해 1994년까지 약 1만 명의 난민이 정주자격으로 일본에 들어왔다(권숙인, 2005 참조).

21) 남미에 거주하는 브라질과 페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부터다(권숙인, 2005 참조). 이 개정에 따라 남미 거주 외국인들에게 취업에 관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주자격(3년까지, 갱신가능)이 제공되어 이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총 결혼 건수의 5.5%(2004년도 기준)를 넘는 숫자가 국제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²²⁾의 형태도 1960년대에는 일본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이 대부분(1965년도 기준 74.3%)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2004년도 기준 78.2%)이 대부분이다(日本厚生省人口動態統計年報, 2006). 이에 따른 결과로 혼혈인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사회 내부에서 민족차별을 철폐하고 다문화적 가치와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의 국제화가 1990년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다. 이 말은 1985년 하쓰세 류헤이가 처음 사용한 말로 “일본인의 마음과 일본사회를 외부사회에 연다”는 의미에서 제기된 개념이다(권숙인, 2005서 재인용). 그는 이 개념을 ▲사실상 일상생활의 국제화 ▲이에 상응하는 마음의 국제화 ▲상황을 타개해가는 시민활동의 국제화 등 세 측면을 포함해서 사용하였다.

일본계 남미인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의 증가 추세 속에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일본정부는 2005년도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과제로 설정하면서 정책의 일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김이선, 2007; 유진아·이재호, 2007 참조). 2005년 6월 일본 총무성은 ‘다문화공생사회를 목표로 한 사업’을 중점 시책으로 내세우고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6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의 지원 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다문화공생추진플랜(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을 넘어서 공생관계로 바라보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異)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22) 1965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일본인 남성은 1,067명이었으나 1984년에는 20년 사이 6,828명으로 7배가량 증가하였다(황달기, 1993).

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공생 시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김이선, 2007).

-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주민의 수용
- ▶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장
-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지역사회의 개방 및 활성화
- ▶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문화 이해력 고취
- ▶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

이를 위하여 다문화공생 시책의 담당자로서 역할이 큰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지원, 생활지원-거주,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방재 정보- 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제교류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의료나 재해 통역 등을 담당한 통역전문가 양성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 다문화 공생을 위하여 담당부서 설치, 시구정촌과 도도부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책이 있기 전에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교류협회, 센터, 재단 등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 힘구상 프로젝트’, 히로시마현의 ‘히로시마 국제시책플랜 2010’, 시즈오카현의 ‘다문화공생의 지역만들기 현민운동’, 미에현의 ‘공생사회추진모델사업’ 등의 사례가 있다(김이선, 2007).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크게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정책과 일본인 주민들의 다문화 이해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문화 공생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 공생 정책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들의 외국인 주민 이해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어 학습센터,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있다. 이 언어교육 프로그램들은 여러 나라의 외국인 각각에게 맞는 것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들이 일본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번역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성인과 아동들을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 및 교재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 내용은 병원 가기, 대중교통이용하기, 통신문 이해하기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외국인 주민들 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언어로 이들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적 다른 지방에 비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가나가와현은 11개국 정도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브라질어, 따갈로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생활정보에 대한 안내책자와 온라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제도, 거주관련제도, 복지제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등 외국인 주민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외국인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의료나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전문 상담·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단체는 통역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역서비스와 어학이나 문화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2)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이(異)문화 이해 교육’ 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들은 주로 다른 국가에서 새롭게 이주한 구성원의 문화를 자국 내에 알리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이다. 외국인에게만 일본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일본인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수 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반차별 주택조례를 제정하거나 보육원에서 외국인 보모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었고 외국인 교사를 학교수업에 참가시켜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권숙인, 2005).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공생 정책과 더불어 일본인 주민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수준의 국제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아동, 청소년, 성인 등에 맞추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들의 교류를 높이기 위하여 축제나 상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령 가와사키시의 경우,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전담 기관을 두고 있고, 다국어에 의한 정보제공, 일반 시민에 대한 다문화 이해 강좌, 민족차별에 관한 공무원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외국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를 위한 기제 마련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은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 행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회의나 모니터 제도 등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 시는 외국인들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공적 영역의 장으로 외국인회의를 1996년 창립했다(한승미, 2003). 1970년대 초반부터 국적차별철폐를 요구해 온 이 지역 사회운동에 공감을 표한 다수의

일본 민간인들과 개혁의지를 가진 지방 관료들의 도움이 컸다. 현 차원에서 가나가와 현 외국인회의가 1998년 설립되었다. 국적에 따른 인구비율을 특별히 고려하여 참여자가 선정됐고 회의의 안건은 특정 민족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주로 외국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문제였다. 외국인 회의는 일종의 협의체로서,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표들이 회의를 통하여 생활의 불편 요소들을 건의하고 이에 대하여 시 당국이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이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한승미(2003)는 외국인회의가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아도 일본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외국인회의 설립을 계기로 예전과 달리 외국인을 미래 일본의 새로운 활력소로 봄으로써 희망에 넘치는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2) 일본의 소수민족 청소년 정책 및 교육 지원²³⁾

(1) ‘니케이진’(日系人) 관련 연구 및 지원 실태

1990년대 이후 다인종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분야의 연구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방향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니케이진’(日系人)을 위한 교육기회 배분에 대한 연구와 그들을 이해하고 평화적 공존의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이(異)문화 이해 교육’ 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니케이진’(日系人)은 넓은 의미에서 일본과 관련된 ‘범(汎)일본인’을 지칭한다. 외국으로 이민 간 일본인의 자녀, 일본계 혼혈인, 이민 후 재입국한 교포 2,3세 출신의 귀국자녀,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을 아우르는 혈통 또는 거주 지역이 일본과 관련되는 모든 구성원을 일컫는다.

23) 이 내용은 공동연구자 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가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고베, 오사카 등의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NGO 단체 등을 방문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특히 일본 내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니케이진’ (日系人)을 위한 교육기회 배분의 연구는 대상별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과거에 남미 등지로 이민을 떠난 일본인들의 2세 또는 3세가 다수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들을 위한 ‘귀국자녀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渋谷真樹, 2001; 東京学芸大学海外子女教育センター, 1993; 南保輔, 2000; 佐藤郡衛, 1995). 뿐만 아니라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세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中島智子 1999; 椿真智子, 1998; 村田翼夫 외, 1994). 그리고 주일미군과 일본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메레이시안’ (Amerasian)의 교육기회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照本祥敬, 2004; 佐藤郡衛, 2001; 野入直美, 1999). 최근에는 동남아와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과 혼혈 자녀에 대한 언어와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재정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혼혈자녀에 대한 어머니 출신국의 문화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森茂岳雄, 2005; 異文化間教育学会, 1994; 古岡俊之, 1996).

‘니케이진’ (日系人)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이 이유는 이들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며, 이들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청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인 부모-주로 어머니-들의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이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를 위한 지원 실태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일본 중앙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정비는 2005년에 시작하여 2006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일찍부터 감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독자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었다.

①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과 한계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체계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중앙정부의 다문화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한 정책에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단지 중앙정부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다문화공생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가와사키시 다문화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내세운 큰 차원의 지침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황에 맞는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뀐다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이나 지침들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다문화공생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본 중앙정부의 다문화공생사회에 대한 자세가 미온적이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일본 내의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 만나 본 다문화정책 관련 공무원, 소수집단 이주노동자를

위하여 일하는 시민단체 등은 일본 중앙정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들의 인권보호나 인간다운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에서 이들의 위치는 양적·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적 차원의 필요에 의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상황은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인권보호의 차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 중앙정부의 다문화공생사회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한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경쟁 입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사람 수만 따지니까 일본 사람이 많이 모인 프로그램인지,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인지 모른 채,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그 가시적인 결과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시민단체 간에,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의미한 경쟁이 생겨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관련의 운영에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한국보다 앞섰으나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앞으로 유심히 살펴볼 만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

일본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한 관심과 지원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가와사키 시는 일찍부터 이들을 위한 여러 지원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

었다. 가와사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가와사키 시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의 언어로 지역 생활정보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고, 전문적인 통역 상담 창구도 개설하고 있다.

특히 가와사키 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자녀 전담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 5명 이상의 외국인 자녀가 있으면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 학교에 5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으면 전담 교사가 따로 배치되는 것은 하지만 이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밀집된 곳에서는 이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교에 한 두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을 경우, 이들은 또 다시 교육에서 소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와사키 시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시민단체 관련자의 말이다. 그러나 일본 전역에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외국인 자녀 전담교사제는 충분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나가와 현은 국제협력재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이주노동자 주민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재단은 1978년에 세워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외국의 자매도시와 교류하는 국제이해교육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으나, 이주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1990년대 이후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일본인 주민들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 재단은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언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11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재단 내에 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외

국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단의 활동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프로그램 정보들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다.

가나가와 현의 국제협력재단은 학교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어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다. 외국인 자녀를 직접 교육하거나, 그 부모들의 언어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이 시와 연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일본어 교재를 수준별·연령별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도 언제든지 필요한 교재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료는 개방되어 있다. 이 재단은 교육과 관련하여 일본어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통신문 번역하기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외국인 부모들의 자녀교육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역사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많았던 가나가와 현은 이 외에도 다른 시·현에게 다문화공생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집단주거도시회의’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제언들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4. 호주

1) 다문화주의 정책의 변천과정

(1) 다문화주의의 정착과정

호주는 1788년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 이곳에 살고 있던 토착 원주민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국외에서 이주해 온 이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200여년의 역사 중에 150년 넘게 앵글로-셀틱계의 단일 문화권을 유지하면서 영국계 문화가 곧 호주 문화였다. 하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급격히 감소된 인구를 늘리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영국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이민자 중에 영국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은 북유럽, 동부유럽, 그리고 남부유럽의 사람들이었다. 1960년대 후반 중동계를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동남아시아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곽기성, 2001). 그 결과 1901년 호주 연방의 성립과 동시에 이민자들을 제한하기 위하여 추진된 백호주의는 점점 약화되다가 1973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백호주의 폐지는 호주가 더 이상 인종을 차별하는 이민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전후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없었던 인구의 저성장 때문에 비롯되었다. 따라서 호주의 다문화주의 도입과정은 현실적 상황 변화에 따른 수동성으로부터 기인한다.

호주가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주브리츠키 교수가 "The Questing Years"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1972년 윌트램(Whitlam) 정부는 전화통역서비스, 이민자 언어교육 및 장려 등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곽기성, 2001). 1977년에는 소수민족평의회(Ethnic Affairs Council)가 발족되어 다문화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이후 다양한 민족과 인종구성에 대한 정부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1978년 다문화주의는 호주의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채택됐다. 그 해 발간된 갈벌리 보고서(Galbally Report)는 프레이저 자유당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보고서이자 다문화정책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정식화한 다문화주의의 네 가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 동등한 기회의 보장과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보장
- ▲ 모든 사람은 편견 없이 자신의 문화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 ▲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입안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기관보다 소수 민족의 커뮤니티 조직이 효과적으로 이민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수민족 스스로의 노력과 문제해결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수민의 정착지원, 영어교육, 번역 서비스, 이민 자원 센터, 커뮤니티 그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존의 소수민족 라디오 방송의 확대, 소수민족 TV방송을 위한 특별팀(Task Force) 설립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 결과 여러 소수민족 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영어를 제 2외국어 수업으로 하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SBS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이 그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방송국은 라디오에서 68 종류, 텔레비전에서 60 종류의 언어로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인구는 약 2,000만 명이고 이 중 43%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적어도 부모 중 1명이 외국출신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200여 개의 소수민족이 1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호주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책을 재구성하여 2003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 다양성으로의 통합』에 잘 나타나 있다. 다문화 정책의 네 가지 기본 원리는 1)시민적 의무, 2)상호존중, 3)상호 공평성, 4)공동 이익추구이다. 이런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전략은 1)조화롭게 살기, 2)더 공평한 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3)생산적 다양성이다. 호주 연방정부기관인 이민, 다문화, 원주민 업무부처(DIMIA: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Aboriginal Affairs)에서 다문화정책을 관장(문경희, 2006)했으나 이 부처는 2006년 7월부터 이민·다문화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어 이민·시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로 개칭됐다.

특히 호주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는데 지역사회의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간의 화합과 통합을 잘 꾸려나가는 도시를 선정해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테면, 2005년 한 해 호주정부는 교육, 종교,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민족 간의 화합을 조성하려는 39개 지역 공동체를 선정하여 190만 호주달러를 지원했고, 다른 문화 간의 분쟁을 선도적으로 잘 해결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언어 및 문화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및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다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및 행정서비스 등도 다국어 온라인 서비스나 책자를 통하여 안내되는데, 특히 사회복지,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호주에는 각종 다문화가족센터가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유진 이· 이재호, 2007). 센터 내에서는 언어교육 뿐 아니라 취업활동, 컴퓨터교육, 이민자적응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다.

조화롭게 살기(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은 다문화 커뮤니티 간의 화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이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매해 3월 21일을 국가적으로 화합하는 날인 조화의 날(Harmony Day)로 지정하고 주로 지역 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하여 다양한 다문화행사를 주관하도록 장려한다. 이 행사는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 공연, 강연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공교육 프로그램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호주의 초, 중, 고등학교는 You+Me=Us(Australia)라는 가치아래 새로운 세대의 호주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종주의 및 적대, 편견을 일소하고 소수문화 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문경희, 2006).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2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주 원동력은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 환경에서 살며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다문화주의를 기성세대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폭넓게 수용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는다.

호주 다문화주의 실현에 방송 미디어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공중파 텔레비전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의 일면을 가장 잘 반영한 방송사로 호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1980년 시드니와 멜버른을 시작으로 방송된 SBS는 현재 60개가 넘는 언어로 텔레비전 및 온라인 방송을 제공하고 6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한다. 이 방송채널은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를 잘 반영하여 호주사회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문경희, 2006). 즉 SBS는 호주의 다민족·다인종 융합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곽기성, 2001; 김영수, 2006). 현장에 따르면, SBS의 주 기능은 다언어, 다문화적인 방송을 통하여 호주인에게 필요한 정보는 물론 교육적, 오락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의 다문화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곽기성, 2001).

현재 호주 SBS에는 모두 4명의 직원이 한국어 방송(시드니 3명, 멜버른 1명)서비스를 맡고 있다. 매주 일요일 한 차례 송출되는 한국방송은 주로 YTN 뉴스를 내 보낸다. 라디오의 경우 시드니는 일주일에 4회(각 1시간), 멜버른은 일주일에 2회(각 1시간) 한국어로 서비스된다. 방송시간의 배분은 소수인종의 인구비례와 영어를 구사 못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라디오 방송은 주로 호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소식 등을 한국어로 전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 한국 대중가요나 팝송 등 음악프로그램도 방송한다.

(2) 사회적 통합의 강화

다문화정책의 성공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종갈등이 현실화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2004년 2월 시드니 레드펀 지역에서 발생한 호주 원주민 폭동사건은 17세 원주민 소년이 경찰의 과도한 추적을 피하다 철책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주민들과 경찰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어 2005년 12월 발생한 크로눌라 폭력사태는 크로눌라 해변에서 축구를 하던 중동계 청년들이 백인 인명구조원 2

명을 폭행한 것이 발단²⁴⁾이 되어 증동계 청년들과 백인 간의 갈등으로 증폭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비평가들은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국민통합과 사회결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현 호주 수상인 존 하워드²⁵⁾가 이에 속하는데 그는 호주 내 소수민족 공동체가 사회의 지배체제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07년 1월 이민담당 부처를 이민·다문화부에서 이민·시민부로 바꾸면서 “호주의 관습과 언어를 익혀야만 이민자들이 호주 시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호주 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시민권 취득 대기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고 영어 테스트와 호주 역사 시험 등 필기시험이 추가됐다(조선일보, 2007년 1월 29일자 기사). 호주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호주 정부가 3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다문화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호주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존 하워드 총리는 “이제 호주 이민자들도 출신배경이나 문화적 다름을 강조하기 보다는 호주 시민권자로서 주류 사회 구성원이란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07.4.6 호주동아일보 인터넷판). 그는 이어 이민자들이 호주 시민권 취득으로 다문화주의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통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하였다. 하지만 그는 다문화주의의 퇴조우려에 대하여 “다문화주의는 민주, 평등주의, 관용을 바탕으로 한 호주 가치관에서 공존하는 것이지 이것만 따로 분리할 수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면서 “상호존중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민자들이 영어 습득에 더욱 노력해 빠른 기간 안에 진정한 호주인이 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급진적 좌파 성향을 가진 비평가들은 호주정부가 호주 내 존재하는 인종주의나 백인 우월주의를 없애는 데 노력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기념한다고 강조한다. 탈식민주의 성향을 가진 비평가들은 다문

24) 당시 인명구조원들은 레바논 청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니 축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화 축제는 소수문화를 오히려 이국적이고 전통적이며, 상품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긴다. 일부 학자들은 호주의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앵글로-색슨계가 독점하고 있다며 다문화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곽기성, 2001).

호주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국제 우편 주문 신부들이 20여 년 전부터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들 신부를 '구매'하는 남성들은 주로 농촌의 나이든 백인 남성들이거나 자신들의 지역에서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힘으로는 여성을 만나기 힘들어 하는 이민자 남성과 소수 공동체 남성들이었다. 주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호주 남성의 아내였다. 이들 여성은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서 남편의 성과 인종 때문에 폭력과 차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국제 주문 우편 신부 사업을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반대운동을 펴나가고 있다.

2) 이민자 지원과 서비스: 한인이민자를 중심으로

(1) 이민자 지원

호주로 이민 오거나 난민 온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은 이민자지원센터(Migrant Resource Center, MRC)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시드니에는 10여 곳에 MRC가 활동 중이다. 여기서는 시드니에 위치한 캔터버리-뱅크타운(Canterbury-Bankstown)에 있는 이민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센터가 위치한 건물에는 성인들을 위한 무료 영어교실과 호주한인 복지회가 함께 상주해 있었다.

1986년 설립된 이 센터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직원은 모두 25명이고 자원봉사자는 프로젝트마다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여러 외국어 중 하나 이상은 구사할 수 있다. 센터는 커뮤니티 그룹의 대표자, 지역민, 커뮤니티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처음 호주에 와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소수인종 커뮤니티 그룹들은 이곳에 모여 호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인터넷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관공서 서류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도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여성리더십프로젝트 ▲문화 간 스포츠 프로젝트 ▲가정폭력방지프로젝트 ▲멘토링프로그램 ▲여성창업프로젝트 등이 있다. 멘토링프로그램의 예로는 아프리카에서 건너 온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을 들 수 있다. 센터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인근 학교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한 적이 있다. 멘토들은 학생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교과목 중 미진한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같은 멘토링 외에 Muslim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Muslim 출신 중 카지노로 성공한 사람들과 연계해 카지노에서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실습을 했다고 한다. 여성창업프로젝트는 16주간의 코스로 젊은 이주여성과 난민 여성들에게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다.

(2) 한인이민자 지원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수는 52,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은 시드니(32,000여명), 멜버른, 브리즈번에 거주하고 있다. 시드니와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따르면, 처음 호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건강보험 무료 가입, 500여 시간의 무료 영어수업 등이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집세 보조금이나 의약품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받기도 한다. 이 모든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Centrelink를 통하여야만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아래 <표 V-1>를 참조하기 바란다.

영어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 자녀들의 경우는 집중영어프로그램(Intensive English Program)을 제공하는 학교나 센터에 등록하여 6개월이나 1년 수업을 받은 뒤 해당 학교에 정식 입학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과학이나 수학 등 여러 과목을 영어로 들을 수 있어서 이후 학교수업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주간이 되면 한인회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해 달라는 연락이 해마다 온다. 벨버른 한인회는 올해 처음 시내 초등학교를 방문, 한국의 문화와 역사, 이민역사 등을 소개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음식과 지정학적인 위치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고 한다.

<표 V-1> Centrelink 주요 서비스

지원종목	지원형태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성인 이민자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	영어 수업료 지원
Job Network(구직망)	Centrelink에서는 유급직을 찾고 있는 구직자 들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알선 기관들의 전국적인 연결망에 추천해 줄 수 있음
Job Placement, Employment and Training -JPET (고용알선, 취업 및 기술양성훈련)	젊은이들이 주거를 마련하고, 재무관리를 하며, 학업을 계속하고, 구직, 또는 기술양성을 하도록 지원
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 Program (취업, 교육, 기술양성 훈련프로그램)	부모나 간병인(노약자의 보호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Personal Support Program (개인지원 프로그램)	노숙자,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가정폭력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취업 노력을 하도록 지원
Reconnect(재결합)	노숙자 상태이거나 그런 위험에 처한 12-18세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

※ 출처: Centrelink 홈페이지(www.centrelink.gov.au)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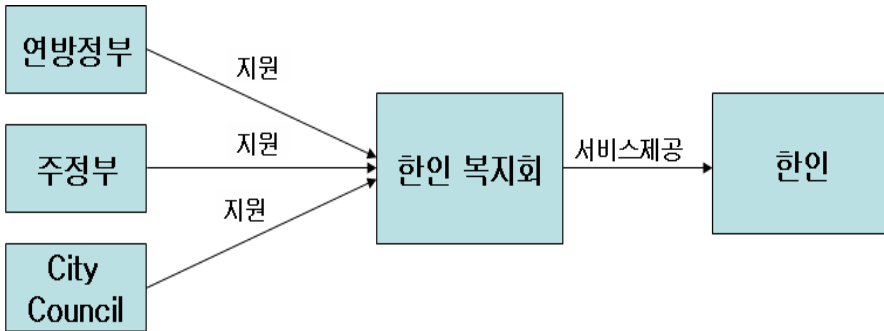
인터뷰에 응한 교민들은 영어 못한다고 놀리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한 놀림은 호주 학교에선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도 수업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가령, 지리시간에 한국이나 중국의 호주 이민의 역사 등에 대한 과제물을 학생들에게 제출토록 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이해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기보다 이민자들이 여러 서비스를 누리는데 있어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3) 한인 이민자 지원 경로

아래 [그림 V-1]에서도 나타나듯이 호주 정부의 소수인종지원은 호주한인복지회와 같은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현재 호주 한인복지회에는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4명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채 한인들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호주사회에 막 발을 디더 놓은 이민자들을 위하여 가족수당신청, 의료보험혜택, 취업지원 등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이나 노인들을 위한 행사 등 한인이민자들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나 각종 공문서해독 등도 여기서 이뤄진다. 연방정부로부터는 막 이민 온 사람들의 정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주정부로부터는 호주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예산은 3개월마다 지급되고 매년 감사받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호주 한인복지회는 1979년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한인이민자들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하여 만들었으나 이후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민자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V-1] 한인 집단 지원 경로

3) 소수집단 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청소년들은 12세~25세다. 따라서 청소년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이라 함은 이 연령대를 겨냥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참여하는 구체적인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²⁵⁾

- ▲ 과제 클럽(예: 선생님께서 숙제하는 것 도움 받기)
- ▲ 직업프로그램 (예: 이력서 쓰는 것을 돕거나 유급직 알선)
- ▲ 방과 후 활동 (예: 스포츠 혹은 보석 만들기)
-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예: 전통 춤 혹은 현대 춤)
- ▲ 스포츠 프로그램(예: 농구, 축구, 수영)
- ▲ 학교휴일활동(예: 영화 보러가기, 동물원 방문하기, 혹은 캠프 참여)
- ▲ 리더십, 멘토링, 그리고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예: 연설기술 배우기)
- ▲ 청소년 그룹 프로그램들(예: 자존감 및 정체성 강화)

청소년 지지 프로그램(Youth Support Program)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다. 이 프로그

25) 이하는 뒤에 소개될 CMYI서 나온 청소년 서비스 가이드를 정리한 것이다.

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실질적인 도움

(예: 서류양식 작성하기, 스터디 등록하기, 약속 잡기, 교재 찾기)

▲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고려하는 선택 혹은 이슈에 대한 정보

(예: 문화적 이슈)

▲ 가족, 친구, 혹은 학교와 관계를 강화하도록 돕기

(예: 가족 내의 의사소통 향상시키기)

▲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에 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찾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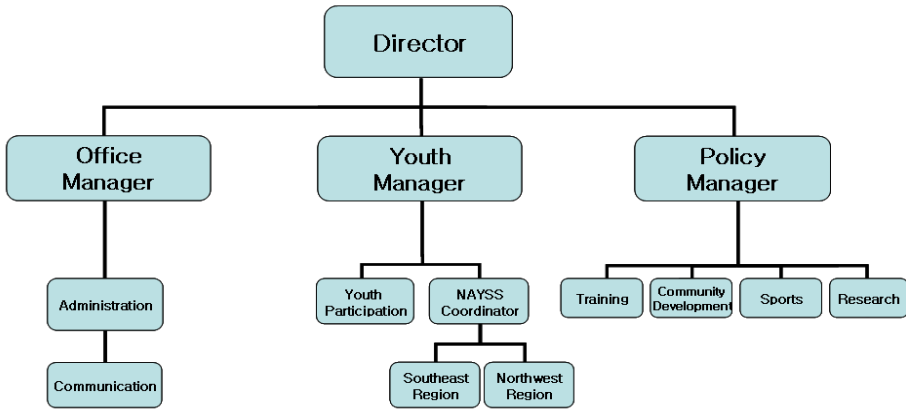
것을 돕기(예: 법적 정보, 의사 찾기, 혹은 이주 정보를 돕기)

▲ 상담

여러 청소년기관들이 있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지원을 돕는 기관 두 곳을 소개하기로 한다.

(1) CMYI (Center for Multicultural Youth Issues)

멜버른 칼튼(Carlton)에 위치한 CMYI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활의 기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은 크게 행정부서, 청소년서비스 담당부서, 정책집행부서로 구성되어 있다(조직표 참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정부(Family & Communication Services), 주정부(Office of Youth, Department of Victorian Communities), 시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그림 V-2] CMYI 조직도

CMYI의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

2004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16세~21세의 청소년들이 소수 인종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의 요구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지속된다.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과의 친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멘토(mentor)들은 청소년들과의 일대일 멘토링(mentoring)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호주 사회적응에 필요한 노하우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7년 7월 현재 멘토링프로그램에는 모두 18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멘토들은 2주에 한번씩 2시간동안 이들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들과 멘토링 참가 청소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모여 야외활동을 통하여 바비큐나 볼링 등을 즐기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은 매 달 멘티와의 경험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멘토들은 두 달에 한번 멘토관리훈련(Mentor Supervision

Training)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들은 멘토링을 통하여 영어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호주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친교를 쌓을 수 있다.

② 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 : NAYSS

NAYSS는 막 이민 온 12세~21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집이 없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가족, 교육, 직업훈련, 일,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관여와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 집단 사회사업, 가족 의료사업과 사회사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③ 리더십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이민 혹은 망명 온 지 10년이 지난 청소년들의 리더십 스킬 함양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Reconnect Young Refugees

이것은 집,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세~18세의 망명자 청소년과 호주에 막 도착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CMYI 지원서비스로 청소년들이 가족, 학교, 친구, 지역사회와 더욱 연결되어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 이외에도 다문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 재정착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2) Frontyard Youth Services

멜버른에 위치한 Frontyard Youth Service는 집이 없거나 혹은 위험에 처한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멜버른과 빅토리아주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미래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체이다. 주로 길거리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단체지만 다문화 가정청소년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여러 서비스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계 화교가 다수 집단을 차지하는 다인종 복합 사회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민족구성은 중국인이 76.8%, 말레이시아계 13.9%, 인도계 7.9% 기타 유라시아계 1.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문화는 네 개의 공식적인 문화, 곧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유럽 혹은 유라시안의 문화들이 결합된 것이다(김성건, 1996).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래플스경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기지로서 1819년에 무인도에 가까운 싱가포르 섬에 도착한 후로 약 14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거쳐 말레이시아로부터 1965년 독립하여 건국되었다. 영국 주도의 싱가포르 항 개발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노동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주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고 그와 함께 인도로부터 타밀인(Tamil)들을 받아들였다(김성건, 1996). 영국 식민당국에게 중국인들의 노동은 중국인들의 근면, 검약 정신 때문에 선호되었고, 인도인들은 유순함 때문에 쉽

계 종속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싱가포르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자바인, 버마인, 말레이인 등)은 노동자로서 체질적 결합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떠받쳐준 이념 중 하나인 '사회적 진화론'이 현 싱가포르의 많은 지도자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Lian, 1992: 104).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쯤인 1942년에 일본군의 통치에 놓이게 되었고, 일본은 중일전쟁에 참여한 경험으로 싱가포르의 중국인에게 잔인했고 심지어는 대량학살까지 감행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말레이인과 인도인들에게는 우호적이었다(김성건, 1996). 이렇듯 영국과 일본에 의한 식민정책으로 민족 집단 간에 분열이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독립된 후 정치적 갈등이 거의 없었다. 이유는 신생 싱가포르공화국의 강력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²⁶이 권력 및 통제를 성공적으로 독점한 것과 '제도화 된 다민족 모델'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김성건, 1996).

1959년 집권한 PAP는 공산주의와 소비니즘을 국가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인종 간 평등성의 원칙과 모든 언어권의 동등성 원리에 입각한 다인종 다언어 정책을 펼쳐왔다(전제국, 2001). PAP 스스로 다인종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 지도층은 물론 의회구성에서 인종 간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극단주의자들 뿐 아니라 인종주의적 편견에 기초한 모든 행위들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엄단되었다.

싱가포르적 다인종주의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종의 이질적 성격은 덜 강조하는 반면에 CMIO(Chinese, Malay, Indian, and Others)로 '사분의 다인종체제'를 지원했다(김성건, 1996). CMIO모델을 통하여서 PAP정부는 1960년에 주택개발청(the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을 만들어 공공주택의 배분 정책을 통하여서 인종 혼합을 이루고자하였다. 이 정책은 새롭게 조성한 주택단지에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

26) PAP는 1954년 이광요 등 비교적 온건한 영국유학파가 주축이 되어 반(反) 식민주의를 내걸고 좌우익 모든 반체국주의 세력을 하나로 묶어 반식민 통일전선으로 출발하였다(전제국, 2001).

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배분하면서 동시에 민족별 구성이 CMIO모델에서 대표적 4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같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그 결과 전 국민의 약 88%가 새로운 주거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종 혼합이 증진되었고, 한 인종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김성건, 1996).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혼합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민족에 기초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한편으로는 다언어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미 인종간의 공통어이며 근대화를 위한 실용 언어로서 영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각 인종의 모국어를 동시에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유인선, 1993).

다음으로, 인종 간 비례적 균형에 입각한 다인종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인종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에 처음으로 입안되어 실시된 '집단대표선거구(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ies, GRCs)를 들 수 있다. 이는 의회의 구성이 언제나 다인종적이 되도록 하는 조치였다. 즉 대통령이 지정한 집단대표선거구에 최소한 한 명의 소수민족이 포함된 다수의 입후보자가 팀으로 출마하고 유권자들은 각 팀을 대상으로 투표해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팀이 각 GRC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다(전제국, 2001).

김성건(1996)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 모든 시민들을 통제하기에 좋은 물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인종적 국가들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PAP정부의 지도자들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들의 다문화 교육의 사례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의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교육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정책

은 주로 이주민과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이주민들을 미국사회에 동화시켜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사회 다문화 교육은 연구자의 논리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크게 ‘공존형(Quilt)’과 ‘흡수형(Americaniz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존형’과 ‘흡수형’은 동화의 절차와 속도를 신중히 진행할 것인가,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사회로의 동화만이 아닌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에 대한 연구도 차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오래된 다문화 교육의 역사는 지금부터 다문화 교육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각기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 방식의 특성에 대한 연구, 이중 언어교육의 시행, 다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 등은 다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다문화 교육은 소수 민족을 배려하기 위한 지원과 다인종 다종교 구성원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시민의식의 형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교육부와 연계하여 소수 민족의 기회 배려를 위한 교육과정은 물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시민의식 형성의 교육과정도 연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소외와 격차, 인종 분리의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 교육이 이념적 차원의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아닌 역진적 배분의 입장으로 소수 민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이제 막 기회 배분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다인종 다문화 정책과 연구를 전담하는 영국정부 산하 위원회의 설립이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정부 차원의 다인종 다문화 관련 기구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여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한 기간이 매우 짧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정책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연구와 교육 정책의 대상이 매우 폭 넓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육기회 배분 연구가 주로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일본은 외국으로 이민을 간 일본인의 자녀, 일본계 혼혈인, 이민 후 재입국한 교포 2,3세 출신의 귀국자녀,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혈통이나 거주 지역이 일본과 관련되는 모든 구성원(汎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다인종 다문화 형성과정의 최근 양상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 과거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고국 출신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고국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인은 감소하고 외국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이주노동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점 등의 현상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변화의 양상을 우리보다 앞서 거쳐 간 일본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 연구, 정책들은 매우 의미 있게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쌍방의 이해를 전제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이해 강좌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이해 강좌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多)문화 교육’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이(異)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문화가 이미 주류 문화임을 전제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호주의 경우는 오랜 다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인지 소수인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앞서 언급한대로 호주정부의 소수집단지원은 소수민족이 구성한 자조집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한인사회의 경우 호주한인복지회가 호주정부의 이민자지원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었다. 이주민지원센터(Migration Resource Center)는 이민자들이 처음 호주에 와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실도 함께 있어 이민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도왔다. 호주 사례에서 특히 흥미를 끈 것은 영어에 익숙지 못한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집중영어프로그램이다. 학교나 지역 센터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여러 수업을 영어로 들을 수 있어 쉽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사회도 한국어에 능통치 못한 이주노동자 자녀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비수업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다언어정책과 다인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수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배려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주류사회의 언어 뿐 아니라 소수집단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높이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분석대상 국가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시행이 그것이다.

우선,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 민족들을 배려하여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족 특성에 따른 학습 방식의 고려, 방언(흑인영어)의 교육적 의의, 이중 언어교육의 시행 등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정책을 통하여 보상적 교육기회 배분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소수 민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업 성취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니케이진’ (日系人)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도 세 국가 모두에서 시행

되고 있었다. 소수 민족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없애고,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며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도록 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다인종 다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방안이 마련되어 왔다. 영국은 국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과 평생교육 차원의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하게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 공공기관에서 마련되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이다.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인 청소년들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인 청소년들, 그들의 부모와 담임교사, 관련 시민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사회적응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을 한국사회에서 보내서인지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앞서 논의한 베리의 문화적응모형 대로라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유형은 동화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성격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청소년도 있었고 일부 청소년들은 주위의 굵지 않은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개인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재혼 등의 이유로 갑자기 입국하는 경우 일반 이주노동자 자녀와 별 다를 바 없이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부산지역에는 재혼한 국제결혼가정이 늘고 있다고 한다. 즉 한국인도 재혼이고 외국인 배우자도 재혼인 셈이다. 따라서 부모의 초청으로 갑자기 입국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외국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마땅히 갈만한 중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재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이번 연구는 또한 자녀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정 부모들과 한국인부모들과의 교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분석한 대로 일본인 학부모들은 학교일에 적극적이었고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환경과 분위기를 잘 몰라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회단체들은 외국인부모를 중심으로 자조집단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게 함으로써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자조모임 뿐 아니라 한국학부모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한다면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보다 잘 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생김새 등으로 인한 차별, 따돌림과 관련, 국제결혼자녀들은 그다지 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초등학교 때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출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그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쳐다보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다소 힘들어 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반기지 않았으며 일반 한국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따라서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이들을 볼게 아니라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대상화, 타자화 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한국인이고 장차 한국사회 미래 동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규학교 진입기회는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정규학교 입학조차도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했고,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 부처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것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유엔(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교육기회 수혜

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규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200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상당수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그들 부모의 경제 활동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입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진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문제 발생을 우려한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정규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의 부적응 상태에서 성장해 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일 이러한 청소년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게 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정규학교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한국 학생들과의 마찰, 수업 내용 이해의 어려움, 그들을 위한 커리큘럼과 준비된 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과 진학의 영속성 불가능 문제, 특정 국가(몽골)에 한정된 점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료와 교사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 유색인종의 특성과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머지않은 미래에 소외계층의 형성, 양극화 심화, 인종집단(ethnic group)의 형성, 인종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확인을 통하여 분석해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외국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보다 먼저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미국, 호주,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국가들은 공

통적으로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비록 우리 사회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지만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와 체계적 지원은 다문화 사회로 막 들어선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정책 제언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시작하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여러 정책들을 통하여 평화적인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모든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한 정책 방향, 이러한 두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정부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앞서 논의된 소수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본 과제와 관련해 진행된 워크숍 등을 토대로 소수집단 청소년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정책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격차의 누적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인 청소년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자녀로서 모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방치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령기임에도 교육의 기회를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수 민족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주류 사회구성원들에 비하여 출발점이 낮은 그들에게 기회를 역진적으로 배분하여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근거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보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본론의 실태를 통하여 확인하였듯이,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와 문화 교육이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언어와 학습능력의 향상, 대인관계와 정체성의 원활한 형성 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출발점이 낮은 그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학교, 주말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되기를 바란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와 문화 이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에게는 어머니 출신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인 청소년에게는 모국에 대한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 못지않게 모국 사회의 언

어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많은 공립학교에서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공공기관에서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별도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와 국제 결혼 이주여성, 혼혈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교육프로그램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사회 적응과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2)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실제 교육의 과정에서 소수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과 가정교육의 상당부분을 전담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녀의 특성이 어머니에 가까울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 학습 방식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에도 모국의 교수-학습방식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중언어교육의 실시와 이주자들의 출신국가별 학습특성의 이해를 통한 교육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출신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적합한 학습 방식을 선택하여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 성취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이주자는 아니지만, 이주한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특성이 자녀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언어와 학습방식 특성을 고려하는 교수-학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멘토링 제도의 활성화 : “찾아가는 1:1 서비스”

다문화가정은 한 지역에 밀집하여 있다기보다는 중소도시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고루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국, 국내 거주 기간, 합/불법체류 여부, 거주 지역 등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의 적응 정도가 제각각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은 적응 정도와 생활 실태가 확연히 다르다.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은 가정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교육시키는 것 못지않게 각 가정마다 “찾아가는 1:1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초중등 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전공학과 대학생들을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다문화 특별학급의 확대와 영속성 보장

경기도 지역의 일부 시범학교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며 단계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특별학급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학급은 극히 일부 지역의 몇 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것에 불과하며, 영속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장시간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하고 있었고, 특별학급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문화 특별학급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이 졸업할 때까지 학급이 운영되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학급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인 청소년 가운데 어머니의 재혼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단계적인 적응을 위하여 참여하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다문화 대안학교의 설립과 지원

다문화 대안 학교의 설립과 지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정규학교의 학제와 교과 내용, 교육 방식, 교육 문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을 고려해 볼만 하다. 그들을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부산지역에 ‘아시아공동체 학교’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청소년들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을 통합하여 다문화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소수집단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 지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가운데는 모국에서 출생하여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적지 않다. 모국의 언어와 문화가 체득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국으로 귀국할 가능성과 한국에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가능성을 포괄하는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은 외국인 학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주 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새롭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설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 특히 한국의 교육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한국의 정규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응을 자초하는 것일 수 있다. 단계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모국의 언어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한국어를 익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또한 외국인 학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가운데 수업료의 부담이 큰 영어권 외국인 학교와 화교 학교를 제외한 외국인 학교는 몽골학교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몽골 정부에서 교사를 파견해 주는 것 이외에는 한국의 종교단체가 재정과 학교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시설과 예산 등이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중소기업, 특히 3D 업종을 지탱해나가고 이들을 국내에 계속 거주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논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형태일지라도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 지원을 검토할 시점인 것이다.

(7) 학교 입학 기회의 확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정규학교의 입학 기회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장애가 많은 실정이었다. 우선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의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한시적인 허용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동 권리의 차원에서 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법적 제재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불법 체류자)의 경우 자녀를 정규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고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더라도 또 다른 장애가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규학교의 입학을 허용하였지만, 단서로 학교장 재량으로 실제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통하여 살펴본 학교장들의 입장은 대부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허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도 교육에 대한 형식적 접근 기회가 아닌 실질적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8)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양성과 연수

예비 교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다문화 관련 강좌를 개설하거나 관련 내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문가 양성과정에는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강좌 개설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식을 쌓고, 교육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화 체험과 교류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

현직교사·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들도 예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관점 및 방법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시 다문화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 뿐 만 아니라 학습부진아에 특별교육,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부적응아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또는 국제결혼 가정이 많은 지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문화체험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사·지도사·상담사 양성, 일반 청소년들과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문 지도사·상담사·교사 양성,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에 대한 전문 지도사·상담사·교사 양성 등을 전문화 하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태 확인

점차적으로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정의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증가 추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귀화가 가능하고, 자녀들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다. 둘째, 국제결혼의 경우 재혼 가정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재혼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들은 국제결혼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주여성의 이전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출신 남성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이른바 ‘코시안’ (Kosian)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연구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라 하더라도 피부색이 구별되지 않으면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동양계(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일본, 몽골 등)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질의 응답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넷째,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부모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여도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출생하였지만 무등록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 가운데 모국에서 입국한 경우 대부분 중개자에게 적지 않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명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 후에는 다시 비자를 되파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의 숫자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실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확인된 숫자가 다르게 발표되기도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정규학교에 취학한 학생에 한해서만 숫자가 확인될 뿐이다. 그 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무학으로 방치된 청소년들의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수와 증가 추이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가는 실태와 단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방안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를 확인하여 받아들이는 인정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확한 실태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의 삶을 교육과 문화, 진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들의 성장 실태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각 분야에 대한 장·단기적 협동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2)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 정책

소수 민족들에게 기회를 보상적으로 배분하여 지원하는 것만으로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평화적 공존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편협하다면 이질적인 구성원의 불안한 동거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들은 소외계층에서 나아가 새로운 인종집단으로 묶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과 상생을 위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미래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하여 다양성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도래할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같은 세대인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의 인식과 태도를 평화적으로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방적 ‘흡수’ 나 ‘다름’ 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정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한

국사회 청소년들이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과 상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다인종 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 못지않게 한국사회 청소년들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우선 시급한 것은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근거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하여 하찮게 인식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도록 태도를 형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에서 공존가능하고 사회발전에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활용될 교재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다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과 교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지역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교양 강좌, 토론, 체험, 캠프 등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이해교육의 확대

첫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의 이해와 상생을 위한 민주시민의식 형성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과정은 ‘단일민족’의 폐쇄적 전통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내용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교사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며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한 연수의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코시안 아동들에게도 기존 한국 문화의 이해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이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많은 교과서와 수업 자료물들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 집단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영국정부는 2000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국가, 종교, 인종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시민의식 형성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 안에는 인종적 차별이나 따돌림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내용도 담겨있다.

둘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이며 반쪽짜리인 평화에 불과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시민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한국 문화 이해 교육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시민관, 공민관 등과 같은 공적기관에서 시민의식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타(他)문화 이해강좌’와 더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일본)문화 이해강좌’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족 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문화 이해 강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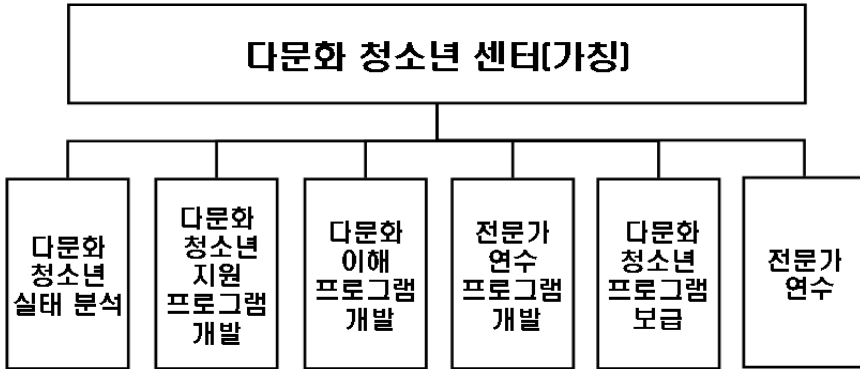
셋째, 앞서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의 방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에서 제기한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연구와 시행, 교사의 인식 변화를 위한 연수 기회 마련, 이러한 내용들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

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 예산이 미미한 정도이다. 그러나 진행되는 내용도 대부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소수 민족을 이해하기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에서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전담 기구를 통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외국인 통합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보험과 연금,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 청소년 센터’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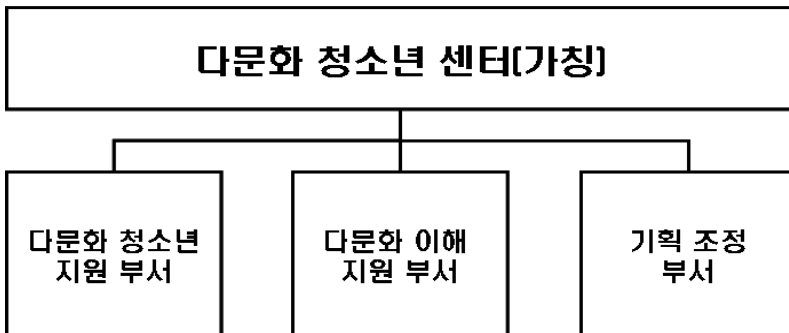
다인종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앞서 제안한 두 갈래의 청소년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추진·집행할 수 있는 국가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며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시대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기구가 마련되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장·단기적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을 전담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호주 등 외국의 사례에도 살펴보았듯이, 다인종 다문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국가 전담 기구를 두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대비하여 정부 기구인 ‘다문화 청소년 센터’ (가칭)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면밀한 실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지원 방안 마련,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의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연수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도 담당할 수 있다(아래 [그림 V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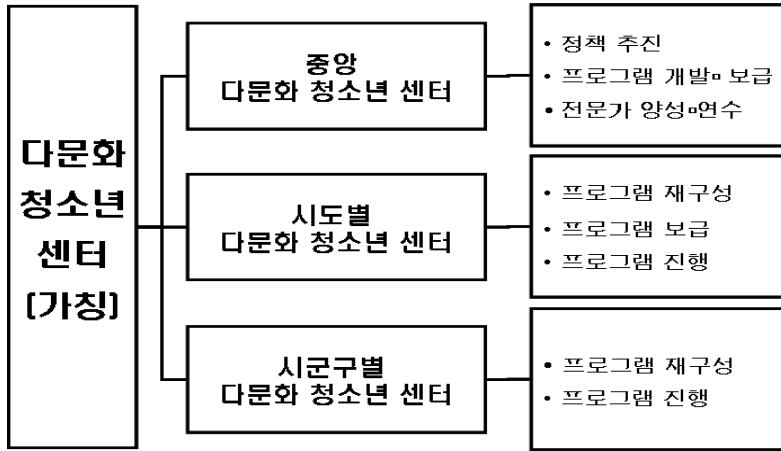


[그림 VI-1] '다문화 청소년 센터'(가칭)의 역할

다문화 청소년 센터의 조직은 크게 '다문화 청소년 지원부서'와 '다문화 이해 지원부서'로 구분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역할을 조정하는 '기획 조정 부서'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그림 VI-2] 참조). 그리고 서울에 '중앙 다문화 청소년 센터'를 두고, 각 시도와 시군구에 '다문화 청소년 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에서 정책 추진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가 양성과 연수 등을 주로 담당하고, 각 지방 다문화 청소년 센터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재구성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군구 단위의 다문화 청소년 센터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그림 VI-3] 참조).



[그림 VI-2] '다문화 청소년 센터'(가칭)의 구성



[그림 VI-3] '다문화 청소년 센터'(가칭)의 조직과 센터별 역할

새로운 기관으로 다문화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련 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시간과 재정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중앙 다문화 청소년 센터의 경우 청소년 관련 연구 기관이나 대학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 다문화 청소년 센터의 경우 지방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 즉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기관 가운데 희망하는 기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센터 설립을 신청하고 선정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시설에 관련된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언론기능의 확대²⁷⁾

언론은 사회의 주요 의제설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혼혈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혼혈인에 대

27) 이 제언은 부록에 제시된 '혼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에 기초해 이뤄졌다.

한 보도가 늘어날 필요가 있으며, 부록에 제시된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행사나 감동, 자성 중심의 보도에서 탈피해 사회적 인과관계와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뉴스프레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부정적 묘사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부각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더 강조하는 긍정적 재현방식이 더욱 필요하다. 즉, 혼혈인을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미디어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저널리스트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획 및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언론이 혼혈문제에 대하여 "참여적인 자유 공론 장(participatory liberal sphere, Bennet et al., 2004)"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혼혈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미디어 재현 준비과정에 정부당국자나 저널리스트,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혼혈인이나 그들과 가깝게 관련된 이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수용자들이 혼혈인이나 다문화 현상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에 대하여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판단(informed decision)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수용자들이 농촌에서 늘어나는 혼혈청소년들과 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적·사회적·문화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해 미디어를 통하여 보여 지는 혼혈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캠페인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어 혼혈과 다문화 현상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만큼 저널리스트들이 이 현상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문이나 방송 차원에서, 아니면 전체 언론 차원에서 올바른 다문화보도를 위한 워크숍/세미나/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혼혈 등 다문화 현상을 저널리스트들 스스로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전문가”를 육성해 언론이 축적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혼혈문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특정 일간지들이 주도하는 다문화에 관한 기획시리즈 등을 한층 강화해 이벤트나 흥미유발, 동정 중심의 개인적/개별적 스토리 보다는 주제(thematic)/분석중심의 접근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현장중심의 취재를 강화해 지배적인 혼혈문제 미디어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혼혈인들의 실질적 삶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것도 혼혈문제에 대한 올바른 미디어 재현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문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비평도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미디어 비평을 위한 조직을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수용자들과 저널리스트, 언론 및 관련학계의 학자, 정부 정책 책임자와 사회운동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의 다문화/혼혈 문제 접근방식 개선 또는 모니터링을 위한 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팀을 통하여 언론보도 및 재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혼혈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인종 사회는 물론이고, 많은 다문화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혼혈 또는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및 재현의 실태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이 조사 기구를 통하여 외국 사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인종/다문화 환경에서 각 나라의 언론이 어떻게 대응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한인 등 인종적 소수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방송이나 신문의 사례들과, 캐나다 영어권지역에서 실시되는 미디어의 이중 언어정책(bilingual), 호주에서 실시되는 비영어권 소수자들을 위한 자막방송 사례 등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은 늘어나는 동남아나 중국계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 미국에서 유래된 Melting Pot이라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통제와 관련된 지배적인 허구적

신화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 출신들이 지배적 문화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모든 혼혈인이나 이주민들이 한국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신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 오히려 혼혈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그들 문화에 대한 접촉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한국문화와 언어에도 적응하고, 사회적 대우나 언론재현 차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언론이 보도 차원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오락 프로그램을 통하여 혼혈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을 “동등한 우리”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드라마에서 AIDS환자나 성적소수자, 중국에서 이주한 조선인 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제 혼혈인들도 뉴스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능동적 재현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혼혈인이나 이주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관심과 걱정에 대하여 상담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혼혈문제가 공론장의 한 영역인 미디어에서 보다 자주 등장하는 의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문제점 시정을 위하여서는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련 정부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관계 기구들 외에도 혼혈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국가청소년 위원회, 그리고 국제결혼을 위하여 이주한 여성들을 위하여서는 여성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하여서는 노동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한, 언론의 범위가 확장되는 현실에서 혼혈인들과 이주노동자/여성들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하겠다. 또한 인

권 차원에서 혼혈 및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하다. 이들 각 정부기관이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혼혈 또는 다문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쟁점 및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함께 개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하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혼혈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관련 기관이 공익광고나 영상물을 제작해 혼혈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혼혈과 관련한 주제를 담은 영상제 개최나 광고 공모전 실시 등도 이 문제에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젊은 층의 관여도를 높이고, 보다 참여적인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곽기성(2001). 『호주의 미디어: 다문화주의와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가인권위원회(2002).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2006).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혼혈청소년도 당당한 한국인입니다.”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숙인(2005).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동요와 변화: 동질성의 신화에서 다문화주의적 모색으로. 한상일 외, 『일본형시스템: 위기와 변화』(477-507쪽). 서울: 일조각.
- 금명자 외(2006). 한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실태.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편),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17-72쪽).
- 길윤형(2007a, 5.8). 내게 한국인이냐고 묻지 말라. 『한겨레21』, 658, 26-30.
- 길윤형(2007b, 5.8). 우리의 민족주의는 ‘미국중심주의.’ 『한겨레21』, 658, 38-40.
- 김갑성(2006).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국(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97-120.
- 김동심 외(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미혜(1983). 혼혈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3).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제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범준(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6권 1호, 1-18.
- 김성건(1996). 싱가포르의 인종과 민족문제. 『지역연구』, 5권 4호, 165-213.
- 김영수(2006.05.26).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 들여다보니... 국정브리핑
- 김예란(2005). 한국의 사회적 약자 관련 보도 현실: 언론인들의 자기성찰적 평가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 (63-103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정원 외(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권 3호, 95-129.
- 김현주, 전광희, 이해경(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0권, 105-139.
- 남명자(1986). 미국의 텔레비전 문화 - 텔레비전 폭력, 소수민족의 상(像) 및 여성의 성별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1권, 41-82.
-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 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호, 127-159.
- 무지개청소년센터(2006). 다문화 청소년 눈으로 세상보기. 2006 다문화청소년친구되기 공모전 출품작.
- 문경희(2006).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모색: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

- 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16집 3호, 67-93.
- 박경태·장수현(2003).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반현(2000). 소수 인종 프레이밍 : LA 폭동 전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한인 이미지 변화. 『한국언론학연구』, 2권, 91-113.
- 백선기(2005). 한국 언론의 ‘소수자·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10-62쪽).
- 설동훈 외(2003).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외(2005a).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외(2005b).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3호, 61-83.
-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유인선(1993). 싱가포르 150년사(1819-1969): 어촌에서 독립국가로. 『아세아연구』, 제36권 제2호.
- 유진이·이재호(2007).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을 위한 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주최 ‘다문화가족 실태와 청소년 정책방향’ 주제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윤영민(2003). 사이버공간의 사회.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2004).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최협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401-423쪽). 서울: 한울.

- 윤형숙(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321-349쪽). 서울: 한울.
- 윤형숙(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두원(1998).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적 능력 연구 - 상호행위에 대한 대화분석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2권, 171-208.
- 이수범(2000).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론적 전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4권, 186-214.
- 이용승(2003). 호주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정(1994).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북: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 이윤희(2004). 인천거주 화교의 인권실태 및 정체성. 최협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296-317쪽).
- 이현정(2000). 한국취업과 중국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영호(2002). 텔레비전 오락물에 나타난 내부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정체성 구성: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의 텍스트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576-605.
- 장수현(2001).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제4호, 1-30.
- 장원석(1995). 아시아적 민주주의 이상과 고뇌: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1호, 279-304.

- 장혜경(2004).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소의 실태와 대책. 제25차 KEDI교육정책포럼자료. 『교육소외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대책』.
-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전제국(2001). 싱가포르의 정당정치. 고우성외(2001), 『동남아의 정당 정치』(181-244쪽). 서울: 오름.
- 정금자(2000).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508-521쪽).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 정재민·김호연(2005). 사회적 약자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장애인과 장애공동체 보도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104-146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정혁인(2005). 사회적 약자란 누구인가.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148-170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정현숙(200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2권 3호, 27-45.
-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하여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과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종혁(2007). 미디어 아비투스 와 상징적 폭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5권 1호, 31-60.
- 차유림, 조정아(2006). 결혼이주여성 자녀 지원에 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10권 4호, 527-551.

- 최금해(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7). 『2006년 혼인통계결과』.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다문화가족 실태와 청소년 정책 방향.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권 1호, 195-243.
- 한경아(1994). 한국 혼혈인의 실태와 문제.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법제연구원(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언론재단(2005).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를 내면서.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3-4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여성개발원(2003). 이주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외국인 차별 개선 프로그램.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한금섭(2003).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의 문제. 『복지동향 53』, 17-19.
- 한승미(2003).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 실험: 가와사키 시 및 가나가와현의 외국인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 119-147.
- 한현숙(1997). 한국체류 조선족 노동자의 문화갈등 및 대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혜원(2002).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한희(1995). 한국의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 199-221.
- 함한희(1997). 이주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문제논집 13』, 99-130.
- 현택수(1998). 아비투스와의 상징폭력의 사회비판이론. 현택수·정선기·이상호·홍성민(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101-120쪽). 서울: 나남.
- 황달기(1993). 일본 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 그 실상과 문제점. 『일본학보』, 제30집, 467-491.
- 오타 히로시(2005). 이문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이론. 니시다 히로코 엮음, 박용구 옮김,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170-199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古岡俊之(1996). 今求められる歸國子女・外國人子女教育. 近代文芸社.
- 谷本一之(1994). 環北太平洋の地域研究と異文化理解教育. 北海道教育大學.
- 南保輔(2000). 海外歸國子女のアイデンティティ : 生活經驗と通文化的人間形成. 東信堂.
- 東京學芸大學海外子女教育センター 編(1993). 共生社會の教育 : 歸國子女教育研究プロジェクト中間報告.
- 山脇啓造(2005). 多文化共生の學校づくり : 横浜市立いちょう小學校の挑戰. 明石書店.
- 森茂岳雄(2005). 立民族學博物館を活用した異文化理解教育のプログラム開發. 國立民族學博物館.
- 水越敏行・田中博之(1995). 新しい國際理解教育を創造する : 子ども

- がひらく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ミネルヴァ書房.
- 野入直美(1999). アメラジアン教育権--沖縄発の教育運動. 人権教育, 7, 6-14.
- 異文化間教育學會 編(1994). 異文化理解と言語教育. アカデミア出版會.
- 照本祥敬(2004). 多文化共生の可能性を考える--「アメラジアン」をめぐる経験から. 社會文化研究, 7, 22-38.
- 佐藤郡衛 編(1995). 轉換期にたつ歸國子女教育. 多賀出版.
- 佐藤郡衛(2001). 國際理解教育: 多文化共生社會の學校づくり. 明石書店.
- 住忠久(2003). グローバル教育の新地平: 「グローバル社會」から「グローバル市民社會」へ. 黎明書房.
- 中島智子(1999). 多文化社會アメリカにおける國民統合と日系人學習. 明石書店.
- 村田翼夫 외(1994). 外國人兒童受け入れ校における教育實踐とその課題--南米日系人居住地域と學園都市地域との比較調査を通して. 比較教育學研究, 63-80.
- 椿眞智子(1998). 多文化社會カナダにおける日系人と言語環境. 日本地理教育學會會誌, 46(2), 14-27.
- 澁谷眞樹(2001). 「歸國子女」の位置取りの政治: 歸國子女教育學級の差異のエスノグラフィ. 勁草書房.
- 日本法務省入國管理局(2006). 平成17年末現在における外國人登録者統計について.
- 日本厚生省(2006). 日本厚生省人口動態統計年報.

Almeida. D.A.(1996). Countering Prejudice Against American Indians and Alaska Natives Through Antbias Curriculum and Instruction. ERIC Digest EDORC-96-4, October 1996.

- Ang, Ien(2001). "The curse of the smile: ambivalence and the 'Asian' women in Australian multiculturalism", in *On Not Speaking Chinese: living between Asia and the West*. Routledge, London: 138-49.
- Appadurai, A.(1991). Global ethnoscaples: Notes and queries for a transnational anthropology. In R. G. Fox (Ed.), *Recapturing anthropology: Working in the present* (pp.191-210).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Atton, C., & Couldry, N.(2003). Introduction. *Media, Culture & Society*, 25, 579-586.
- Bantz, C. R.(1997). News organizations: Conflict as a crafted cultural norm. In D. Berkowize (Ed.), *Social meaning of news: A text-reader* (pp. 123-137). Thousand Oaks,CA: Sage Publications.
- Bardhan, N.(2001). Transnational AIDS-HIV news narratives: A critical exploration of overarching frame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4, 283-309.
- Bardhan, N.(2002). Accounts from the field: A public relations perspective on global AIDS/HIV.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7, 221-244.
- Barkin, S., & Gurevitch, M.(1991). Out of work and on the air: Television news of unemployment. In R. K. Avery, & D. Eason (Eds.), *Critical perspectives on media and society* (pp. 306-32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rton. R.(2004). *Nets & Paddles*. NW Education, Spring 2004. www.nwrel.org/nwedu.

- Bennett, W. L.(2000). Media power in the United States. In J. Curran. & M. J. Park (Eds.). *De-Westernizing media studies* (pp. 202-220). London: Routledge.
- Bennett, W. L.(2007).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ew York: Pearson Longman.
- Bennett, W. L., Pickard, V. W., Iozzi, D. P., Schroeder, C. L., Lagos, T., & Caswell, E.(2004). Managing the public sphere: Journalistic construction of the great globalization debate. *Journal of Communication*, 54, 437 - 455.
- Berger, G.(2000). Grave new world?: Democratic journalism enters the global twenty-first century. *Journalism Studies*, 1, 81-99.
- Best, S. & Kellner, D.(1991). *Postmodern Theory: Critical interrog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Bhikhu. P.(2000). The Commission on the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 A Summary of Some of the Main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MCT* 19(1), 6-7.
- Bourdieu, P.(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R. Nice, 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1990). *In other word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1998). *On television*. (P. Parkhurst, Trans.). New York: The New Press.
- Carter. T.P. and M.L. Chatfield.(1986). Effective Bilingual School.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November 1986, 200-232.
- Chavez, L.(1991). *Out of Barrio*. New York: Basic Books.

- Choi, Yoonsun, Harachi, Tracy W., Gillmore, Mary Rogers & Catalano, Richard F.(2005). Applicability of Social Development Model to Urban Ethnic Minority Yout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Constraints, Family Socialization, an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4), 505-534.
- Coleman, C. L.(1997). Science, technology and risk coverage of a community conflict. D. Berkowize (Ed.), *Social meaning of news: A text-reader* (pp. 483-49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leman, J.S.(1976). Rawls, Nozick, and Educational Equality. *The Public Interest*, 43, 121-128.
- Croteau, D., & Hoynes, W.(2003). *Media & Society: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Pine Forge Press: Thousand Oaks, CA.
- Croteau, D., & Hoynes, W.(2006). *The business of media*.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D'Angelo, P.(2002). News framing as a multiparadigmatic research program: A response to Entman. *Journal of Communication*, 52, 870-888.
- Downing, J. D. H.(2003). Audiences and readers of alternative media: The absent lure of the virtually unknown. *Media, Culture & Society*, 25, 625 - 645.
- Entman, R. M.(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Entman, R. M.(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Epstein, N.(1977). Language, Ethnicity, and the School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stitute for Educational Leadership.
- Fillmore, C.J.(1997). A Linguist Looks at the Ebonics Debate. www.cal.org/ebonics.
- Gamson, W. A., & Modigliani, A.(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ans, Herbert J.(1992). Second-Generation Decline: Scenarios for the Economic and Ethnic Futures of the Post-1965 American Immigra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15 (2): 173-192.
- Gans, Herbert J.(1997). Toward a Reconciliation of Assimilation and Pluralism: The Interplay of Acculturation and Ethnic Reten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875-892.
- Gay. G.(2003).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December 2003.
- Gillett, J.(2003). The challeng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AIDS media activism. *Media, Culture & Society*, 25, 607-624.
- Gitlin, T.(1979). News as ideology and contested area: Toward a theory of hegemony, crisis, and opposition. *Socialist Review*, 9, 11-54,
-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CA: Berkeley University Press.
- Glazer, Nathan & Moynihan, Daniel P.(1975). Introduction. *Ethnicity: Theory and Experience*, edited by Natham Glazer and Daniel Moynih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26.

- Glick Schiller, Nina(1999a),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In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Charles Hirshman, Philip Kasinitz, Josh DeWind, eds. pp. 94-11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lick Schiller, Nina(1999b). Who Are These Guys? A Transnational Reading of the U.S. Immigrant Experience. In *Identities on the Move: Transnational Processes in North America and the Caribbean Basin*. Liliana R. Goldin, eds. pp. 15-43. Albany, New York: Institute for Mesoamerican Studies.
- Glick Schiller, Nina, Linda Basch and Cristina Szanton Blanc(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Golding, P., & Murdock, G.(1991). Culture, communications, and political economy.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15-32). London: Routledge.
- Greene, Melissa L. & Way, Niobe(2005). Self-Esteem Trajectori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Patterns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0), 151-178.
- Gupta, A. & Ferguson, J.(1992). Beyond “culture” :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17 (1), 6-23.
- Gupta, A.(1999). What’s Up wif Ebonics, Y’All? <http://readaingonline.org/articles/gupta>.

-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 Roberts, B.(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ndon: Macmillan Press.
- Harber, J.R. and D.N. Bryan(1976). Black English and the Teaching of Read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Summer 1996, 397-398.
- Harcup, T.(2003). The unspoken - said': Journalism of alternative media. Journalism, 4, 356 - 376.
- Herman, E. S., & McChesney, R. W.(1997). The global media: The new missionaries of corporate capitalism. New York: Cassell.
- Ingamells, Ann (1997). Family and Culture GUIDE. HSA 2101.
- Iyengar, S., & Simon, A.(1994).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In W. L. Bennett & D. L. Paletz (Eds.), Taken by storm: The media,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in Gulf War (pp. 167-185).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ck, Collins(1992). "Migration Hands in a Distant Land" in Gillian Whitlock and David Carter, Images of Australia. Queensland: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 John-Steiner. V. and L. Smith(1978). The Educational Promise of Cultural Pluralism. paper prepared for the National Conference on Urban Education.
- Jon Stratton(1998). Race daze: Australia in identity crisis Publisher. Pluto Press, Sydney.
- Jung, E. & Lee, C.(2004). Social Construction of Cultural Identity: An ethnographic study of Korean-American students.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12, 146-162.

- Kathryn. H.A. and A.J. Kawakami(1985). Research Currents. Language Arts, April 1985, 406-411.
- Kearney, M.(1995).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547-65.
- Kellner, D.(2003). Media Spectacle. London: Routledge.
- Kevin, C., Domke, D., Graham, E.S., John, S.L. & Pickard, V.W. (2004). No shades of gray: The binary discourse of George W. Bush and an echoing press. Journal of Communication, 54, 234-252.
- Kibria, N.(1999). College and notions of “Asian American” : Second-generation Chinese and Korean Americans negotiate race and identity. Amerasia Journal, 25 (1), 29-51.
- Kline, K. N.(2006). A decade of research on health content in the media: Th focus on health challenges and sociocultural context and attendant informational and ideological problem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43-59.
- Klug, B.J. and P. Whitfield(2002). Widening the Circle. Routledge/Falmer.
- Kmec, Julie A.(2003). Minority Job Concentration and Wages. Social Problems, 50(1), 38-59.
- Konick. S.(2003). Visual AIDS: Looking at early network news coverage of the epidemic. In L.K. Fuller (Ed.), Media-mediated AIDS (pp. 23-42). Cresskill, NJ: Hampton Press
- Krishnan, S. P., Durrah, T., & Winkler, K. (1997). Coverage of AIDS in popular African American magazines. Health Communication, 9, 273~288.

- Lee, C.(2003). Post, times highlight government's war effort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4, 190-203.
- Lee, C.(2004). News coverage of U.S. war with Iraq: A comparison of the New York Times, the Arab News, and the Middle East Times. Unpublished Dissertation: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ester, E.(1992). The AIDS story and moral panic: How the Euro-African press constructs AIDS.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2, 230-241.
- Losey, K.M.(1995). Mexican American Student and Classroom Interac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Fall 1995, 283-318.
- Macpherson. W.(1999). The Stephen Lawrence Inquiry.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by Command of Her Majesty.
- McChesney, R. W.(1999). Rich media, poor democracy: Communication politics in dubious times. New York: The New Press.
- McEachron, G. and G. Bhatti(2005). Language Support for Immigrant Children: A Study of State Schools in the UK and US.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18(2), 164-180.
- McGhee. D.(2003). Moving to 'our' common ground - a critical examination of community cohesion discourse in twenty-first, century Britain. The Sociological Review 2003, 376-404.
- Misha, Lajovic & Andrew Theophanous(1984). The Major Political Parties and Ethnic Affairs. Jupp.

- Mitra, A.(2004). Voices of the marginalized on the Internet: Examples from a Website for women of South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54, 492-510.
- Montani, M. C.(2006). The germs of terror – Bioterrorism and science communication after September 11. *Journal of Science Communication*, 5, 1-8.
- Montecel M.R. and J.D. Cortez(2002). Successful Bilingual Education Program. *Bilingual Research Journal*, Spring 2002, 1-21.
- Mora, J.K.(2003). A Road Map to the Bilingual Education Controversy. <http://coe.sdsu.edu/people/jmora>.
- Morley, D.(2000). *Home Territories: Media, mobility, and identities*. London: Routledge.
- O'Neill. W.(1997). If Ebonics Isn't a Language, Then Tell Me, What Is?. *Rethinking Schools*, Fall 1997. www.rethinkingschools.org.
- Ogbu, J. U.(1991). Immigrant and involuntary Minorit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M. A. Gibson and J.U. Ogbu (Eds.),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A comparative study of immigrant and involuntary minorities* (pp. 3-33). New York: Garland Press.
- Olssen, M.(2004). From the Crick Report to the Parekh Report: Multiculturalism, Cultural Difference, and Democracy--The Re-Visioning of Citizenship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5(2), 179-192.
- Ornstein, A.C. and D.U. Levine(2006). *Foundations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Ovando, C.(2001). Beyond 'Blaming the Victim'. Educational Researcher, April 2001, 29-31.
- Park, Robert. E. & Ernest W. Burgess(1921/1969).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cock, D.(1994). The idea of a personal anthropology. Journal for the Anthropological Study of Human Movement, 8(1): 11-42
- Porter, R.P.(1990). Forked Tongue. New York: Basic Books.
- Portes, A. & Rumbaut, R. G.(1996). Immigrant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 & Zhou, M.(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0, 74-98.
- Reese, S. D.(2001). Framing public life: A bridging model for media research. S. D. Reesch, O. H. Gandy & A.E. Grants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pp. 7-3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omo. H.D.(2000). Improving Ethnic and Racial Relations in the school. ERIC Review, Spring 2000, 25-26.
- Rossell, C.(2000). Different Questions, Different Answers. Institute for Research in English Acquisition and Development.
- Rumbaut, Ruben G.(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748-794.

- Sa'di, Ahmad & Lewin-Epstein, Noah(2001). Minority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Post-Fordist era: the case of Arabs in Israeli. *Work, Employment & Society*, 15(4), 781-802.
- Spencer, Margaret Beale(2006). Revisiting the 1990 Special Issue on Minority Children: An Editorial Perspective 15 Years Later. *Child Development*, 77(5), 1149-1154.
- Stein, S.(2002). Student Diversity. *Teachers College Record*, February 2002, 109-127.
- Tai, Z., & Chang, T. K.(2002). The global news and the pictures in their heads. *Gazette*, 64, 251-265.
- Tankard, J. W.(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pp. 95~10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harp, R. et al.(2000). *Teaching Transformed*. Westview.
- Tikinoff. W.J.(1985). Applying Significant Bilingual Instruction Features in the Classroom. *Inter-American Research Association*.
- Torrey, J.W.(1983). Black Children's Knowledge of Standard English.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Winter 1983, 627-643.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Multiculturalism:: A Policy response to diversity", Paper prepared on the occasion of the '1995 Global Cultural Diversity Conference' by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 26-28 April 1995.

- Wakefield, S. E. L, & Elliott, S. J.(2003). Constructing the news: The role of local newspapers in environmental risk communication. *Professional Geographer*, 55, 216-226.
- Way, Niobe, Robinson, Melissa G.(200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Family, Friends, and School Experiences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Ethnic Minority, Low-SE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24-346.
- Webb, J, Schirato, T., & Danaher, G.(2002). *Understanding Bourdieu*. London: Sage Publications.
- Weiss, B. S. & Parish, B.(1989). Culturally Appropriate Crisis Counselling: Adapting an American Method for Use with Indochinese Refugees, *Social Work*, May.
- Williams, R.(1976). *Communications*. New York: Penguin Books.
- Williams, R.(1982). *The sociology of culture*. New York: Schocken Books.
- Willis, J & Okunade, A. A.(1997). Reporting on Risks: The practice and ethics of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송해룡 · 김원재 · 조항민 역(2006). *위험보도: 저널리즘과 과학적사실의 충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Wolf, P.R. and J.A. Rickard(2003). Talking Circl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Development*, January 2003, 39-43.
- Wolpert. E.(1995). Using Pictures to Combat Bias. *Rethinking Schools*, Summer 1995. www.rethinkingschools.org.
- Yao. E.L.(1987). Asian-Immigrant Student' Unique Problems That Hamper Learning. *NASSP Bulletin*, December 1987, 82-88.

- Yoon, Y. C., & E, Gwangho(2002). Framing international conflicts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coverage of Tokdo. In E. Gilboa (Ed.), Media and conflict: Framing issues, making policy, shaping opinions (pp. 89-115). Ardsley, NJ: Transnational Publishers.
- Zelizer, B.(1997). Journalists as interpretive communities. In D. Berkowize (Ed.), Social meaning of news: A text-reader (pp. 401-41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Zhou, M. & Bankston III, C. L.(1994). Social capital and the adapt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The case of Vietnamese youth in New Orleans. IMR, 28(4), 821-845.
- http://www.teachernet.gov.uk/management/atoz/m/multicultural_education/

부 록

[부록1]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가정 면담질문지

[부록2] 이주노동자자녀관련 인터뷰

[부록3] 국제결혼가정자녀관련 인터뷰

[부록4] 시민단체 인터뷰

[부록5] 혼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부록 1]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가정 면담 질문지_1

이주 부모 면담문항

갈수록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 한 단계에서 이들의 성장과정은 일반 청소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생활 실태가 어떠한지, 특히 다른 청소년들에 비하여 어떤 특이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도의 대책과 지원방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면담 대상의 이름과 주거지역은 익명 처리합니다.

1. 접근

- 한국에는 언제 오셨는지?
- 한국에 처음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 또는 동기는 무엇인지?
-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힘들셨는지?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언어, 문화적 차이, 의식주, 경제적 빈곤...
-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은 되셨는지? 여전히 한국생활이 힘들다면, 어떤 점이 그러한지?
- 한국말은 언제부터 배우셨는지? 본국에서? 아님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 한국어 읽기와 쓰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잡지나 광고 읽기 가능한지? 신문이나 책 읽기 가능한지? 한국어 쓰기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
- 자녀는 있으신지? 있다면 몇 명인지?
- 자녀의 성별은? 자녀의 나이는?

- 현재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자녀는 본국에 있는지? 누가 돌봐주는지?
- 한국에서 함께 거주 한다면,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본국에서 함께 들어왔는지?
- 함께 들어왔다면, 자녀가 몇 살 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 자녀는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웠는지?
- 자녀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한지? 단순한 대화가 되는 수준인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일기나 편지, 숙제와 같은 한국어 쓰기가 가능한 수준인지?
- 집에서 보통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한국어? 모국어? 영어? 등
- 가족 중 누가 한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는지?

2. 경험

- 현재 자녀는 한국에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그런 곳에 다니기에는 너무 어려서? 아니면 다녀야 할 나이인데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장애가 있어서? 등
- 다니고 있다면, 몇 학년인지?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유치원)의 통학거리는 어떠한지?
- 한국에서 자녀가 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이 걱정되는지? (예를 들어, 한국어 실력? 인종차별? 따돌림? 돈 걱정?...)
- 자녀는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학교(유치원)에서 잘 지내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가정 외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 그 문제의 내용은 무엇인지? 학생과의 마찰?, 교사와의 마찰?, 다른 학부모와의 마찰?, 학습부진?, 통학거리? 등
- 그 문제는 자녀가 교육을 받는데 어떤 식의 방해로 끼쳤는지? 반을 바꾸게 되었다든가, 전학을 가게 되었다든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었

다든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든가...

- 외국 출신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녀의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와는 어느 정도로 자주 연락하시는지? 또는 얼마나 자주 자녀의 담임교사와 연락하시는지?
- 가정 내에서 주로 자녀의 숙제나 공부는 누가 보살펴주는지?
-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 한국에서 자녀 출산, 양육,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 없었다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있었다면,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 지원이 실제로 귀하의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알거나, 받게 된 경로는 어떠한지?
- 그러한 도움은 일회성으로 끝났는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신지? 그러시다면, 어떤 종류의 사교육인지?,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인지?
-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결과

- 자녀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 이유는?
- 한국에서 자녀의 정체성이 잘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측면에서? 왜 그러한지?
- 한국에서 자녀의 성적(학업성취)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녀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측면은?
- 자녀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시는지? 중졸, 고졸, 대졸(2년제/4년제), 대학원 이상
- 한국의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신뢰가 가는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 한국의 교사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 한국에서 자녀를 계속 교육시키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자녀가 본국에 있다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교육을 시키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니라면 그 이유는?
- 현재 한국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측면에서?
- 현재 한국에서의 자녀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 자녀는 현재 한국의 생활과 한국 학교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외국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교육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하는지?
- 이전에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신지?

4. 가정배경에 대한 파악

- 가족 구성
- 부의 직업과 학력, 현재의 직업? 본국 직업?
- 모의 직업과 학력, 현재의 직업? 본국 직업?
- 부모의 국적
- 부모의 나이
- 자녀의 국적
- 거주지
- 가정의 분위기와 현재 경제적 수준
-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
- 본국에는 누가 거주하는지?
- 종교
- 앞으로 한국에 언제까지 체류할 예정이신지?

5. 기타

- 추가 질문 다음에 전화로...

이주 청소년 면담문항

갈수록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단계에서 이들의 성장과정은 일반 청소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생활 실태가 어떠한지, 특히 다른 청소년들에 비하여 어떤 특이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도의 대책과 지원방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면담 대상의 이름과 주거지역은 익명 처리합니다.

1. 접근

- 한국에는 언제 왔는지? 몇 살 때? 아니면, 여기서 태어났는지?
-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 한국말은 언제부터 배웠는지? 본국에서? 아님 한국에서?
- 한국말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 한국어 실력은 어떠한지? 단순한 대화가 되는 수준인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일기나 편지, 숙제와 같은 한국어 쓰기가 가능한 수준인지?
- 집에서 보통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한국어? 모국어? 영어? 등
- 가족 중 누가 한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시는지?
- 처음에 한국에 와서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언어, 외로움, 문화적 차이, 의식주, 경제적 부족함...

2. 경험

- 한국에서 학교(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안 다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다닌다면, 몇 학년에 다니는지? 또는 몇 세 반에 다니는지?
- 언제부터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녔는지? 한국에 오자마자? 아니면, 언제부터?(다닌 기간 확인)

- 계속 한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녔는지? 아니면 중간에 옮겼는지?
- 현재 다니는 학교(유치원, 어린이집)는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드는 이유?
-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선생님은 잘 해주시는지? /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지?
-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 (주로 한국인) 친구들이 미웠던 적은 있는지? 언제? 왜?
- (주로 한국인) 친구들이 고마웠던 적은 있는지? 언제? 왜?
- 친구들과 주로 무엇을 하며 노는지?
- 학교에 친한 친구는 있는지? 몇 명? 성별? 한국인?
- 학급에 친한 친구는 있는지? 몇 명? 성별? 한국인?
- 학교에 외국출신의 다른 친구들은 있는지? 몇 명? 어느 나라?
- 그 친구들과 친한지? 아니면 한국친구들과 친한지?
- 한국 친구들과 싸운 적은 있는지?
- 친구들이 미웠던 적은 언제인지?
- 학교와 담임선생님이 외국출신의 친구들을 따로 모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한 적이 있는지?
- 학교(유치원, 어린이집)가 끝나면 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지내는지?
- 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있는지? 언제? 왜?
- 숙제나 공부는 누가 도와주는지?
-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부모님이 잘 오시는지?
- 한국말로 진행되는 수업시간과 교과서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지?
-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지?
- 선생님이 알아서 공부를 잘 봐주시는지?

3. 결과

-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밌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 한국의 학교생활은 재밌는지?
- 본국에서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닌 경험이 있다면, 본국과 한국의 학교는 어떻게 다른지? 그 정도와 내용은 무엇인지?
-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적이 있는지? 어떤 때?
-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들이 있어서 안심이라고 생각되는지?
-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 가장 재미없는 과목은?

-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는?
- 앞으로 어디까지 교육받고 싶은지?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 학교에게 바라는 것은?
-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 부모님께 바라는 것은?

4. 가정배경에 대한 파악

- 가족 구성
- 부의 직업과 학력, 현재의 직업? 본국 직업?
- 모의 직업과 학력, 현재의 직업? 본국 직업?
- 부모의 국적
- 부모의 나이
- 자신의 국적, 나이
- 거주지
- 가정의 분위기와 현재 경제적 수준
-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
- 본국에는 누가 거주하는지?
- 종교
- 이전에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살아 본 적이 있는지? 그곳에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를 다닌 적이 있는지? 있다면 한국, 본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5. 기타

- 추가 질문 다음에 전화로...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면담문항

갈수록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 한 단계에서 이들의 성장과정은 일반 청소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생활 실태가 어떠한지, 특히 다른 청소년들에 비하여 어떤 특이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도의 대책과 지원방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면담 대상의 이름과 주거지역은 익명 처리합니다.

1. 접근

- 00이가 이주노동자(혹은 결혼 이민자) 자녀임을 알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실제 다른 청소년들과 많이 다르던가요?
- 어떤 면이 한국의 청소년들과 다르던가요? 외모? 언어? 성격? 대인관계?
-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던가요?
- 00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 일반적인 생활 태도는 어떠합니까?
- 다른 애들과 처음에 서먹서먹한 면이 다르거나 특이하게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하는지?
- 00이의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선생님(복지사님)께 특별하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으셨는지..
- 00이의 언어 능력은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어떠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00이의 형제·자매들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 00이의 부모님께서 자녀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표현하시는지? 표현하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 00이의 학교 진학 또는 청강 또는 미취학 과정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 경험

- 00이 부모님과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셨는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셨는지? 다른 부모님들과 다른 점은(예를 들어 교육관)?
- 부모님과 전화통화는 자주 하십니까?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서...
- 부모님의 00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 00이 부모님의 학교 활동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떠하십니까? 급식, 교통 정리, 어머니회...
- 보내드린 가정통신문(알림장)을 부모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제, 박물관, 전시회 관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지? 왜?
-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들인지?
- 00이는 학교생활 또는 복지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 00이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 00이의 학업에 대한 태도
- 단어나 문장의 맥락에서 조금은 엉뚱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지?
- 00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과제를 성실히 해 오는지?
- 다른 아이들과의 인간관계
- 00이의 식습관은?
- 00이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은?
- 학급을 운영하시면서 00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더 신경이 쓰이시는지?
- 어떤 면이 신경이 쓰이시는지?
- 쓰이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3. 결과

- 00이의 학업성취 정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어떠한지?
- 특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과목?
- 00이의 성취가 낮다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그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 00이의 정체성은 어떤 것 같습니까? 조국과 한국에 대한 의식
- 지금도 여전히 00이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 언어? 정서? 대인관계? 학업성취도? 정체성?
- 그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 제도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 장애우나 생활보호 대상자 못지않게 이러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 우리나라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 구체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필요하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별도의 대안학교...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4. 가정배경에 대한 파악

- 가족 구성
- 부의 직업과 학력, 현재의 직업? 본국 직업?
- 모의 직업과 학력, 현재의 직업? 본국 직업?
- 부모의 국적
- 부모의 나이
- 자녀의 국적
- 거주지
- 가정의 분위기와 경제적 수준
- 외모가 두드러지는지
-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
- 현재의 경제적 수준
- 종교

5. 기타

- 추가 질문 다음에 전화로...
- 학생 부모 연락처 : 나중에 연결 부탁드립니다.
- 혹시 주위에 이주노동자 자녀인 청소년을 알고 계신지?
- 선생님의 연령과 교사(복지사) 경력
- 이전에 이주노동자 자녀 또는 외국국적의 아동을 가르치거나 접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부록 2] 이주노동자자녀관련 인터뷰²⁸⁾

인터뷰_1

- 일시 : 2007년 5월 9일
- 장소 : 경기도 수원
- 인터뷰 대상자 : 수원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및 이주사무국 상담소인 엠하우스와 수원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동시에 봉사를 하고 있다.

수원교구 내 사회복음화국 산하 이주사무국 상담소인 엠하우스와 수원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동시에 봉사를 하고 있다.

- 1-1.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 집 얻는 것에서 부터 인터넷 설치하는 것,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는 것 등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소를 많이 찾아요. 특히 한국어에 서툰 부모들은 아이들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주 우리 상담소를 찾아요.(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 1-2.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부모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한국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담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안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는 한국말로 교육을 받을 텐데, 우리가 말 붙여도 잘 안 해요. 엄마하고는 말리 말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있을 때 야단은 한국말로 치는데, 대화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외모나 인종적인 면에서 한국인들과 완전히 이질적이어서 그런지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필리핀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죠. 그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고, 이 아프리카 애도 유치원에 다니는데, 필리핀 친구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한테도 잘 안기고 그래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모가 한국에서의 대인관계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 1-3. 네팔에서 온 한 노동자 부부는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4살

28)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인터뷰 전체 내용 가운데, 부분적으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정도 되었는데, 집에서는 부모가 네팔말만 쓰니까 애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고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갈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서 학교에 바로 입학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육아가 힘들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계속 신경을 써야하니까 일에 방해된다는 거죠.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 하는 일들이 12시간 이상이고 야간업무도 주로 있으니 양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고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돈을 좀 더 벌어서 가겠다고 이야기 했어요.(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 1-4.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부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의 배려로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원비만 받고, 그 외 유치원에 들어가는 재료비, 간식비 같은 것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안 받는 것 같아요. 다른 화성에 있는 유치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만 특별히 원비만 받고, 그 외는 안 받는 걸로 들었어요.(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 1-5. 한국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노동자 부부가 있어요. 아이의 엄마가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아이는 한국말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개별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써주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니까 큰 문제없이 묻혀서 지내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아이들과 함께 교육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 아이 엄마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말썽이 있을 때 상담소 쪽으로 연락이 오곤 해요.(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 1-6. 지금 불법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미등록노동자라고 불러야 해요.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노동자일 뿐이거든요.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기여하는 숙련공인데, 그런 분들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 자녀국적의 문제를 인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서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키워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이주노동자 상담소 봉사자)

인터뷰 2

- 일시 : 2007년 5월 10일
- 장소 : 서울 광장동
- 인터뷰 대상자 : 00중학교(공립) 교사 2명(여)

00중학교는 공동체시범학교 일환으로 재한몽골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몽골출신의 학생들을 정식 입학시키고 있다. 이 학생들의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되고 졸업장을 받는다.

교사 1은 16년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어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담임학급에 몽골출신의 여학생 1명 있다. 이 학생은 재한몽골학교에서 2학년 때 전학 왔다. 교사 2는 음악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경력 26년에 현재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학급에 몽골출신의 남학생 1명 있다. 이 학생은 재한몽골학교에서 2학년 때 전학 왔다. 두 교사는 교직 경력에서 외국인 학생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2-1. 처음 담임 맡았을 때는 몽골학생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전학을 해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 몽골학생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담임이 이야기하는 전달과정을 풀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옆에 짝꿍이나 도우미학생을 뒤서 제가 개별적으로 도와주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교사 1)

2-2. 생각 외로 학생들이 몽골 아이들에 대하여서 우호적으로 도와줘요. 봉사활동이나 교외행사 같은 경우는 외국 아이들이 길을 몰라서 잘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차편 확인하여줘라, 만나서 같이 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도와줘요. 우선 외향적인 면에서 몽골아이들이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니까, 한국아이들이 전혀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몽골학생들이 워낙 착하고 성실해요.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교사 2)

2-3. 일상적인 학교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지만, 몽골 학생들이 학업적인 면은 확실히 떨어져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지필로 하는 경우

는 더 잘 안되죠.(교사 2)

2-4. 외국 학생들과 잘 어울리도록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협력관계를 맺어서 우리학교가 몽골학교하고 친선 농구대회 같은 것도 해요. 방학 때 몽골학생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몽골학생뿐만 아니라 협정을 맺어서 일본 애들, 미국인 애도 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학교에 다니는 한국 애들이 외국인들에 대하여서 우호적인 것 같아요. 애들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이 없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3학년들은 그런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잘 응했어요.(교사 2)

2-5. 몽골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한국 학교로 온 아이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습 면에서는 언어의 문제로 힘들어하죠. 아무리 한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더라도 외국어니까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좀 떨어지죠.(교사 2)

2-6. 외국인 학생들의 부모는 담임들이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통화는 두 번 했는데, 엄마랑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어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또 그 학부모들이 일용직으로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한테 문제가 생겨도 상담할 시간도 없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상황이죠.(교사 1)

2-7. 학교생활에서 몽골 아이들은 가끔씩 문화적인 차이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몽골 학생이 수두에 걸려서 결석을 하는 바람에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두니까 공결처리하기 위하여서 병원진단서가 필요했어요.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의사선생님한테 보이고 진단서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몽골학교 안에 재한 외국인을 관리하는 곳에서 어떤 여자 분이 전화 와서 진단서 받아 오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곳에 도움을 청했나 봐요. 몽골에서는 수두에 걸리면 병원에 안가고 자연치유를 집에서 기다리는 문화인데, 여기에서는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하니 까, 어머니가 병원에 안 가겠다고 그랬대요. 이렇게 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병원에 안 갈 거면, 결시처리를 위

하여서 서류는 필요하니까 재한 외국인, 몽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곳에서 서류를 대신 증명서를 받아와서 학교에서 처리를 해줬어요. 이런 식의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교사 1)

2-8. 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한 반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실제 몽골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몽골학생이 왕따를 당하거나, 제가 통제하기 힘들까봐 담임입장에서 걱정을 했죠.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 애들도 몽골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색함이 있기보다는 ‘몽골 애야, 몽골에서 온 애야’ 이런 정도의 인식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꾸준히 몽골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가 위치한) 이 지역에 몽골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한국 아이들의 몽골인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몽골인들이 거의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겨서일 수도 있고요.(교사 1)

2-9. 몽골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성적이 가장 낮았죠. 몽골 학교에서 아무리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해도, 여기 와서 직접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한 학기 동안은 성적이 거의 밑이구요. 서술형 문제는 아예 답안지를 못 쓰더라고요. 서술형 50점이 들어가는데, 답안을 백지로 냈더라고요.(교사 2)

2-10. 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을 함께 섞어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있어서 서로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은 세계화시대에 더 잘 적응해 있어요.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깨어있어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인식은 우리보다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교사 1)

2-11. 현재로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또는 방과 후에 외국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만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일부 과목에 대하여서 외국 아이들이 공부를 따라가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개별적으로 몽골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진행을 했거든요.(교사 1)

인터뷰_3

- 일시 : 2007년 5월 10일
- 장소 : 서울시 광장동
- 인터뷰 대상자 : 재한 몽골학교 한국인 교사 2명(여)

재한 몽골학교는 초등과 중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몽골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몽골정부가 외국에 세운 최초의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인 학교와 달리, 본국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 후원에 의지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학교로 인가받은 상태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법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총 학생 수는 약 60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급은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진은 몽골에서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국에서 채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인 교사는 총 8명이고,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담임도 맡고, 수업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몽골의 교육과정과 한국의 교육과정을 병행한다.

- 3-1. 한국에 일하러 온 몽골인들은 상당수가 한국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몽골 부모나 학생들을 입학 상담해 봐도 대부분 여기 머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도 잘 살고 기후 조건도 좋고, 살기도 좋아서 그런지 몽골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몇 년 돈 벌어서 돌아가겠다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불법 신분인 분들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교사)
- 3-2. 몽골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여기 남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입장은 부모들이 여기에서 돈 벌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몽골과 한국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몽골로 돌아가서 몽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몽골은 땅이 넓은데 인구가 워낙 적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 한국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국가적으로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몽골교육도 받고, 한국교육도 받아서 양국의 human bridge 역할을 담당하는 자녀로 성장해서 결국은 몽골을 위하여 일하는 몽골의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예요.(교사)

- 3-2. 현재 몽골학교에 있는 아이 중 한 명은 한국에 와서 한국유치원을 다니다가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5-6학년 되었는데 몽골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몽골로 가고 싶어서 (몽골학교로) 데리고 온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는 나이는 6학년인데, 못따라가니까 2학년에 다녀요. 여기에서는 몽골어를 전혀 못하니까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 아이처럼 몽골로 돌아갈 아이인데 못 돌아가고, 그렇다고 한국에 계속 있다고 한국인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교사)
- 3-3. 몽골 선생님 말을 잘 듣는데, 한국 선생님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일단 언어적으로 소통이 한계가 있으니까 교사나 학생이 서로 힘든 부분이 있고, 교실이 좁다보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업태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교사)
- 3-4. 우리(몽골학교)는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정체성이 있어야지 올바르게 성장하니까요.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한 학생들이나 잠깐이라도 여기를 다닌 아이들은 친정처럼 여기를 자주 와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 학교 다니는 것 보다 여기가 친정처럼 잘 해주고, 몽골인들을 위해서 한국 내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잘해주는 곳이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몽골학교를 거쳐 간 아이들과 한국 학교에 처음부터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정체성이나 적응에 있어서 몽골학교를 거쳐 간 아이들이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교사)
- 3-5. 몽골학교의 필요성도 바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한국 중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어떤 학생은 열등감이 강하고, 몽골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몽골아이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고, 여기는 몽골학교니까 오고 싶지 않고 그런 거죠.(교사)
- 3-6. 몽골학교에 대하여 제도권 안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청소년 위원회는 공모제에서 우리 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은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없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소위

계층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교부금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게 운영비의 일부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고, 교육감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교사)

3-7. 몽골(중)학교에서 1년에 8-9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가받기 전에는 졸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다니다가 몽골가게 되면 그냥 몽골학교 가고, 한국 학교가게 되면 그냥 거기로 가는 식이었어요. 인가를 받고 나서 올해 3회 졸업생을 배출할 거예요. 1-2회 졸업생의 경우에는 몽골로 돌아간 아이가 일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몽골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여기 학력이 인정이 되어서 바로 연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7월에 졸업하고 몽골에서 9월에 진학하게 돼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기서는 몽골의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으니까요, 몽골 가서 다시 적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받은 덕분에 빠르고 쉽게 적응을 해요. 그 외에 몽골교육과정으로 세계화 교육을 하거든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을 하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아이들이 매년 2-3명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 중학교에 편입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야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것도 안됐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교사)

3-8. 몽골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의 중학교로 편입학이 가능해요. 한국의 중학교에서 몽골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면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자격이 주어져요. 한국 중학교에서 몽골학생을 받을 때, 청강생이 아니라 정식 편입학생으로 받아주면,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한국 학교로 편입학은 법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2002년과 2003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교사)

3-9. 몽골아이들 중에서는 부모가 돈을 벌로 한국에 들어올 때 따라와서, 한국에 체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아이들의 엄마가 한국인과 재혼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순수한 몽골인이고, 몽골어가 훨씬 편하게 사용해요. 그런 아이들이 바로 한국 학교로 가지 못하고, 우리(몽골) 학교가 그런 아이들을 위

하여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국 학교를 빨리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 아이들은 비자가 있으니까 한국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이 가능해요. 그 아이들은 주로 7월에 졸업하고 후년 2월까지 방학을 이용해서 학원에 다니고, 적응기간을 두다가 3월에 정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죠.(교사)

3-10. 몽골학교와 같은 제3국 아이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가 필요해요. 한국에서나 고국에서 학력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최소한의 적응은 원활하게 해주는 학교는 있어야 해요. 몽골 부모들이 보면 자신들은 몽골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가 몽골 가서 살 걱정을 해요. 아이들은 몽골인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어는 조금 하는데, 몽골 글자는 전혀 쓰질 못해요. 한국어도 잘 쓰질 못해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부모가 대충 가르치거나 무조건 한국 아이들 속에서 그냥 배우게 되니까요. 자식이 몽골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상황에서 고국은 돌아가야 하고... 이런 면에서 몽골학교와 같은 제도권 안의 학교나 교육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여러 모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교사)

3-11. 우리 몽골학교가 100%로 몽골아이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로 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요. 잘 사는 나라 학교랑 몽골같이 힘들 학교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본래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이 직접 와서 세워야 하는데, 몽골 학교는 한국인이 대신 세워준 것이잖아요. 그냥 외국인 학교니까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불쌍한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애들에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미 우리나라 국익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요. 몽골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면 꼭 여길 방문한다고요. 그 나라 2세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곳이잖아요.(교사)

인터뷰_4

- 일시 : 2007년 5월 10일
- 장소 : 서울시 광장동
- 인터뷰 대상자 : 00중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학생 2명

인터뷰 대상자들은 재한 몽골학교를 졸업하고 공립 중학교로 편입학을 한 2명의 몽골학생이다. 학생 1인 남자로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한국에 체류한지 3년 정도 되었으며, 부모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12살 때 뒤따라오게 되었다. 몽골에서는 조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현재 부는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모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거주지는 하남시이다. 한국에 온 이후로 한국의 초등학교를 2-3개월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 2는 여자로 17세이다. 2005년에 한국에 들어와 2년 정도 체류 중이다. 한국에서는 부모와 몽골학교에 다니는 동생 1명과 살고 있다. 부모가 1996년쯤 한국에 들어왔다. 2005년 10월부터 몽골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하고 00중학교로 편입하였다.

- 4-1. (한국) 애들하고 지내는 것은 좋은데,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 가지고요. 공부가 잘 안 되어요.(학생 2)
- 4-2. 한자와 영어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국어와 국사 같은 것도 힘들고요.(학생 2)
- 4-3.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으면, 여기서(한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공부를 더 잘해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학생 1)
- 4-4. 처음 한국 학교에 다니게 됐을 때 한국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지내가지고 놀리는 애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이상한 말을 시키고요, 저는 모르는 건데 개네들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까 애들이 웃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알아요.(학생 1)
- 4-5. 언젠가는 몽골로 돌아가야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이기

도 하고, 몽골로 가고 싶어요.(학생 2)

4-6. 비자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버스카드나 할인되는 청소년카드 같은 것 못 사요. 지금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요.(학생 1)

4-7. (한국) 학교에서 몽골의 역사나 문화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별활동시간에 하긴 했는데, 우리 후배 몽골학생들한테는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남아서 공부 가르쳐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학생 1)

4-8. (한국에서) 학원도 다녀봤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학원에서 한 70% 정도는 알아들어요. 쓰기는 좀 힘들어요. 쓰는 것은 느려요. 요즘은 모르는 것을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잘 가르쳐줘요.(학생 1)

4-9.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배워요. 대학생들이 한국말로 수학, 영어, 국어 가르쳐줘요. 몽골말고도 중국, 필리핀 애들도 있어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도움이 되요.(학생 2)

인터뷰_5

- 일시 : 2007년 5월 11일
- 장소 : 경기도 안산
- 인터뷰 대상자 : 00어린이집 원장수녀님

00어린이집은 현재 3명의 이주노동자 자녀를 돌보고 있다. 이곳은 6000천명 이상의 신도가 있는 성당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6000천명의 신도 가운데 1000명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어린이집이 생긴 지는 3년이 되었다. 한국 아이들은 종일반이 월 25만원인데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월 15만원을 받고 돌봐주고 있다. 00어린이집의 원장수녀님은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였는데, 유아 교사 경력은 20년이다.

5-1. 한국의 제도상으로는 이주노동자 어린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니까요. 저 아이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 엄마, 아빠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들이 4-5세가 되도록 컸고,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은 일을 하고 있어서 육아를 하지 못하니까 봐줄 곳이 필요해요. 애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필리핀신부님한테 우리 아이를 한국 아이들하고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현재 받아 준 아이가 3명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가정보육학원이니까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5-6살이 되면 정식유치원이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하는데 거기에서 재네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고요. 재네들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5-6살이라고 해도 노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한국 애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한국 애들과 구별이 안 되어요. 우리가 5-6살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요. 지금 갈릴레이 어린이반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기들을 봐준다고는 하지만 3살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와야 해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5-2. 필리핀아이들이 한국과 문화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3-4살 그 나이는 어느 나라든지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나이잖아요. 나라에 상관없이, 그 나이는 한국말을 가르치면 한국말

하고, 손으로 먹게 하면 손으로 먹고, 숟가락으로 먹게 하면 숟가락으로 먹는 시기라서요, 가르치기 힘들거나 발달이 늦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한국 아이들과 똑 같아요. 또 엄마도 한국말을 잘하고, 아이도 잘 하는 경우는 더 어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이 참 잘 따라와요. (어린이집 원장수녀님)

5-3. 여기 안산시에 있는 어머니들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한국 아이들과 외국인 아이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깐 외국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 엄마들이 교우들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외국인 아이들이 필리핀인인데,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이니깐요. 또 베트남 아이도 있는데, 고국에서 가톨릭을 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거부감은 없어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5-4. 필리핀 아이들 둘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따갈로어로 말할 때는 우리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 엄마랑은 짧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요. 가끔 한국말을 잘하는 엄마들도 있죠.(어린이집 원장수녀님)

5-5. 대부분 (외국인) 엄마들이 초등학교 정도는 여기에서 다녀야죠, 그래요. 초등학교는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불법인 상태에서) 초등학교 이후에는 교육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교육은 고국에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한국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또래가 가장 많아요. 외국 엄마들이 모일 때, 아이들도 같이 모이게 되는데 불법체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형성해서 한국 아이들한테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산 같은 경우, 결혼한 불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뭉치거나 그 자녀들이 뭉쳐서 일을 벌이게 되면 한국인들이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꼭 폭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한국인들이 당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이 정말 필요해요. 어른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죠.(어린이집 원장수녀님)

- 5-6. 외국인 아이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 중에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 있어요. 밖에서는 한국식으로 살지만, 집에서는 필리핀 식으로 살지요.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초등학교까지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개네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어릴 때 고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3-4년전 만 해도 외국 엄마들은 한국에서 자녀교육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자녀를 고국으로 보냈어요. 여기서도 교육비만 보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교육이 된다고 하니깐 여기 그냥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 5-7. 자녀를 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 애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한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해요.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알아야지, 교육의 문을 다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자녀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나라의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커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 5-8. 아이들끼리는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섞어서 하거나 분리시키거나 상관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아이들을 섞어서 교육시켜야 해요. 그 아이들이(외국인 아이들) 한국에서 살 것 생각하면 꼭 섞어서 교육시켜야죠. 특히 유아교육 시기에 따로 분리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교사나 환경이 한국식인데 따로 분리해서 필리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필리핀 교육을 시키지 못할 거면 함께 섞어서 배우게 해야죠.(어린이집 원장수녀님)
- 5-9. 외국인 노동자 부모들의 모임이 많기 때문의 아이들도 그 모임에 따라 집단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동향의 엄마들끼리 모여서 소소한 행사들을 많이 해요. 공원이나 도로변, 빌라 놀이터 같은데 모

여서 고기 먹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럴 때보면 주변에 다 그 자녀들이죠. 큰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또래의 아이들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뭉치고 그래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5-10. 아무리 한국에서 자란다지만, 부모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놀이문화가 있나 봐요. 노는 방법이 유아기를 거치면 한국 아이들과 필리핀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필리핀 아이들은 밥을 누워서 먹는 경향이 있고, 손으로 먹고 그래요. 한국에서 계속 교육받으면 그런 사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그저 지나가는 단계에 불과하게 되겠지만,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려면 그런 방식이 그 아이들에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뭐가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5-11. 필리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요. 애들은 모이면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장난감이라 이런 것들로 생기는 다툼은 어른들 말을 따르기 때문에, 금세 풀어지고 다시 잘 어울리고 그래요. 유아들은 서로 문제가 없고, 잘 지내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잘 어울려서 길러지면 똑 같은 아이라 생각하게 되고 큰 문제가 없는데, 갈라서 자라게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해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5-12. 불법체류자 엄마들이 이렇게 외국에 와서 아기를 낳고 3-4살 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자 이런 곳(한국의 유아교육기관)을 보내는 엄마, 아빠들은,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엘리트였어요. 교육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도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교육에 관심도 없고, 아기를 낳자마자 필리핀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데리고 있어도 다른 일을 못하는 같은 동포들에게 맡겨놓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안 보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과 비슷해요. 애기를 가진 엄마들의 마음이나, 아기들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비슷할 것 같아요. 아이가 크거나, 교육에 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어린이집 원장수녀님)

인터뷰_6

- 일시 : 2007년 5월 15일
- 장소 : 경기도 안산
- 인터뷰 대상자 : 몽골인 어머니와 자녀(남)

아버지는 몽골로 돌아가고 어머니와 아들만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로, 어머니 2000년 한국에 입국하여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였다. 그 아들은 현재 18세로 2005년 입국하여 아버지와 3개월 함께 살다가 아버지는 몽골로 돌아갔다. 아들은 2005년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몽골학교를 다녔다(4월-9월).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한국어에 서툴고, 특히 아들이 한국어 소통이 힘든 상황이다.

- 6-1.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데, 비자 없이 불법체류니까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몽골 학교는 조금 다녔는데 졸업할 나이라 3개월 조금 더 다니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다닐 나이에 공부 안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안 좋아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와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 학부모)
- 6-2. 요즘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집에서 TV보고 컴퓨터하고, 밥 먹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아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몽골 아이)
- 6-3. (몽골) 친구들은 많아요. 10명 넘어요. 자주 만나는 친구는 2명 있어요. 한 명은 영어 학원 다니고, 한 명은 일해요. 그런데 멀리 살아요. 친구들은 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자주 못 봐요. 일요일에 조금 봐요.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몽골 아이)
- 6-4. 여기서 한국어 잘 배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몽골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들이 여기서 적응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와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 학부모)

- 6-5.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싶어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몽골 아이)
- 6-6. 지금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아들 공부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 걱정이예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와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 학부모)
- 6-7. 나는 한국에 있는지 7년 됐는데, 한국어 배운지는 얼마 안 됐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한국말을 잘해서 나는 안 배웠는데, 남편이 몽골로 돌아가니까 내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와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 학부모)
- 6-8. 한국에서 우리 아들한테 한국어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돈 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와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 학부모)

인터뷰_7

- 일시 : 2007년 5월 18일
- 장소 : 경기도 안산
- 인터뷰 대상자 :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신부님

7-1. 외국인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곳에 있는 학교에는 인종적으로 또래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고국, 고향, 마을, 가족 같은 단위로 굉장히 잘 모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대로 어른들의 성향을 이어받죠. 그러나 한국에 거의 동화될 가능성을 가진 성향의 민족도 있어요. 베트남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한국인 신부).

7-2. 이주노동자들은 우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경우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 벌어서 고국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 벌어서 필리핀으로 보내도 거기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으니까 저축도 못하고, 남는 것도 없지만 거기 쉽게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영어가 우선 되고, 돈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니까 한국어에 관심이 없어요(한국인 신부).

인터뷰_8

- 일시 : 2007년 5월 18일
- 장소 : 경기도 안산
- 인터뷰 대상자 : 안산 00초등학교 교사

면담 대상자는 12명의 7개국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의 담임을 맡은 교사이다. 이 특별학급의 학생들은 한시적으로 합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이다. 교사는 안산에서 10년 정도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다.

- 8-1. 불법체류의 신분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부담되고 불안해요. 애들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요. 학교 등하교하는 것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요. 다만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교 제적 수에 포함에 되어서 정원 내에서 관리되면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어서 좋아요.(교사)
- 8-2. 학교에서 외국 아이들을 위한 특별학급이 개설되었을 때, 외국인들에게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불법체류자들과 그 자녀들은 문의만 하지 불안해서 결국 학교에 보내지 못해요. 몽골이나 중국과 같이 한국인과 생김새가 비슷하면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데,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시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가 다르니까 등하교 길에서 2개월 단위로 검문이 있으니까 잡혀서 강제출국 될까봐 학교에 오지 못하는 거죠.(교사)
- 8-3. 신변불안을 느끼는 것도 불법체류자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학비와 급식비 등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되어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교사)
- 8-4. 불법체류 외국인들 자녀를 위한 한시적인 구제조치가 생겨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강제출국이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이나 위치가 노출되는 신변불안을 더 느끼게 된 점도 있어요. 이런 것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교사)

- 8-5.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사실 아이들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거부를 하니까 자신들을 받아주는 학교로 찾아오는 거예요. 거리는 먼데, 다들 와요. 아이들의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일단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는 그 것 때문에 아이들의 입학울 거부하고, 합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한국아이들과의 적응문제 때문에 입학울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교사)
- 8-6. 외국 아이들을 한국아이들의 학급에 온종일 넣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나 한국 학교 적응을 필요로 하는 초기에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이 효과적이긴 한데, 외국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다고 특별학급으로 외국 아이들을 따로 떨어뜨려놓으면 다음 날 일반 학급에 가서 섞이질 못해요. 이런 걸 보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교사)
- 8-7.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운영상, 외국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과 적응상태에 따라 분리해서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요. 물론 외국 아이들을 분리해서 가르치면 그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겠지만, 일반 학급에 넣는 것과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시간포나 교과서, 교사인력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교사)
- 8-8. 외국인 부모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6-7년 뒤에 자녀들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안 되고, 부모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또 아이들은 한국어를 굉장히 쉽게 습득하는 반면에, 부모들은 한국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 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안 돼요.(교사)
- 8-9. 이 아이들이 모국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어를 어눌하게라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모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어도 완전하게 못하고, 모국어도 못하면 어떻게 할 지 걱정이 되죠.(교사)

- 8-10.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한국 아이들에게 여전히 뿌리 박혀있어요. 그런 인식에서 안산에 사는 외국인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 외국인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다 교육의 문제인 것이죠.(교사)
- 8-11. 지역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급에 따라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학급에서 교사들이 부모나 친척들이 못해주는 부분에서 이 아이들을 보듬어 주고, 관심을 기울이면 이 아이들의 한국 적응과 성장에 유용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일반 학급에서의 생활과 병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교사)
- 8-12. 역사나 문화, 사회에 대한 교과내용을 일반학급에서 외국인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힘들어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 모두를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난감해하거나, 힘들어해요.(교사)
- 8-13. 외국인 아이들한테 너무 분리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인들은 싫어해요. 그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로 이들을 보기 보다는 그냥 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봐주는 시각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리고 교육과 관리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의 교육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저 방치되는 거죠.(교사)

인터뷰_9

- 일시 : 2007년 5월 18일
- 장소 : 경기도 안산
- 인터뷰 대상자 : 안산에서 활동하는 필리핀인 신부님

9-1. 국제결혼으로 인한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것은 보장이 되는데, 불법 체류자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한시적인 조치로 불법체류자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도 그 신고기간 당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신고를 못한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자녀는 현재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요.(안산 지역에서 봉사하는 필리핀신부님)

9-2.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를 한국에서 낳아서 필리핀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교육시킬 때 드는 돈 때문에 고국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고국으로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국에 자신의 자녀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안산 지역에서 봉사하는 필리핀신부님)

9-3. 필리핀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언어 때문에 혼돈스러워 해요. 집에서는 모국어, 밖에서는 한국어를 쓰니까 혼란스러워 해요. 특히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보다 한국말을 잘하고, 따갈로어보다 한국어가 익숙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혼란스러워 해요.(안산 지역에서 봉사하는 필리핀신부님)

9-4. 이 지역의 필리핀 이주노동자들 중 한 80%는 한국에서 낳은 자녀를 고국으로 보내요. 그리고 한 20%는 자신들이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한 자녀와 함께 여기서 지내려고 해요. 유치원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도 아이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안산 지역에서 봉사하는 필리핀신부님)

- 9-5. 한국 아이들과 필리핀 아이들을 함께 생활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필리핀 아이들은 영어, 따갈로어, 한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교류가 많아지고 문화적으로도 두 나라 아이들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이런 교육에 대하여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나라의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에서 시작하면 나아가 국제학교까지 만들 수 있어요.(안산 지역에서 봉사하는 필리핀신부님)
- 9-6.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과 피부색, 생김새가 다르니까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어렸을 때부터 두 나라 아이들이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히 필리핀 아이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적응하면, 그 아이들은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 따갈로어,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안산 지역에서 봉사하는 필리핀신부님)

인터뷰_10

- 일시 : 2007년 6월 1일
- 장소 : 서울시 광장동
- 인터뷰 대상자 : 재한 몽골학교 학생 2명(여)

학생 1은 15세로 현재 재한 몽골학교에 재학 중이다. 2002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5년째 체류하고 있다. 00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전학 왔다. 현재 한국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몽골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다. 어머니는 몽골에서 유치원교사를 했고, 한국에서는 공장에 다니고 있다. 한국어에 매우 능숙하다.

학생 2는 10세로 2006년 5월에 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한 지 1년 되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은 아직 미흡하다.

- 10-1. 한국은 친구도 없고, 한국 밥이 싫어서 몽골로 돌아가고 싶어요.(몽골학교 학생 2)
- 10-2. 한국에서 몽골학교 다니기 전에 2년 정도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담임선생님이 비자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비자 없으니까 무서워서 학교를 그만 뒀어요. 그래서 몽골학교로 왔어요.(학생 1)
- 10-3. 한국에 와서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친구들을 만들긴 했는데, 별로 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나이보다 2-3세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반에 들어가서 학교를 같이 다닐 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저는 몽골학교를 다니니까 그냥 가끔 연락정도만 해요.(학생 1)
- 10-4. 아직 몽골로 돌아가고 싶은지,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몽골로 가고 싶은 때는 거기가 그리고, 친구들도 보고 싶을 때이고요.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을 때는 여기에 적응이 되어서 여기가 좋다고 생각할 때예요. 고등학교는 여기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불법이라도 고등학교 다닐 수 있으면 여기서 다니고 싶어요.(학생 1)
- 10-5. 엄마는 한국에서 공장에 다니는 게 힘들지만, 저 때문에 계속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학생 1)

인터뷰_11

- 일시 : 2007년 6월 13일
- 장소 : 경기도 안산
- 인터뷰 대상자 : 안산 00초등학교 교사

인터뷰_8의 대상자와 동일함.

- 11-1. 금년(2007년)부터 졸업장을 줄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졸업장을 줄 근거가 없어서 수료증을 줬거든요. 올해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 학교장 재량으로 졸업장을 주기로 했어요. 수업을 못 따라가는 외국 학생들의 경우는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추어서 졸업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어떤 외국 아이들은 부진한 한국 아이들을 단기간에 따라잡았어요. 그런 졸업자격이 충분한 아이들이 졸업장이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졸업장을 주는 걸로 되었죠.(초등학교 교사)
- 11-2. 학교에 따라 외국 아이들이 학교 제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특별)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학교 제적 수에 포함이 되죠. 일반 학급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제적에 포함되기도, 아니면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졸업장을 못 주니까요.(초등학교 교사)
- 11-3.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입학시키고 정식 학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정원 내로 관리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니까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듯해요. 사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이 확실한 학습동기가 유발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출석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학년을 올려줄 때나 졸업장을 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정원 외로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초등학교 교사)
- 11-4. 정원 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관리되면,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상이 되는데 정원 외에서 관리되면 사고 났을 경우에도 전

혀 보상이 안 되어요. 그런데도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학교장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들을 정원 내로 관리하려고 하질 않죠.(초등학교 교사)

11-5. 교장선생님이 외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제안을 하세요. 외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상담프로그램이에요. 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연계가 잘 안되니까 생활지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생활지도를 위한 상담사가 있어도 외국어 소통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상담사가 있어도 소용없지 않나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초등학교 교사)

11-6.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행동에서 자제가 안 되어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굳이 문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는 상황도 외국 아이들의 경우는 폭력사태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이 많은 안산은 학교나 학교 밖에서 그 아이들이 폭력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학급담임이 학생을 쪽 담당하는 초등학교는 덜 한데, 중학교에 가서 다소 교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초등학교 교사)

11-7.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아이들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 연령에 맞는 학년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과 학제가 다르다는 것이예요. 이 문제들 때문에 15-16세 되는 외국 아이들을 몇 달 간 방치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한국어 구사는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보다 못하지만 정신연령은 다 성장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중학생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초등학교 교사)

11-8. 아이들한테는 또래집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하는 야영이나 놀이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 직접 부대끼니까 아이들한테는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초등학교 교사)

- 11-9. 한국사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외국 아이들을 홍보나 기사거리로 여기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 아이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식의 접근을 굉장히 싫어하죠. 외국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시선으로 일상적인 도움을 주거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에요.(초등학교 교사)
- 11-10. 학습적인 측면에서 한국 학교에 다니는 외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1:1 개별지도 학습이에요. 이를 위하여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외국 아이들이 12명이면, 학습지도를 위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12명이 필요해요. 지난번에는 가정주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 봤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이 분들보다 대학생이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외국 아이들과 소통이 더 원활하거든요. 또 아이들과 나이차도 적으니까 아이들이 더 잘 따라요. 마음도 쉽게, 그리고 더 빨리 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교사)
- 11-11. 다른 외국 아이들에 비해서 몽골학생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한국에서 충격을 겪고 있어요. 몽골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적응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요. 이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시급한 실정이에요.(초등학교 교사)
- 11-12.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아이들을 1년 이상 가르쳐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역사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뿌리를 찾는 고국의 역사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도 가르쳐야 해요.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서 철실하게 역사 공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초등학교 교사)

[부록 3] 국제결혼자녀관련 인터뷰

인터뷰_1

- 일시 : 2007년 3월 28일
- 장소 : 충북 보은
- 인터뷰 대상자 : 박○○(여 · 중국 조선족)

중국 장춘시 태생인 박○○씨는 93년 중국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던 중 중국관광을 온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94년 결혼해 충북 보은으로 이주해왔다. 인터뷰 현재 보은 속리산 부근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통역가이드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박○○씨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에 이주해 온 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족으로 살아오면서 사용해 왔던 언어가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 한국말을 이해하는데 처음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또한 중국에 두고 온 부모님과 친인척들이 보고 싶어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편견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중국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왜 왔나”며 색안경을 끼고 저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몇몇 동네 사람들은 “저 집 머리는 1,200만원을 주고 데려 왔다더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집에 있는 소를 다 팔았다더라” 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늘어놓기도 하죠. 농촌총각들이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여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보니 결혼이민자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결혼이민자가 사회생활을 해 돈을 벌면 전부 친정에 다 갖다 바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 비교적 오래 한국사회에 머물면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신랑도움과 뒷바라지가 무척 컸습니다. 또한 신랑 친구의 아내들도 저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한 가정의 아내로 무척 잘 대하여줬습니다. 한국사회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하여 남편은 읍내 장보러 갈 때 늘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한 청주나 수안보 등 시외지역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보은 근처 지역현황을 저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다른 결혼이민자들의 남편과 달리 저희 남편은 모임에 저를 자

주 데리고 나가 자연스럽게 제가 사람을 많이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사실, 많은 이주여성들이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랑들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이주해 올 때는 신랑만 전적으로 믿고 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하여서는 신랑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녀의 한국어교육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저는 무조건 비싼 학원에 보내 한국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낮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사설학원에 보내는 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 많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말도 느린 편이고 이해력도 낮은 실정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집안에 갇혀 살다보니 자녀들의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경우가 많죠. 또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자녀도 많습니다. 경제력이 열악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학 전 6~7세의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곳도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박○○씨는 향후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참여확대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를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2

- 일시 : 2007년 5월 20일
- 장소 : 충북○○여성인권센터
- 인터뷰 대상자 : 김○○(여· 말레이시아) · 오○○(남, 중3)

김○○씨는 1988년 말레이시아에서 당시 대우건설회사에 다녔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1989년 한국에 왔다. 슬하에 2남(고3과 중3)을 두고 있으며 가정주부다.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나라 국적을 바로 취득하였다.

- 한국에 이주해 온 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나?

(어머니) 언어와 문화가 달라 많이 힘들었다. 특히 한국의 기후가 말레이시아와 많이 다르고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 매우 힘들었다. 처음에 왔을 때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때는 지금처럼 결혼이민자들을 돌봐 줄 센터도 없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큰 어려움은 없다. TV도 많이 보고 동네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한국말을 많이 배웠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다지 외롭지 않다.

- 한글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 한국어 쓰기가 잘 안 되어 공부를 하려고 하던 참에 KBS에 출연한 인연으로 알게 된 담당 PD가 거주지와 가까운 충북○○여성인권센터를 추천해 이곳에 오게 됐다. 올 3월부터 한글교실에 참여해 한글쓰기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 한글교실 외에 컴퓨터 교실, 다문화강사양성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 어떻게 아들에게 한글교육을 시켰으며 집에서 아들과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

(어머니) 애들의 경우 한글은 유치원에서 배우거나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웠다. 집에서 대화할 때는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 큰 아이는 말레이시아어에 관심이 많아 가끔씩 말레이시아어를 사용하곤 한다.

- 자녀의 학습지도는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 주로 학원에 많이 의존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원에 보냈다.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반에서 2-3등)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없다.

- 학원을 많이 보내게 된 계기는?

(어머니) 남편은 학원 보내는 걸 반대했지만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얘기하다 보니 너도나도 학원을 보내 우리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말레이시아에는 학원이 거의 없어 학생들이 오후 5시쯤 집에 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 얼마나 자주 고향인 말레이시아에 가는가?

(어머니) 2-3년에 한번 가량 갔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커서 자주 못가는 편이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족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아들이 컴퓨터 채팅을 가르쳐 줘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고 있다.

-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머니) 근처 노인 회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밥도 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 덕분인지 최근에 부녀회장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 학교생활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나?

(아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멸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 애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 혼혈아인지 잘 모른다. 설사 친구들이 내가 혼혈아인지 알더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먼저 나서서 친구가 되자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가끔씩 '안녕하세요?'가 말레이시아 말로 뭐냐며 묻는 친구들이 있곤 하지만 가벼운 인사치레 정도다.

- 친한 친구들은 몇 명쯤 되나?

(아들) 초등학교 때는 소극적 성격이어서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성격이 활발한 형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친구들이 많은 편이다.

- 방과 후에는 무슨 일을 하나?

(아들) 주로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원은 한군데 다니는데 국영수 종합반에 다니고 있다.

- 학교 측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 지도를 별도로 하는가?

(아들)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단지 다문화관련 지역행사가 있으면 방송을 통하여 혼혈아인 사람들을 교무실로 모이게 한 뒤 행사를 공지한다. 가끔 방송을 못 들으면 친구들이 교무실에 가보라고 이야기 할 정도다. 담임선생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여 준다.

- 종교는?

(아들) 부모가 이슬람교를 믿어 형과 함께 이슬람교 신자가 됐다. 이슬람사원을 몇 차례 찾아 간 적이 있다.

인터뷰_3

- 일시 : 2007년 5월 30일
- 장소 : 00초등학교
- 인터뷰 대상자 : 리00(여·일본) 와 딸(초등학교 5학년)

1993년 한국에 온 00씨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현재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에 이주해 온 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나?

한국과 일본의 생활습관이 많이 달라 힘들었다. 예를 들어, 빨래나 요리하는 방법 등이 한국과 일본은 조금씩 다르다. 또한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속하기가 어렵다. 한국인과 친해지고 싶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늘도 바자회를 했는데 학교에서 시간이 되는 분은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직접 나서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외국인 엄마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인 엄마와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 근처 일본 엄마와 자주 어울리고 있다. 하지만 막내 아이 유치원이 인연이 되어 최근에 친한 한국인이 생겼다.

- 귀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지금은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일본에 갈 일이 자주 있는데 매번 비자를 받으려니 번거로웠다. 그리고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자녀 한 명 당 매달 얼마씩 지원을 받는다. 나이가 들면 귀화를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 한글은 어떻게 배웠나?

TV 드라마를 통하여 따라하면서 많이 배웠다. 가끔씩 남편이 가르쳐줬다.

- 자녀의 한글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언젠가 큰 아이가 “엄마 왜 일본어 해?”하며 일본어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어서인지 이때부터 일본어 가르치는 걸 중단하였다. 그래서 7살 때부터 한글공부를 시작하였다. 늦게 한글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받아쓰기 점수가 낮아 고생을 많이 하였다.

- 자녀의 학습지도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목은 내용이 어려워서 사실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기가 힘들다. 주로 동아전과와 같은 참고서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은?

원어민 영어교육과 주산배우기를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뭘 하면 좋겠느냐고 학교 측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영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자녀 교육 방식의 차이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일본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일본은 방과 후에 운동 중심의 클럽활동을 많이 한다. 한국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고 들었다.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아는 일본인 엄마는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일본에서는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돕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 학교행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

방과 후 프로그램 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예전에 둘째 아이 담임선생님이 소개를 해줘서 참여하게 됐다. 청소도 하고 급식도 하면서 학교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한국 어머니들은 적극적인 반면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나서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들이 모이면 주로 한국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시켜주면 우리도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

이 학교에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많아 다른 학교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방학 때 영어캠프도 무료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각종 다문화관련 행사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 학교 측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

- 남편 가족들과의 관계는?

시아머니가 치매에 걸려 뒷바라지 하느라 어려운 점이 많다. 일본처럼 치매 노인들을 지원해 줄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처에 고모가 사는데 매일 같이 집에 들러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앞으로 이뤄져야 하나?

예전에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경복궁, 남산, 한강 등지를 데리고 다녀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여기 10년 이상 살았지만 한국사회의 역사를 잘 모른다. 따라서 문화나 역사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한 적이 있는가?

(딸) 거의 없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놀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요즘 사회과목 시간에 임진왜란을 배우고 있는데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면 약간 속상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

- 자신의 정체성은?

(딸) 물론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다. 요컨대 일본 전통 옷이나 음식에 대하여 무척 알고 싶고 일본어도 배우고 싶다.

인터뷰_4

- 일시 : 2007년 6월 5일
- 장소 : 00역
- 인터뷰 대상자 : 준00 (아·일본)와 딸(중학교 2학년)

- 한국에 언제 왔나요?

(어머니) 1988년도에 한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결혼하고 다시 일본에 가서 자녀를 낳고 00이가 6살 때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병하러 일본에 가서 애를 낳고 키웠어요. 그러다가 00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했는데 결국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와서 유치원을 1년 동안 다니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현재 00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 한국에 와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어머니) 외국인이라는 게 힘들었어요. 남편이 일본에 가 있고, 집 주소도 일본으로 되어 있었을 때, 00를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하여서 동사무소에 갔었어요. 그때 저희는 할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소가 일본이기 때문에 입학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그리고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 등 혜택을 못 받았던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때보다 훨씬 나아진 했지만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개방적이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옆집에서 고추장을 받기도 하고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계속 친한 것 같아요. 처음엔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생할 때 한국음식에 적응했었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힘든 것도 없었어요.

- 귀화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머니) 가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다시 일본에 돌아가고 싶지만, 00가 일본에서 6살 때 00가 사용했던 일본어를 한국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한국으로 왔을 때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동생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애가 일본에 가게 된다면 00이가 겪었던 혼란을 또 겪을 것 같아서 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00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일본어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살 때까지는 일본어를 쓰다가 한국에 와서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일본어와 함께 쓰면 한 가지 언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2, 3년 정도 하니까 한국어에 익숙해져서 저한테 오히려 발음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 한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머니) 관광학과였는데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와서 유학생생활을 해서 한국어를 조금 하니깐 쓰거나 말하거나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발음을 하거나 맞춤법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들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아들의 이름조차도 말하면 여러 번 말해야 유치원 선생님이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글쓰기는 빨리 쓰면 맞춤법이 많이 틀려요. 그래도 다른 일본인 어머니들 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은 10년 동안 한국에 살아도 신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들 있어요. 그래서 발음교정과 빨리 쓰는 것을 배우는 교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 자녀의 한글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안 시켰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국어를 다 알고 간다고 들긴 들었는데 너무 시키면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본의 학교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의 학교도 알아서 잘 해줄 꺼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우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한국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후회스러워요. 그때 조금 더 많이 했었다면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배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리 공부해 놓지 않으면 계속 뒤처지니까요. (딸) 일본에 보내주면 되지...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받아쓰기 정도를 해줬어요.

(연구자) 가정통신문 같은 게 오면 이해를 하셨는지요?

(어머니) 이해를 못해서 가까운 문방구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어요.

- 자녀의 학습은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어머니) 해봤는데, 잘 안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4학년 때 학원에 보냈어요. 학원에 보냈을 때 일시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었다가 남편만 일을 해서(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만두고 나서는 성적이 다시 떨어졌어요. 혼자 공부하는 안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국어 점수는 어때요? (딸) 국어 점수가 제일 좋아요. 맞춤법이나 쓰는 것은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은?

(딸) 컴퓨터만해요. 인터넷으로 소설을 주로 보고, 펜팔도 주고받아요. 게임은 안해요. 주로 한국인들인데 일본인도 있었는데 일본어로 편지 쓰면 엄마한테 갖고 가서 보여주고 보내요.

(어머니) 한국은 성적위주인데 학원을 안 보내면 집에서 뒹굴 거려서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보내려고 하면 돈이 들고 너무 늦게 끝나서 걱정이 되요.

- 학교행사에 얼마나 참여합니까?

(어머니) 90%이상 참여해요.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참여를 많이 해요. 개별적으로 담임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힘들어서 그런 행사에 안 가면 선생님을 볼 기회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행사에 참여했는데 어머니가 네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담임선생님과 주로 어떤 말을 나누나요?

(어머니) oo이가 겪는 어려움과 방안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요. 주로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oo이가 성적이 중간에서 못 미쳐서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운동이나 다른 것으로 시키면 공부를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 한국과 일본의 자녀 교육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차이점은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는 공부 이외의 것을 많이 해요. 중학교는 오후 3시쯤에 끝나고 그룹 활동을 해요. 거의 70%가 운동을 하고 30%는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요. 이 나이에는 운동 같은 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는 운동을 시키려고 해도 태권도만 있고, 시키려고 해도 돈이 들어요. 저는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오로지 공부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공부 잘하면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일본은 공부를 못해도 만화를 잘 그리거나 하면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 학교 측으로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머니) 지원 받는 것은 없어요.

-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따돌림 받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딸) 없어요. 친구들이 거의 어머니가 일본인이어서 학교 다니면서 어려웠던 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어서간에 조금 더 알려달라고 하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어서 놀랜 친구는 있었지만 따돌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여중이라 남녀공학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학교에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같은 반은 아니고, 2명은 엄마가 일본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아빠가 일본인 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쪽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같은 반에도 함께 다니는 친구가 5명이 있고 밥을 같이 먹는 친구는 2명이 있어요.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때 TV보다가 혼혈인이 나왔는데, oo가 저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oo가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름도 한국인 이름이고, 외모 상으로도 차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 본인의 정체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딸) 일본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가 지난번에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천국인(어느 나라에도 다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한국이든, 일본이든 관계없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 일본에 있으면 일본인으로 생각하라고 말 했던 적이 있어요.

(연구자) 그런 말을 듣고 oo는 기분이 어땠어요?

(딸)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초등학교 다닐 때에 oo이가 역사시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대한 나쁜 이미지에 대해 저한테는 미안해서 말 못하고 아빠한테 가서 이런 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었어요.

(딸) 그런 얘기하면 학교에서 저를 쳐다보는 애들도 있어요.

(연구자) 그럼 기분이 어때요?

(딸) 그냥 그래요.

-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한국어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는 수준에 맞춰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배운 한국어가 이상할 수도 있으니,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한국인 엄마들을 잘 몰라서 학교 분위기나 정책 등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국인 엄마들을 잘 알면 정보를 알 수 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먼저 한국에 온 외국인 어머니와의 모임이 많아져서 제가 한국에 와서 몰랐고 깨달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oo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엄마들하고 교류가 잘 되지 않아요. 엄마들이 자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발음이나 받아쓰기를 배우고 싶어요.

(딸) 일본처럼, 학교에서 무료로 음악이나 미술, 운동을 방과 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일본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시켜주기가 쉽지 않아요.

- 어머니는 일을 하는지요?

(어머니) 계속 일을 했었는데 자녀 때문에 그만뒀어요.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중이고, 아르바이트를 가끔씩 하고 있어요. 남편은 시골에서 시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남동생들이 생활비를 주고 있어요.

인터뷰_5

- 일시 : 2007년 6월 5일
- 장소 : 00역
- 인터뷰 대상자 : 마00(여·일본) 와 아들(중학교 2학년)

2남(중학교 2, 3학년) 1녀(고등학교 3학년)를 둔 00씨는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에 와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었나?

1989년에 한국에 왔다. 집안에 제사가 많았는데 제사문화에 익숙지 않아 힘들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장남이어서 가족행사가 많았다. 처음 와서 시어머니, 시조모와 같이 살 때 힘들었다. 지금은 따로 산다. 남편 친구 모임 때 가면 아무래도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일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일본 고향이 어디냐는 등 여러 가지를 묻는다.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지면 고맙고 아무소리도 안하면 오히려 섭섭하다. 남편이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다. 신용카드도 만들어주고 돈 관리도 남편이 다 한다. 지금은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 우리말은 어떻게 배웠나?

처음에는 책보고 하다가 집에서 시어머니, 시조모와 이야기 하면서 한글을 배웠다. 결혼 초에는 남편과 영어로 대화하거나 한자를 써 가면서 의사소통하였다. 남편은 현재 00예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바빠서 힘들다. 맞춤법이 잘 안 되어 글쓰기를 시간 있을 때 공부하고 싶다.

- 귀화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귀화는 안하였다. 일본에 부모님들이 있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만 갖기로 하였다.

- 아이들 한국어 교육은?

한글은 유치원부터 배웠다. 시댁에서 살아서 거의 일본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일본어를 조금 밖에 모른다. 집에서 인사하는 정도만 가르쳤다.

- 학교 행사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

학교행사는 첫 모임 때는 꼭 간다. 그리고 시험감독 할 때 간다.

- 일본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나?

자녀들 교육 때문에 최근 3년간 일본에 가지 못하였다. 일본 부모님과 전화로 통화하고 조부모와는 편지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oo중학교와 oo교육원에서 일어를 가르치고 있다. 예전에는 oo문화원에서 일본어 강사를 했었다. 1년에 한번 한일교류문화단체 주최로 모임이 열리는 데 그 때 일본 문화를 소개하곤 하였다. 자주 바자회를 열기도 해서 같은 일본인 부모들과 자주 만난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번에 광진구에서 고구려 유적지 홍보를 위하여 홍보사절단을 꾸렸는데 참여하게 됐다. 일본사람들이 몇 명 속해 있었는데 교육을 받고 국제적으로 일하게 됐다. 이 외에 통역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근처 장애인단체에서 일본과 자주 체육행사 등을 갖는데 그 때 통역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5-6년 봉사하였다.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이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 향후 자녀 교육 계획은?

고3인 딸은 대학가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 아들은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데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일본대학으로 보내고 싶다.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어라도 잘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아들) 일본에 공부하러 가고 싶지 않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특히 학생들이 스포츠나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교육열이 높다.

- 방과 후 활동은?

(아들) 학교 마치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뒤 저녁에는 전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에 다닌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어머니) 되도록이면 학원을 안보내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다닌 것이 습관화 되어 학원에 보냈다.

-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따돌림 받거나 한 적은 있나?

(아들) 어머니가 일본인인걸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따돌림을 당한 적은 없다. 친구들이 가끔씩 인사하는 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이 일본어로 뭐냐고 묻는 정도다.

인터뷰_6

- 일시 : 2007년 6월 22일
- 장소 : 00중학교
- 인터뷰 대상자 : 박00(여, 러시아 고려인출신 자녀)

러시아 고려인 출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러시아서 태어난 00는 3년 전 한국으로 왔다. 아버지가 숨지는 바람에 어머니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한 상태다. 러시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온 00는 00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00중학교에 오기 전에는 러시아 대사관서 2년간 공부를 하였다. 인터뷰 당시 우리말이 서툴러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다소 힘들었다.

- 우리말은 어떻게 배웠나?

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서 처음에 우리말을 가르쳐줬다. 어머니 추천으로 지금은 YBM 시사학원에서 일주일에 한번 세 시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주로 단어 공부와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독서시간에 책 읽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집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혼용해 쓰고 있는데 아직은 러시아말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 러시아에서는 공부 외에 다양하고 흥미 있는 적성교육을 하는데 한국은 지나치게 공부위주다. 또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없어 힘들다.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17살)인데 한국말이 서툴러 중학교에 들어갔다. 나이가 한살 어린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하니까 힘들다.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국 학생들이 같은 또래의 러시아학생에 비해 체격도 작고 덜 성숙되어 있어 많이 놀랐다. 애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 왔다고 싫다고 한다. 일본 사람 닮았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적은 없다. 왕따 아니에요

- 어떤 과목이 어렵고 어떤 과목이 쉽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 사회와 국사과목이 어렵고 국어도 어렵다. 러시아에서 영어를 3년간 배워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쉬운 과목이다.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학교 영어시간은 너무 재미가 없다.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다. 영어를 미국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우리말이 서툴기 때문에 토론수업에는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친한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주로 몽골출신 학생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점심시간 때 몽골학생들과 자주 같이 밥을 먹는다. 동생처럼 잘 대하여주려고 한다. 한국인 친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면 친구들이 많다. oo교회에 다니는데 같은 처지의 고려인들이 많아 친한 언니와 오빠들이 많은 편이다.

- 담임선생과의 대화는?

고민이나 진로상담 등에 관해 거의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다. 부모님은 가끔씩 와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담임과 상담하는 것 같다.

- 자신의 정체성은?

마음은 러시아 사람이고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 아직도 러시아인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 장래희망은?

디자이너를 하고 싶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고등학교 입학하면 디자인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향후 디자인관련 비즈니스 일을 하고 싶다.

(생활지도부장과의 인터뷰 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들 성적 수준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우리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은 밑바닥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다 온 아이들은 잘 하는 편이다. 평균이 30점 정도다. 시험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oo의 한국어 수준은?

러시아나 몽골에서 온 학생들은 글자가 많이 달라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oo의 경우 처음 올 때 보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 이들을 위한 지원은?

주로 한글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주일에 네 차례 모르는 낱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읽고 쓰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터뷰_7

- 일시 : 2007년 6월 26일
- 장소 : ○○학교
- 인터뷰 대상자 : 전○○(여 · 중국 조선족 출신)

전○○씨는 다문화대안학교인 ○○학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중국 민족 학교서 교사생활을 했고 94년도 한국에 왔다. 동사무소와 유치원, 학원 등지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는 일주일에 두 번 나와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슬하에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7살 된 아이를 두고 있다.

- 중국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문법보다는 성조와 읽기를 강조한다. 중국 노래나 중국 당시를 접목하면서 중국문화를 중간 중간에 소개시켜 주면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 자녀의 학교생활은?

그동안 별 문제없이 학교에 다녔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made in China'라며 딸을 놀려 딸아이가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 중국서 만들어진 제품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는데 그 말을 더럽고 불량스럽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조사를 하는 바람에 중국출신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 아이들 한국어 실력은?

매주 잘 하는 편이다.

-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나?

어렸을 때는 주위 사물을 보고 중국어를 가르쳐줬다. 하지만 딸애가 한동안 안하겠다고 해서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여기 있으면 한국말을 사용해야 하고 중국에 가면 중국말을 써야 해서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던 것 같다. 집에서 대화할 때는 주로 한국말을 사용한다. 한국말이 더 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중국어를 하고 싶어 해서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자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인터뷰_8

- 일시 : 2007년 8월 21일
- 장소 : 서울 00중학교
- 인터뷰 대상자 : 박00(남·중2, 수단 출신 자녀), 담임선생님

00이는 수단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수단서 태어난 뒤 세 살 때 한국으로 왔다. 줄곧 한국서 자라서인지 우리말은 무척 잘했고 생김새도 일반 한국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00이 아버지는 번역 일을 하고 어머니는 모방송 아랍어 뉴스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아버지는 한국말이 서투러 00이는 아버지와 대화할 때 주로 아랍어를 사용하고 어머니와는 한국말로 대화한다고 한다. 00이는 매년 방학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수단에 머물면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이 아랍어를 잘 하길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단에 친척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아랍어를 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아랍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 자신의 정체성은?

수단이름이 있긴 하지만 한국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한국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말은 어떻게 배웠나?

어머니가 많이 알려줬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다.

- 학교생활을 하는데 힘든 점은?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다. 반 아이들과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 외모로 인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이들이 얼굴이 까맣다고 놀려 한바탕 싸운 적이 기억난다. 하지만 지금은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아본 적이 없다.

-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 어렵고 음악이 쉽다. 음악에 관심이 많다보니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해 학교

성적은 중간 수준이다.

(담임선생님은 oo이가 절대음감소유자라고 자랑하며 다닌다고 한다)

- 학원은 다니고 있나?

학원 다니는 걸 싫어해 다니지 않고 있다. 대신 수학과 영어 과목 과외를 하고 있다.

- 부모님으로부터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머니보다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어머니가 직장일로 바쁘기 때문이다.

- 장래 희망은?

피아노를 열심히 쳐 피아노 강사로 활동하고 싶다. 하지만 부모님은 공부를 잘 하길 원한다.

다음은 담임선생님과 의 일문일답이다. 선생님은 인터뷰 중간에 개인 기록부에서 어머니와 oo이가 작성했던 'oo이의 장점'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oo이의 장점으로 '사회성이 뛰어나고 센스가 있다'고 답했고, oo이 역시 '친구를 잘 사귀다'고 답하였다. 선생님께서 oo이가 한글을 쓰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것이 한국아이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학교생활 적응 여부는 어떠한지?

오히려 한국 아이들보다 더 활발하고 적응을 잘 하는 편이다. 친구들도 많고 잘 지낸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없다.

- 학업능력은 어떠한지?

하위권이다. (혹시 국어 점수는 어떠한지?) 국어도 점수도 낮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의 점수가 낮은 편이다.

- 외모가 달라서 아이들과 다툼 적이 있는지?

외모가 보시다시피 한국인인데 까만 피부를 가진 것 같지, 외국인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외모가 달라서 아이들과 다투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oo이는 친구들도 많고 사이 좋게 잘 지낸다. 그리고 여기가 이태원이라 워낙 외국인들이 많다보니 아이들이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

가 많아서인지 그런 것에 예민하지 않다. 만약 00이가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부모님과 면담은 얼마나 하시는지?

학교에서 1년에 두 번씩 학부모 모임을 갖는다. 그때 00이 어머님께서 오셔서 면담을 하신 적이 있다. 각 부모님마다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시는데 00이 어머니께서 하셨던 질문도 한국인 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공부에 관한 것이었고, 특별히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으셨다.

- 00이에 대한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반 아이들과 똑같이 대한다. 특별히 00이에게 다른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00이가 학교생활을 할 때 정신적·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지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문제가 있을 경우엔 담당과목 선생님이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전달을 해주는데 00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인터뷰_9

- 일시 : 2007년 9월 3일
- 장소 : 서울 00중학교
- 인터뷰 대상자 : 최00 (여 · 중1, 이란출신 자녀)

00는 이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한국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직원이고 어머니는 방송 일을 하고 있다. 줄곧 한국서 자라서인지 우리말은 무척 잘했고 생김새도 일반 한국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00는 비교적 가정 형편은 넉넉했다.

- 자신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문화를 반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면이라 생각한다.

- 우리말은 어떻게 배웠나?

어머니가 한국어와 함께 이란어를 같이 가르치려 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해서 한국어만 배웠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 이란어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어는 잘 하는데 이란어는 잘 못한다. 네다섯 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한글을 배웠다. 어머니는 TV를 보면서 혼자 우리말을 배웠다.

- 친한 친구는?

10명가량 있다. 친구들이 이란출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 대해줘 학교생활은 그다지 힘든 점은 없다.

- 외모로 인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

지금까지 따돌림은 없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재미있었다. 가까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거리를 지나갈 때 이상한 눈으로 흘깃 쳐다보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어느 나라출신 이냐고 물을 때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어 싫었다. 가령, 택시를 탈 때 “어디서 왔어요? 우리말 잘 하네” 며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들을 때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어 싫었다. 혼혈이란 말을 듣는 것과 예의 없이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고 묻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예쁘게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말해 줄 때 좋았다.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거리를 거닐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서울은 이태원도 있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조금 덜한 것 같다.

-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 어렵고 영어가 쉽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줬다. 초등학교 때는 영어 동화책을 어머니가 읽어주곤 했다.

- 학원은 다니고 있나?

한 달 정도 종합학원에 다녔는데 혼자서 해도 된다는 생각에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다.

- 부모님으로부터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나?

역사나 국어는 주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기타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찾는다.

- 장래 희망은?

미국 가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것이다.

- 다문화관련 행사 체험은?

지난여름 방학 때 고궁을 둘러보고 민화를 그린 것이 전부다.

- 다문화가정청소년을 위한 향후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받는 느낌을 들지 않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한다. 주변에서 보면 혼혈 아이들과 같이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혼혈 아이들과 일반아이들이 친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인터뷰_10

- 일시 : 2007년 9월 10일
- 장소 : 경기도 oo중학교
- 인터뷰 대상자 : 손oo(여· 필리핀 출신 자녀), 담임선생님

- 인적사항(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신배경, 직업, 입국시기 등등)은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한국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를 만났고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3살쯤 한국에 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 3살 때 oo시에서 살다가 7살 때 여기로 왔다.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여동생이 한 명 있다.

- 자신의 정체성은?
필리핀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필리핀은 2년 전에 가보았는데 고향처럼 느껴졌다. 한국에 있어도 편하다.

-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은?
수학이 어렵고 영어가 쉽고 재미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쉬운 것 같다. 엄마랑 이모들이 영어를 가르쳐주었다. 이모들도 한국에 계신다.

- 학원은 다니고 있나?
다니고 있다. 국어, 영어와 수학을 배운다.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 우리말은 어떻게 배웠나?
한국에 세살 때 와서 자연스럽게 접했고, 유치원에서도 우리말을 배웠다.

- 외모로 인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
초등학생 땐 친구들이 놀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주로 친구들이 감동이라고 놀렸다. 싫긴 했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중학교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친구들이 가끔씩 물어보면 필리핀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 학교에서 친한 친구는 얼마나 있나?
네다섯 명 있는데 주로 같은 반 아이들이다.

- 부모님으로부터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나?

부모님은 아침 7시 반쯤 나가셔서 밤 9, 10시쯤 오신다. 나는 학교마치고 집에 와서 한 시간정도 쉬었다가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 학원수업시간은 5-7시이다.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한국어로 대화하는 편이다. 과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여쭙보기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 지금 어떤 도움이 제일 필요한가?

모르겠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재미있다.

-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 학교 다니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

없다.

- 담임선생님과 대화 나누는 편인지?

대화를 하지 않는 편이다.

- 가끔 학교에 지각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이 바쁘셔서 동생 유치원에 보낼 때에 유치원이 늦게 열어서 가끔씩 지각한다.

- 수업시간에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지, 듣는 편인지?

듣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 본인의 성격은 어떠한 것 같은지?

쾌활한 것 같다.

(선생님과의 인터뷰내용)

- 손00를 한국 아이들과 똑같이 지도하는 편인지?

그렇다. 처음에는 코시안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가정에 대한 것을 조사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때 알았다. 손oo가 언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지도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다른 아이들보다 마음이 착하고 어려서 이용당하는 측면이다. 남자아이들이 돈을 빌리는데 다른 아이들은 없다고 하고는 빌려주지 않는데 손oo는 잘 빌려준다. 그런 것은 신경을 쓰는 편이다. oo를 따로 불러서 돈 빌려주지 말라고 이르기도 한다.

- 아이들이 놀린 적은 없나?

그런 적은 없는데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글씨체가 초등학생 글씨처럼 크고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한국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글씨를 많이 배우는데 oo는 어머니가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인 것 같다.

- 어머니와 만난 적이 있나?

oo가 지각을 해서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다. 두 분이 모두 공단에 계셔서 시끄러운지 아니면 시간이 맞지 않는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찾아 온 적도 없다. 지각하는 이유는 동생이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을 보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는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동생이 유치원을 가지 않으니까 동생이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해서 조금 더 같이 있어주느라 늦는 것 같다.

-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없나?

사회성이 부족한 것에 신경을 쓰지만 편애하진 않는다. 하지만 oo를 혼자 불러서 남자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그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oo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착실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이 아이들과 조금 다른지 잘 섞이는 것 같진 않다. 동생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하기 때문인 지도 모르겠다. 너무 순진해서 사교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

- 방과후 학교는 참여 하는지?

1학기 때에는 제가 악기를 담당했었는데 2학기에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는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돼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잘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졌다.

- 우리말은 잘 하는 편인가?

우리말은 여기서 태어나서 잘 하는 편이지만 글 쓰는 것은 잘 하는 편은 아니다. 맞춤법은 눈에 띄게 못하지 않지만 글 자체를 길게 쓰거나 빨리 쓰지 못한다.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분량도 많지 않고, 글씨도 빠르게 쓰지 못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작성을 하지 못한다. 반면, 영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지난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는데 영어를 썩 잘 하는 것은 아닌데 흥미가 있다. 잘하지 못해도 나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있다.

- 성적은 어떤 편인가?

아주 바닥은 아니지만, 상중하로 나누면 하 쪽이다. 엄밀히 말하면, 중과 하 사이에 있다.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반에 담임선생님을 해보니 어떤지?

교사를 16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있는 반을 담임으로 맡았다. 그런데 00가 다른데서 살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한국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사생활과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다.

-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00나라에 대해 수업한 적이 있는지?

사회를 맡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2학년이라 나온 적은 없다.

-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학생들보다는 외국인 여성부모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다. 부모들에게 우선적으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학교 내에 일반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있나?

아직 그런 것은 없다.

[부록 4] 시민단체 인터뷰

인터뷰_1 제주도 한국문화학교

- 일시 : 2007년 4월 23일
- 장소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 인터뷰 대상자 : 김영수(가명,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문화학교 교장, 전직 중학교 교장)
- 인터뷰 진행자 : 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기관 소개

제주 한국문화학교는 제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소속된 기구이다. 제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는 2002년 3월에 개원하였고, 본격적으로 한국문화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도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 8월부터이다. 제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 출신 사회 구성원들의 한국사회 문화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이 정규적으로 진행되고, 비정규적으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150여 명 정도의 외국 출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인터뷰 대상자 소개

김영수선생님은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고 계셨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계시다가 정년을 맞으시면서 바로 이 학교 교장 직을 맡으셨다. 평교사 시절부터 소외계층을 돌보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지역 사회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 안에서 선생님에 대한 평은 매우 긍정적이다. 제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문화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성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쭙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면서 교육이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대상인 어머니와 아버지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하여서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말

씀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정식 명칭이 무엇이죠?

김영수 네. 제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 한국 문화학교를 제가 지금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성배 이 문화학교는 언제 설립 되었습니까?

김영수 그러니까 우리 제주 외국인 근로자 센터는 2000년도에 도내에 있는 기독교청년회, 기독교사회들이 내한 외국인들을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단시간적으로 진행하다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해서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2002년 3월 26일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상담이나 한글 교육, 의료지원 봉사를 해 왔고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특히 근로자, 이주여성, 유학생 같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가 됐죠.

오성배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고 운영이 되었네요.

김영수 네.

오성배 선생님께서 여기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김영수 제가 2003년 2월 말에 4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면서 40년 동안 국가의 녹도 먹고, 그리고 크리스천 입장에서 하느님 은혜로 주변의 좋은 선생님,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들 만나서 무사히 마쳤죠.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체질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 삶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찾던 중에,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외국 분들이 여기에 살러 오신다고 하는데 봉사를 같이 해주실 분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다가 외국인 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와 닿아서 제가 갖고 있는 교육적 경험을 이쪽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는 생각으로 2003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오성배 그럼 문화학교를 선생님께서 직접 설립 하신 건가요?

김영수 아니요. 우리 센터 안에 그런 기구를 두자고 제안을 했죠.

오성배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있는 네트워크는 아닌 거죠?

김영수 아니에요. 물론 안산에 박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나, 외국인 센터와 유기적인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지에 나갔다가 외국인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방문해서 정보도 얻고 있어요.

문화학교라는 이름을 왜 걸었냐 하면, 근로자 외국인 센터라는 처음의 출발은 근로자 중심이었는데, 근로자라는 개념하고 이주여성하고는 잘 맞지 않고 유학생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한국어를 배워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서 문화적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국문화학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죠.

오성배 네.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에 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가요?

김영수 제주도 내에 있는 금년 7월말 현재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3000명 가까이 되요. 그 3000명 중에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연수취업, 회화강사, 또 흥행사라고 있는데요.

오성배 호텔에 계신 분들 맞죠?

김영수 네. 그런 분들이 한 1200명이 되요. 그리고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도 700여명쯤 되고 유학생이 200여명이 되죠. 그런데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인 경우에 결혼 생활이 원만히 유지되어서 2년 이상이 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해 버리면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명단에서 지워져요.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이분들의 수가 6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했거나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와서 현장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일지 분석을 해보니까 근로자와 이주여성, 또 유학생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오성배 저도 이주여성도 700여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주여성도 내에 온지 2년이 안된 여성만 700여명이고 국적을 취득한 여성의 수는 뻥 것입니까?

김영수 그렇죠.

오성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사실 말 그대로 저도 그 데이터를 찾아 봤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김영수 600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주도에 외국인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이주여성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1995년 초예요. 1995년 이후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숫자를 누적했는데, 그 중에서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해서 이혼을 했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적한 숫자가 8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200여명은 결혼이 파탄되어서 이혼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어요.

오성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여기에 참가하시는 인원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김영수 우리 문화학교에 작년에는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태권도교실 그리고 특별활동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등록하신 분이 19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태권도교실은 이쪽 건물의 사정상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한 인원은 150명 정도 되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 사람처럼 등록을 하고 잘 출석하는 건 아니에요.

오성배 조금 색깔이 달라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간다라는 거죠. 저희도 그 봉사활동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의식이나 문제의식이 부족한 거죠.

김영수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날씨가 안 좋거나 피곤하다고 예고 없이 안 나와요. 특히 이주여성인 경우에는 가임여성이 주류시거든요. 그분들이 20대 초반에서 오시는 분들이어서 임신을 잘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입덧이 나오거나 임신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고 빠지거나, 아기를 낳으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예전에 문화학교 체험을 다 간다고 약속을 해서 버스까지 대절해 났는데, 갑자기 그때 소낙비가 잠깐 한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교육원에서도 출석을 문제가 있죠. 지난 13일에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송년의 밤을 도에서 지원해 줘서 했는데, 그때 우리 문화학교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좀 엄격하게 바뀌어서 전체 수업일수 가운데

80%이상 나온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해버리니까 20명밖에 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3년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는 이런 거다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래도 실제로 등록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성배 대부분이 이주 근로자보다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분들이죠?

김영수 근로자분들은 낮에 회사를 가시니까 밤에 공부를 시키는데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차를 갖고 와서 무서운 곳은 데려다 주는데, 자기네도 미안하고 불편하고 해서 근로자 쪽에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화북 같은 곳은 영락교회 청년부와 화북교회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서, 화북공업단지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군술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책도 빌려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지역적인 한글교실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낮에는 토요일을 제외하면 대상의 대부분이 이주여성이죠.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4일 동안은 오전오후에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성배 이주여성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그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셨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로 동남아지역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김영수 네. 제주도에는 국제결혼을 한 가운데 중국 사람이 수로는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선족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수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수가 많기는 베트남과 필리핀 분들이 많아요. 지금 베트남의 경우에 13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결혼해 오셨는데, 이곳에 등록하신 분들이 60명 정도로 와서 배우려는 의욕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필리핀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이 중국 분들이죠. 또 제주대학에 유학 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쪽 분들 가족들이 와서 배우기도 해요.

오성배 유학 오신 분들의 부인 분들이죠. 이주여성분들하고 말씀도 많이 나눠보시고 그들의 삶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영수 많지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언짢겠지만, 이주여성분들의 배우자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신부를 못 구해서 외국에서 데려오신 경우, 두 번째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힘들어서 외국에서 여성을 데려오신 경

우, 세 번째는 남자 쪽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배우자를 외국에서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배우자를 데려오는데, 외국에서 살면서 연애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좋고 의사소통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에 의해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돈을 주고 줄여서 간택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오성배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서 결혼하기도 하죠.

김영수 그러면 대사관에 가서 결혼신고를 해놓고 남자가 먼저 들어오죠. 여자는 같이 못 오거든요. 여자는 여권 만들어야지, 비자 받아야지, 준비할게 많아서 빠르면 한 달 반 이고, 두 달 석 달 정도 뒤에 여자가 한국에 와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온다고 하면 이분들이 한국으로 시집오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제야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기 시작하죠. 오실 때 갖고 온 책을 보면 정확한 이름이 있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도 아니고, 조잡하게 만든 책의 복사본을 갖고 공부하신 거예요. 누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이거 이상한 얘기지만은 그런 상태로 와서 살게 되면, 여성을 데려 왔으니까 가정생활에서 성적인 만족도 취하려고 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해주길 바라고 또 시부모와의 인간관계도 원만히 해주길 바라잖아요. 하지만 이주여성 가운데 한국말을 의사소통이 불편할 정도로 모르는 상태고, 한국문화가 전혀 적응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 밥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기밥솥 쓸 줄도 몰라서 여기에 와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2007년 문화학교 프로그램 가운데는 학교 영양사에게 부탁해서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찌개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거든요.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 배우자를 돈 주고 데려 왔는데 자기만족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언어로 폭력을 써서 배우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폭력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한 46건의 사건으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언어폭력을 당한 분들이 40%정도 되요.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도 15%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여기에 친정도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와서 상담을 해주면 이분들에게 교육이 참 필요하겠단 싶어서, '와서 공부해라' 해서 등록 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직업이 안정된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다가 경제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집에서도 원만치 못하고 문화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부딪히죠. 우리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스트레스성 질환이 참 많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여성들의 특징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해서 문화적으로 적응이 힘들죠.

또 한 가지는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교육자로 교육학적으로 더 잘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아이의 지능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아이들에게 말을 전달 못하니까 아이들의 지능성장에 지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피부색이 아버지가 우성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인 얼굴로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우성인 경우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사람의 얼굴 특색을 갖고서 태어나게 되요. 지금 제주도에는 50명 정도로 공식적으로 혼혈아가 태어났죠. 그런 아이들이 혼혈아라는 이유로 왕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어머니들이 아까 말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경제적인 취약성, 교육적인 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렵죠.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에 찾아가서 '이제 제주도도 외국인이 많이 생기고 혼혈아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 '국제자유도시다 평화의 섬이라고 떠들어 대는데 우리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 담당자 중에 저의 제자도 있고, 교육청 장학사는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어서 '선배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죠.'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3000만 원정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이주 여성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못하거든요. 이주여성이나 혼혈아들 애들을 지도 하는걸 우리 외국인센터 문화학교 수업 프로그램으로 해달라고 하고, 도에서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학교에서 앞서 말한 3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먼저 초점을 두고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오성배 이주여성들은 현재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문제를 더불어서,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부모와의 문제라든가 가부장적인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유교문화 또 한국에서는 존댓말과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들을 심하게 압박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거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게 되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한테 엄마로부터의 언어 가르침이라든가, 엄마가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적으면 아이도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김영수 네. 대체로 많이 들어와요.

오성배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부러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그러니까, 1995

년에 막 결혼한 초창기 세대의 아이들, 초등학교 3,4,5학년 아이들 이런 애들을 참여 관찰해 보면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 하는 가운데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간의 형식적인 질문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수업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걱정되는 것은 급식을 하는데 애들이 김치를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는지 물어보면.

김영수 엄마가 안 먹으니까. 식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오성배 네.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김치를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애한테 김치를 먹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김치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식할 때 보니까 소시지나 햄 몇 개만 먹고, 밥도 잘 안 먹고, 빵만 먹으면서 집에서 이런 거 안 먹는다 식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낮은 한테 우리하고 썬하는 방법이 다르게 하더라고요.

김영수 우리하고 다르게 반대로 하죠.

오성배 무조건 우리 쪽으로 흡수 하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아이들이나 엄마를 최소한 적응은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적응을 한 다음에 그네들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기 위하여서는, 여기서 최소한의 사회화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화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총체적인 난국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영수 정부차원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단발 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따라서 부분적인 지원은 있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세계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을 지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목사님이 전에 제주도에 오셔서 지금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까지 해서 80만 명으로 추산하지만, 연말까지 하면 실제로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2007년도 까지 저 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동인력을 구하기 위하여서, 계속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출산 되고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농촌 총각들은 이주여성 데려다가 결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 이주여성을 통하여서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은 도움을 주는 상황이 지

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문화사회거든요. 저번에 하인즈 워드가 와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단 일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자체의 교육이나 사회 교육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 속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가 이런 교육을 앞장서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외국인을 내 새로운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노상 이야기 하는 틀림과 다름을 혼동해서는 안 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 옷이 다르다 하지 않고 나하고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책 차원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나 시민단체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 보는 것이 지난 4월에 대통령 지휘 아래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가 모여서 이주민 정책에 대하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 결과로 10월 달에 보니까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외국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하라고 해놨더라고요. 아직 제주도에서 만들어 지지 않았지만, 그런 조례가 완전히 재정이 되면 도청에서도 그걸 근거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성배 지금까지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도 나름대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종교 단체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영속성 면에서도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시민단체에 계신 어떤 분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었지, 사실은 그 분이 안계시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말입니다. 특히 교육의 영속성을 놓고 본다면 분명 이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 말고 올해 예산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9700만 원정도 인데요.

김영수 장수군 쪽에도 외국인이 좀 있어요.

오성배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지개청소년 센터에서 학술 심포지엄(symposium)을 한번 했었는데요. 박 목사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장수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셔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김영수 의지가 있으시니까 미리 시작 했죠.

오성배 네.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제주도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 3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미약하긴 하지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김영수 참 좋은 지적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학교를 공동생활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3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글 가르치는 분들 다 대학 나오고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중문과라든지 독어학과 나와서 영어도 좀 하시고, 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한국어 교육학과 2-3개월 코스를 다 이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 연속수업을 한 번에 하시면 3만원씩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에게 다과 같은 것을 간식으로 제공해 주고 문화체험도 넉넉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시청에서 주는 300만원 가지고 운영해야 되어서 선생님들에게 강사료를 못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근로자들 실어 나르는 차량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간식 같은 것이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고구마도 삶아서 갖다 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바깥 학생들은 주로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뤄지겠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로는 체계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물론 이제 도청에 결혼 이주민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육지에는 이제 웬만큼 생겼어요. 안산에도 생기고 일부는 대학교에다 위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그런 공무조항에서 홍보 자료가 나온 것을 보고 도청에 찾아 갔거든요. 그런데 그냥 앞으로 자료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자료를 가지고서 보도 자료에 만들어 놓은 건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만 됐어요. 얘기도 서로 감정만 상하고, 우리 일하는데도 이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몇 년 치 해보다가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지원을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 봐서 '외국인을 다루는 일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그분들하고 내포형성이 안되면, 마음도 안 털어 놓고 공부도 안 되더라, 그래도 우리는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일개 시민단체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문성 있는 우리 단체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혈 아이들의 교육은 공적인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저도 이제 저녁에 봉사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회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모시고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한계가 있어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에 성동외국인교육센터를 가봤거든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정된 벤치마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성동 구청에서 성동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들고 나서 직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학 선이회, 착할 선자에다 이웃이 영어로는 네이버후드(neighborhood)에서 영훈씨가 장로였는데 지금 이사장이세요. 거기다 위탁경영해서 지금 이 사업을 초창기부터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거기 관장님을 만나봤더니 이 건물은 고건총리가 서울시장할 때, 성동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특별지원을 해줘서 12억을 받아 이 건물을 성동구청에서 설립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1년에 2억5천 내지는 2억, 아주 경상비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원이 복지사수준의 보수도 체계적으로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실제로 한 달에 60-70만 원정도 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죠. 거기다 서울은 우리보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경기대, 이화여대, 연세대에 외국인 학생이 있으니까 그곳 강사들이나 대학원생들을 지도교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 벤치마킹이 되어서 지금 막 경기도도 외국인 지원을 위한 센터를 6곳을 만들려고, 예산을 1차적으로 23억 정도를 2006년에 세웠거든요. 이제 부산도 하겠다고 그러고 막 나서는데, 우리 제주도는 하긴 해야 된다고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노력이 아직은 없어요.

오성배 저는 제주도에 온지 2년 밖에 안됐는데 들어와 있으면서 보면, 말은 국제의 자유도시고 평화의 섬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분들의 행태나 추진력 같은 부분들은 전혀 별개거든요.

김영수 말도 부족하고 추진력도 부족 하죠.

오성배 네.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데요. 어쨌거나 이주여성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김영수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오성배 네. 우리와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보상적 기회가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네. 당연하죠.

오성배 이것이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가 직접 평생교육을 관장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그럴 마인드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지도한다거나 감사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수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성배 한편으로 왜 지방자치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할까를 생각해보면, 당신들 자리 몇 개 만드는 것 말고는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영수 잘 지적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직영해야 할 업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서비스 분야는 민간단체에 위탁경영해야 경쟁성도 있고 창의성 있게 해 나가거든요.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오성배 만약에 민간단체나 종교단체가 투명하게 유지를 해 나가지 못해서 비리나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권리를 회수해서 다른 단체에 위탁하면,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관리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도 자꾸 주장을 했어요. 우리 외국인센터가 보다 사회의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메리트를 가지려면 법인으로 만들자고 해서 제가 부담을 했어요. 이 의견이 금년 3월 정기 총회 때 만들기로 해서 제가 법인추진 위원장을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거죠. 외국인센터 운영, 결혼 이주민 여성 지원, 쉼터, 문화학교, 의료지원을 해왔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공익법인에 대한 법률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종목이 종합된, 어느 한 가지를 우선순위로 두는 단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류를 가지고 도청에 갔는데 도지사가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모체가 되어달라고,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니까 노동업무를 취급하는 곳이 좋겠다는 자문을 얻게 됐죠. 그래서 노사 취업 계에 가서 접수를 시켰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되도록 하겠다고 컴퓨터를 한 달 동안이나 붙들고 나서는 대답하는 말이 법적으로 보니까 행정권한을 위반한다는 표식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것이나 행정부 것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노동부 것만은 도

지사에게 위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저희가 결재할 수 없으니까 노동부로 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노동부에 냈더니, 거기서는 또 담당자가 어떻게 까다롭게 구는지 업무 행정팀의 자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요. ‘이런 쪽으로 해 달라’ 또 ‘서류 가져다 달라’ 라고 하면서 9월에 접수한 것이 10월 25일에 법인화 됐어요. 법인이 되면 관할 지방 법원에 등기를 해야 실제로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5일에 법인화 허락을 받고 11월 28일에 제주 지방법원에 등기를 해서 완전히 법인이 됐는데, 법인 이름은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라고 해놓고, 평화공동체 법인 내에 직영사업으로 제주 외국인 센터와 서귀포 근로자 센터를 운영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까 말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나 순서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법인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성배 저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이제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의 평생교육 분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수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금년 9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서 자료를 보고 있어요. 학생문화원에서 우리가 결혼이주민 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돕기 교육에 대하여서 응모했는데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산원이나 산파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의사선생님까지 와서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어요. 내가 쪽 지켜보면서 상당히 프로그램은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것이 아직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이 약한데,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쉽게 말하려고 해도 전문적인 용어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강사님들께 앞으로 외국인들을 교육 하실 때는 차트나 그림을 많이 가져 오셔서 말을 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오성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지자체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교육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 하시는데 있어서 노하우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쉽게 한다거나, 그림을 통하여서 설명한다는 식의 것들은 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또 다른 소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국제결혼의 추이의 기울기

가 급격해 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들도 어머니지만 우리가 흔히 코시안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학교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 이 3가지 차원의 교육을 거쳐야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잖아요. 일단 가정교육 차원에서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측면인 가정교육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코시안 아이들한테 다른 가정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수 그렇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텐데, 아버지들이 전부 일하시느라고 자녀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학교 시상식을 할 때 모범 남편상이라는 각별한 상을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학교를 3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남편 되시는 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입장에서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자기를 노출 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자녀교육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하러 오면 제가 남편 분 손을 꼭 붙잡고, ‘당신 마누라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누라가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당신 마누라가 한글을 제대로 몰라서 당신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당신 애 낳아놓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강조를 했더니 금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남편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많고, 부인을 데려다 주고 끝날 시간에 와서 데리러 오는 가정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주여성 분들이 20세 초반에 오시기 때문에 임신을 금방 하세요. 대부분 아기를 하나나 둘을 낳아서 안고 데리고 오는데 공부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쫓아와서 부인이 공부하는 날은 일터에 안 나가고 아기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있다가고 부인이 공부하는 걸 이제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남편 분들이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의 확산을 위하여서 4사람을 뽑아서 모범 남편 상을 줬거든요. 아까 말한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200명이 있는 앞에서 줬어요.

오성배 자극이 되겠네요.

김영수 남자들이 직업상 자주 왔다 갔다 해도 일정시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배우자에게 100% 맡겨 버리면 어렵지 않으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주 여성과 남편과의 갈등이 심한데 이것이 계속되면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줘서

성격장애를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분들 정말 조심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2007년도 프로그램 속에는 부부가 함께 교육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성배 정말 필요 한 것이죠. 제가 참여 관찰을 하면서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국제결혼을 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아직 언어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김영수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오성배 네.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육아의 상당부분을 엄마가 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아빠들의 문제의식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생각 해야죠. 그렇지 않다보니까 한 일례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선족 출신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족 출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김영수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르죠.

오성배 60년 이상 그네들만의 문화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문화고, 외래어나 신조어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림장을 못 읽더랍니다. 알림장에 나오는 말들을 예로 들면 캐스터네츠, 탬버린, A4용지 몇 장, 이런 것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색종이나 가위정도는 알아듣지만 요즘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림장을 보여주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늦게 오면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버려서 준비물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분들의 문제의식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하여서도 필요하겠지만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더욱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맞아요. 이주여성의 가정일수록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남편 분들이 이것을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교육을 추진해서 같이 지내면서 결속을 강조한다든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성배 2007년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접촉해 보지 않고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자체에서 관료적으로 이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들이 소외계층 중에서도 소외계층인데,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학교교육의 문제를 보면, 선생님께서 학교생활을 오래 하셔서 감히 제가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요. 코시안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고, 피부색이 조금 다르잖아요. 제가 참여관찰 해본 바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TV에서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어렸을 때는 엉겨 붙어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유아기 때는 피부색이 달라도 놀림을 받지 않고 눈이 동그래서 예쁘네 하면서 애들끼리 잘 어울려 지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피부색이 다른 것에 대하여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부모도 문제라고 생각 하는데, 부모가 '너희 반에 외국인 엄마의 아들 있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서 '너 아프리카 사람이라며?' 또는 '너 얼굴 왜 그렇게 새까매?'라는 식으로 놀리는 것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거나, 숫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 특수성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는 거의 없죠. 제가 참여관찰 해본 바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전혀 눈치 못 채시고 계시는 것 같더군요.

김영수 잘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교장회의 같은 곳에 가서 제주도도 이제 다인종 다문화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외국인 출신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 달라, 그리고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도록 해달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이라고 돌아가서 교사들에게 전하고 체계적으로 자료 조사도 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성배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번에 봤던 것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도 하면서 다문화사회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런 단체에서나 아버지들의 모임에서나 여기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김영수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셨으니까 당연히 연락을 하겠습니다.

오성배 한 시간 정도로 제가 특강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하거든요. (웃음) 이미 발표 파일이 다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초 중 고등학교 모이시는 곳에서 만약에 특강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김영수 제가 먼저 제안을 할게요.

오성배 아직 한국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고작 저밖에 없다고 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제가 연구하는데 연구비도 많이 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돈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까요.

김영수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일이니까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이 다 아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자주 가서 교직에서 일했던 경험과 이쪽에서 일해 온 경험을 어울려서 뭔가 필요한 것을 저분들에게 제안해 주는... 탐라교육원에도 우리 연수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교장연수, 교감연수. 주임교사연수, 일반교사연수가 많아요. 거기 탐라교육원장도 잘 아는 후배예요. 저도 3년 동안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 이런 교육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과감히 나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오성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과 제가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사의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주로 시골초등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네.

오성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의 명문학교인, 이를테면 한라초등학교 같이 소위 8학군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지금의 이런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또래의 아이들 중에 저런 아이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나이에 알지 못하면, 나중에

물과 기름이 되어서 외국사회처럼 인종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김영수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도 바로 그거죠.

오성배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완화되기 위하여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선은 코시안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배려해서, 장애우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지금 우리사회가 더 이상 단일민족 사회,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또 하나는 다문화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해서 모든 사람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인들한테 교육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사실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최소한 그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다문화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했던 교육 기회를 이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측면을 보면, 제가 인터뷰 했던 담임교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거데요.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우 들도 많이 맡아 봤는데, 그 아이들과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교사들의 자발적인 배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사가 그 아이한테 당연히 애정을 더 쏟고 하다못해 편식을 못하게 혼내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사의 자발적 배려를 넘어서 학교나 교육청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죠. 물론 국정감사나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서 교육감님이 '아주 필요하다, 그런 방안들을 고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다문화가정이나 지역소외 계층에 대하여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은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김영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하루아침에 다문화사회가 정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적인 교육 시스템이 학교 공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교육 프로그램 속에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선 선생님들 연수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서 언론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캠페인과 같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힘들죠. 학교는 그래도 조직사회니까 통제가 가능하고 전달이 가능하지

만 사회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게 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외국사람 3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을 위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요. 근데 그 친절하다는 사람은 조금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만 친절하다는 것이고, 관계 안 맺은 사람은 그냥 무관심 하다는 거죠. 울타리 같은 것이 있어서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의사소통도 되고 감싸주고 돌봐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육지 사람도 제주도에 왔을 때 이런 범주 안에 들어야 의사소통도 되고 받아들여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반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이런 범주 안에 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적응하기 힘든 점이지요.

그리고 이주여성에 관해서는 많이 얘기 했지만 근로자인 경우에 지금 사업주라든지, 상급책임자들의 폭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하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 중국 사람들이 선원으로 와서 배에 승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승선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거든요. 거기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라서 근로의욕이나 책임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를 한 번도 안타본 사람들이라 멀미하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란 근성이 있어서 일을 느릿느릿하게 하니깐 선장이나 갑판장 같은 사람들이 아직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일 못한다고 욕박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니까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쥐어박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상폭력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배에서 내려오면 선주가 지팡이를 들고서 파도가 세서 출발을 못 할 때는 임시로 지내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어찌다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때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들을 내동댕이쳐 놔는데, 먹을 것이나 입을 것도 없는 상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국 사람들 자체가 생활이 절도가 없어서 방을 깨끗이 안 쓴다든지, 입었던 옷 빨래도 안하고 낡을 때까지 입는 그런 생활습관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점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소연을 해오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죠. 그러면 폭행을 많이 당해서 그런 거라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다고 하면 수협을 통하여서 선주에게 권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못해서 다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하여서 긴급의료지원을 해주기 위하여서 심사해주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오성배 그러게 말입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다인종 다문화사회만 놓고 본다면 지금도 이주여성이 현재 700명이고, 그전에 오신 분들이 600명으로 해서 1300명에, 그 자녀들 2세 3세에다가 앞으로 계속 이주여성은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

시안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주여성이 불과 20년-40년만 지나면 더욱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에서의 문제처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바뀌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물과 기름처럼 분리 되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상태에 두고 있다는 부분이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이와 별개로 그네들의 교육의 기회를 놓고 본다면,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격차의 누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하면 중학교 가서는 더 심해지고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시험도 안 보는 식으로 중도 포기하는 코시안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영수 많을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오성배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엄마들이 안 보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가도 어차피 적응도 못하고 놀림만 당하니까요. 그럴 바엔 지금 보내지 말고 나중에 보내자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보내도 적응 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안보내거나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제대로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기회의 분배와 사회 인식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같이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다행히 서울을 보니까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를 이번에 만든다고 하잖아요.

오성배 네. 지금 몽골학교가 하나 있고요. 이 학교가 몽골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세운 첫 학교인데, 물론 짓기는 시민단체에서 지었죠. 그 몽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 출신들이어서 가족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답니다.

김영수 서울에 외국인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노동부와 산업관리공단이 지원해주는 곳이에요. 거기에 김일성 목사라고 있는데요.

오성배 네. 들어봤습니다.

김영수 거기서 지난 10월 달에 1박 2일 코스의 세미나를 했는데 몽골출신의 목사 두 분을 만났어요. 몽골에서 선교도 하시고 지원사업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몽골인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꽤 있다고 해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데요. 서울지역에서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 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오성배 그 아이들은 국적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한명이라도 강제출국 당하게 되면 아이만 그냥 남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김영수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 하다보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게 되죠. 그래도 제주도는 다행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아요. 중간에 조금 구 러시아 분들이 있다가 가서 그렇지, 다행히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성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거나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 정책입안자분들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구상하고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주여성과 같은 분들의 숫자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인이 되고 한국인 이웃이 되는 과정에서 적응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큰 문제가 되어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언권이 많이 있어서 서로 네트워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중앙 요직에 있는 분하고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이주민에 관한 마인드라든지,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노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만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부록 5] 혼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1. 연구배경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은 교역, 학문 및 예술교류, 여행, 이민 등으로 인한 상호교류의 증가와 운송수단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의해 다른 문화권간의 접촉이 빈번해 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수범, 2000). 우리사회에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95만 여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외국인은 전체의 23%에 달하는 21만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외국인과 혼인건수가 39,690건을 기록해 전체 혼인건수의 11.9%를 차지했다(통계청, 2007).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한국사회적응과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의 혼혈인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혼혈인들은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따돌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런 점에서 혼혈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다. 혼혈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최근 많이 진행됐지만 언론이 혼혈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혼혈인에 대한 뉴스보도를 조명하는 것은 다문화다인종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초래하게 될 여러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언론이 혼혈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연구목적

지난 2006년 2월 한국계 혼혈 하인스 워드의 성공스토리 전까지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워드의 풋볼 선수로서의 성공과 뒤이은 한국 방문은 혼혈인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부각시켰다. 따라서 혼혈인 등 인종적 소수집단도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 신화와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다문화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혼혈인들은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김동심 외, 2003; 박경태·장수현, 2003), 무관심에 기반을 둔 언론 보도를 통한 왜곡된 상징적 재현에 의해 더욱 주변화 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문화적·인종적 소수집단들이 그들 그룹 내에서, 또는 주류사회와 보다 활발한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Jung & Lee, 2004; Morley, 200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화교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한국남성과 결혼한 다른 아시아지역 출신 여성, 혼혈인 등 인종적 소수자들과의 대화 단절과 그들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차별이 존재한다(박경태·장수현, 2003). 이러한 혼혈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은 여러 범주들 중에서 인종, 민족에 따른 구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이들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혼혈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집단도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하인스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떻게 양적·질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뉴스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혼혈보도를 포함해 미디어의 혼혈 문제 재현 전반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가 혼혈문제에 관한 인식과 논의의 장, 즉 공론 장을 얼마나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1) 혼혈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디어 보도

미디어가 매개하는 장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집단적인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Croteau & Hoynes, 2006; Golding & Murdock, 1991). 특히 주류 미디어들은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연결되는 공중의 믿음체계를 강화시키는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기능하는 면이 있다(Coleman, 1997). 그들은 본질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묘사를 하고(Bourdieu, 1998; Kellner, 2003), 사회문제들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탐사 보도를 정치·경제·조직적 이유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Bennett, 2000;

lyengar & Simon, 1994; Lee, 2003). 아울러, 민감한 사회문제들을 개인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단순화된 뉴스프레임을 사용한다(Bardhan, 2001, 2002; Willis & Okunade, 1997/2006). 특히,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보도에서는 기존의 인종적·계급적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이슈보다는 사건·사고중심의 보도를 하며(반현, 2000), 과정보다는 불연속적이고, 돌발적인 단일행동들에, 그리고 복잡한 맥락 보다는 고정관념이나 친숙한 이미지에 근거하여 프레이밍 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언론도 소수인종이나 민족을 뉴스라는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종적 소수집단의 부정적 사건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집단 전체를 부정적 이미지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반현, 2000; Hall, Critcher, Jefferson, Clarke & Roberts, 1978; Mitra, 2004). 이는 에이즈 환자 등 건강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뉴스보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주류미디어는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위기유발행동으로 축소하고, 맥락 분석 보다는 고통 받는 개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재현방식(victim-blaming representations)을 사용하며, 이를 통하여 대안적이거나, 비판적 관점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획일성과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구성되고 있다(Blakely, 2004; Kline, 2006). 특히 미국과 영국의 주류 저널리즘의 경우 1980년대에는 “건강한 우리 대 아픈 그들이”라는 담론의 틀(the healthy us versus the diseased others)”하에, 에이즈 문제를 네 가지 H들(homosexuality, hemophiliacs, heroin users and Haitians)과 연관시켜 보도했다(Traquina, 2004; Williams & Miller, 1995, p. 414). 즉, 에이즈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보고 집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규정하고, 주로 게이 남자나 외국인(특히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 마약사용자와 연관된 문제로 프레이밍하고 있다. 이러한 주류 저널리즘의 보도는 에이즈를 사회적 환경 보다는 개별적 일탈적 행동이나 개인의 유전학적 성향의 결과와 연관시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Nelkin, 1995). 또한, 에이즈가 후진국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여전히 잘사는 나라와 계층의 입장에서 동정이나 연민 또는 지원의 관점에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Bardhan, 2001). 또한, 뉴스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는 뉴스 소스의 경우 생의학 전문가나 정부의 정책개발 전문가들이 중요한 뉴스 메이커(news maker)로 등장하나 대안적인 사회운동 그룹이나 서민그룹(grassroots groups), 또는 에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Bardhan, 2002; Traquina, 2004). 즉, 뉴스에서는 에이즈 환자나 그들의 가족, 친구, 또는 사회운동가들과 대안적 치료약과

관련된 사람들 보다는 주로 공식적인 소스들(과학자, 의사, 정책결정자, 대기업관계자)의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Bardhan, 2001).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뉴스보도도 미담과 고난극복 사례와 봉사 및 자선활동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장애인 인권이나 교육 및 고용 등 사회·정치적 맥락이 주제인 뉴스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정재민 & 김호연, 2005). 또한, 한국 언론에 비친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여성 및 이들의 혼혈자녀들에 대한 모습도 긍정적이고, 발전적 이미지보다는 낙후되고, 더러운 장면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 류한호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선정적이고, 흥미위주로 보도되고, 기득권세력의 일방적 시각만이 강요되고 있다(백선기, 2005서재인용). 지난 2004년 말 신문·방송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었다(한국언론재단, 2005). 즉, 정치·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그룹들은 자신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언론 재현에서도 소외되거나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예란, 2005; Mitra, 2004). 전체적으로 주류 저널리즘은 서로 다른 언론사들임에도 언론사의 구조적·조직적 유사함과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 문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로 인하여 담론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인식과 해석의 틀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혈인들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처럼 강자들이 만든 인간관계의 틀 속에서 취약한 특성과 빈약한 자원 때문에 약자로 분류되는데(정혁인, 2005), 이러한 구조적이고 억압적 맥락들이 뉴스보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Us)와 그들(Other)로 구분하는 미디어의 이분법적 접근(임영호, 2002; Kline, 2006; Lester, 1992)과 흥미중심 보도(Best & Kellner, 1991; Bourdieu, 1998)로 인하여 혼혈인은 우리와 다른 소수그룹으로 대상화 되고, 주변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패턴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에이즈에 대한 보도에서도 나타나는데 “공포와 비난”, “개인화”, “드라마틱화(dramatization, Bourdieu, 1998)”, “이항 대립적 담론구조(binary discourses)”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지배적 인식을 강화하고, 에이즈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적 행동과 비사회적·비역사적 맥락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Kline, 2006). 주류미디어가 혼혈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관련 문제를 미디어 의제로 채택하는 경우는 스펙터클로 대상화 하는 경우 외에는 드물며, 이는 그 문제를 사회의 공론 장으로부터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미디어 스펙터클은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명사(celebrity)나 이벤트를 이용해 지배적 모델이나 상징들을 제공하는 것인데,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의 행동이나 이벤트와 의식 등이 재현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Kellner, 2003). 따라서 하인스 워드나 미국 상원 의원 버락 오바마 등 소위 혼혈스타는 미디어 명사로 규정되어 스펙터클의 대상이 되는 반면, 명사가 관여되지 않는 혼혈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나 일상 생활의 억압적인 이야기는 미디어 재현에서 소외된다. 켈너(2003)에 의하면 미디어가 만드는 스펙터클은 현재 사회의 기본가치들을 만들고, 그 사회의 논쟁들을 형성 및 조정하며, 공중의 인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 스펙터클 중심의 보도성향은 미디어의 극단적 상업화(hypercommercialization, McChesney, 1999)속에서 청중의 관심을 유지함으로써 미디어 기업의 이윤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보도 패턴이라 볼 수 있다.

2) 프레임 이론

프레임 이론은 뉴스담론 구조를 설명하는 접근법이다. 여기서 프레임은 알려진 바와 같이 뉴스에 드러난 지배적인 주제이다. 즉, 뉴스프레임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사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나 은유들을 조사함으로써 밝혀 낼 수 있다(Entman, 1991). 모든 뉴스는 그 이야기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프레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이야기 단위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Gitlin, 1980; Konick, 2003)이다. 즉 프레임은 뉴스 내용의 중심적 사고로, 이슈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그 이슈의 사회적 맥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Tankard, 2001). 탱커드(Tankard, 2001)는 프레임을 인식하기 위한 세 가지 경험적 방법으로 미디어 패키지(media package) 접근,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프레임 그리고 프레임 리스트(list of frames)를 제시하였다. 갠슨과 모디글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가 발전시킨 미디어 패키지 접근은 미디어 언술이 일련의 해석적 패키지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으며, 프레임 장치로 은유, 예시, 표어, 묘사, 영상이미지가 있다고 본다.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프레임 접근은 기사의 성별, 기사 배치, 특정한 프레임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 등 프레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나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다. 마지막 프레임 리스트 접근은 내용분석을 통하여 나온 각각의 범주가 하나의 프레임을 갖게 되며 이러한 프레임은 기사의 제목이나 리드, 정보원선택 등에서 발견된다. 프레임은 이데올로기와도 관련이 깊은데, 기틀린(Gitlin, 1980)에 따르면 미디어 프레임은 헤게모니가 행사되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정당화되는 중요한 미디어 실천이다. 즉 지배적 프레임은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지지한다. 또한 프레

임은 헤게모니적 의미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프레임링을 통하여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가 구현(articulation)되고, 지배적 프레임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Carragee & Roefs, 2004).

본 연구는 프레임을 중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담론의 틀 또는 분류 체계로 보고(D'Angelo, 2002; Entman, 1993), 키워드와 은유 및 제목을 통하여 표현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뉴스 프레임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혼혈인 등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뉴스 담론의 근거에 놓인 이데올로기 구조를 비판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인쇄 매체가 방송뉴스 보다는 더 심층적 분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복잡한 문제들의 보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Nelkin, 1991; Bardhan, 2001; Princeton Survey Research Associates, 1996; Yoon & Gwangho, 2002). 뉴욕타임즈는 다른 주류 미디어의 의제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미국저널리즘 내의 의견리더로 볼 수 있는데(Bennett et al., 2004; Dearing & Rogers, 1992),²⁹⁾ 국내에서도 동아, 한겨레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보수와 진보, 또는 인쇄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영역에서 저널리스트 평판(journalistic reputation)과 공중의 관심도 면에서 의견리더라고 볼 수 있다. 이 의견리더 신문들은 중요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공론장에 영향을 끼치고,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보와 정책결정을 위하여 읽혀지며, 다른 언론인들에 의해서도 참고가 되는 뉴스미디어들이다(Montani, 2006). 이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 뿐 아니라 사실, 논평, 인물, 인터뷰도 포함했는데, 이는 모든 보도 유형(reporting format)들이 현실을 구성하는 프레임으로 역할을 한다는 데에 기인한다(Blakely, 2004).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동아일보는 보수, 한겨레신문은 진보성향의 전국 규모 일간지라는 점에서, 또 오마이뉴스는 대안적 성격의 진보적 인터넷 매체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세 신문은 각기 다른 대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뉴스 미디어들의 의제설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체 간 혼혈보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하인스 워드의 슈퍼볼 우승을 언론보도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았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29) 뉴욕타임즈는 전문적인 뉴스기준을 제공하는 하며, 기록에 관한 한 미국의 국가 신문과도 같은 위치(a national paper of record)에 있다

관심이 늘어나고 혼혈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적토론이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혼혈문제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하인스 워드의 슈퍼볼 우승 전후 뉴스 프레임은 어떻게 변했는가?

연구문제 3 : 세 뉴스매체의 혼혈보도는 얼마나 심층적이고 분석적인가?

아울러 본 연구는 주류 언론과 대안 언론의 혼혈문제에 대한 접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 주류 언론과 대안 언론의 혼혈보도는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으로 올바른 혼혈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언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문제는 7. 미디어의 혼혈 및 다문화 재현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연구문제 5 : 혼혈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하인스 워드의 슈퍼볼 우승을 기점으로 전 후 1년(2005년 2월10일~2006년 2월9일, 2006년 2월10일~2007년 2월9일)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카인즈(Kinds)검색을 통하여 <동아일보> 68개와 <한겨레신문> 57개의 뉴스스토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혼혈 또는 혼혈인”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모든 기사들을(334개) 선택한 후 교육을 받은 코더가 면밀히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사들을 제외하고, 모두 125개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³⁰⁾ 책 소개나 영화광고 또는 혼혈이라는 단어만 포함되어 있고, 별다른 논의가 없는 단신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카인즈 검색과 함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혼혈 또는 혼혈인”과 “하인스 워드” 두 개의 검색어를 사용해 모두 30개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신문 모두에서 뉴스기사 뿐 아니라 기획/연재와 사설, 칼럼 등도 분석대상에 포

30) 이 선택과정(selection process)은 연구보조자가 했는데 분석 이전의 데이터의 선택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함하였다.

각 뉴스스토리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는 특정한 관점이나 권력에 봉사하는 저널리스트들의 헌신을 가려주는 이야기의 틀로 기능한다(Barkin & Gurevitch, 1991). 또한 메타포나 키워드로 대표되는 상징용어들은 중요한 사회문제들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정의하는데 이용되며, 이를 통하여 각 뉴스내의 주제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떤 상징표현을 통하여 특정문제나 개인 또는 그룹을 묘사 하느냐에 따라 특정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Branston & Stafford, 2002). 또한 사회적 약자 등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미디어는 공식소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하여 저널리스트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많은 스토리들을 생산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소스(authoritative source)들에 의존한다. 결국 각 뉴스 미디어들이 같은 뉴스 소스로 부터 같은 뉴스이벤트를 다루는데, 이는 뉴스 미디어 간 경쟁을 제한하고 획일성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뉴스보도가 공론 장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Kiernan, 2004; Washer, 2004; Wakefield & Elliott, 2003). 이 연구는 각각의 뉴스스토리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이자 분석단위로 보고, 각 단위 속에서 키워드와 은유 및 제목을 중심으로 주제를 규명하는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언론보도에 숨겨진 혼혈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심층적으로 기사를 읽은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³¹⁾. 전체 뉴스 스토리의 약 20%(31개의 뉴스스토리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와 사회적 약자 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백선거, 2005; 정재민 & 김호연, 2005; Bardhan, 2001; Krishnan, Durrah & Winkler, 1997; Pratt, C. B., Ha & Pratt, C. A., 2002)에서 사용된 프레임 유목들을 바탕으로 모두 7개의 프레임이 선택되었다. 한 뉴스스토리에 두 개 이상의 주제가 나타날 때는 기사제목과 리드, 첫 문단들을 통하여 가장 지배적인 주제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혼혈인을 위한 시민권 부여 등 법적·제도적 접근이 주제일 경우 정책프레임으로,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비판하는 주제나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주제들은 인권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하인스 워드나 미국의 혼혈배우, 혼혈 풋볼선수, 혼혈 우주비행사, 또는 국내 혼혈 운동선수 등의 성공담이나 이들에 대한 축하(celebratory)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인 경우 감동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자성프레임

31) 이러한 비판적인 질적 프레임 연구방법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등의 이름으로(Barkin & Gurevitch, 1991; Montani, 2006) 특히 익숙하지 않은 사회 문제들에 대한 뉴스담론 분석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뉴스보도 분석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현실에 대하여 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제인 경우이다. 행사도움프레임은 혼혈아동 등을 위한 행사와 도움의 손길 부각이 핵심 주제인 경우이고, 혼혈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경우에는 관심유도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역사분석프레임은 인종차별주의와 다문화주의 등 혼혈문제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중심주제로 논의한 기사이다. 이밖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사(3개)는, “워드경기단신보도” “국제결혼 장려해선 안 됨,” “워드 방문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부담” 등이 주제인 기사였다.

5. 연구결과

1) 뉴스프레임 분석: 주제중심 분석

주제를 중심으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은 행사도움과 감동프레임이 두드러졌고, 오마이뉴스는 관심유도, 자성, 인권, 사회역사분석 프레임이 지배적이었다. 각 프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각 뉴스 미디어별 뉴스 프레임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전체
행사도움프레임	22(32.4%)	15(26.3%)	3(10.0%)	40(25.8%)
감동프레임	20(29.4%)	17(29.8%)	1(3.3%)	38(24.5%)
자성프레임	11(16.2%)	11(19.3%)	6(20.0%)	28(18.1%)
정책프레임	8(11.8%)	6(10.5%)	1(3.3%)	15(9.7%)
인권프레임	2(2.9%)	5(8.8%)	6(20.0%)	13(8.4%)
관심유도프레임	2(2.9%)	2(3.5%)	7(23.3%)	11(7.1%)
사회역사분석프레임	0(0.0%)	1(1.7%)	6(20.0%)	7(4.5%)
기타	3(4.4%)	0(0.0%)	0(0.0%)	3(1.9%)
총계	68(100.0%)	57(99.9%)	30(99.9%)	155(100.0%)

(1) 행사도움 프레임

행사도움 프레임은 동아일보(32.4%)와 한겨레신문(26.3%)에 주로 나타나고, 오마이뉴스(10%)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155개의 뉴스스토리 중 40개(25.8%)가 이 프레임으로 범주화 되고 있는데, 혼혈문제에 관한 가장 지배적 뉴스프레임이라 볼 수 있다. 이 프레임은 미디어 스펙터클 중심의 보도성향과 혼혈인을 도움을 줘야하는 대상으로 객체화 한

다는데 특징이 있다. 언론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감동 또는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하고(백선기, 2005; 정재민·김호연, 2005), 우리와 그들(Us vs. Other)의 이항 대립적 담론 구조를 통하여(Bardhan, 2001; Bourdieu, 1998; Kline, 2006), 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징(Lester, 1992)이 있는데, 이 프레임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즉, 양 신문은 하인스 워드의 슈퍼볼 우승과 한국방문 및 자선행사참석 등에 초점을 두고 명사 스펙터클(a celebrity spectacle)의 관점에서 혼혈문제를 프레이밍하고 있다.

동아일보(“국제가족한국총연창립”)와 한겨레신문(“혼혈인들 국제가족이라 불러주오”)의 2005년 7월8일자의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창립에 관한 소식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관한 보도가 행사도움 프레임의 예이다. 이 두 기사는 모두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라는 조직의 발족이라는 행사 묘사를 중심 주제로 하고 혼혈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뉴스스토리를 프레이밍하고 있다. 또한, 12월 4일자의 하인스 워드와 미국 혼혈 배우인 블러드굿이 한국의 혼혈아동을 초청해 가진 자선 행사에 관한 기사(동아“워드-블러드굿 어머니, 한국혼혈어린이들 미초청 행사서 한자리에, 자식들 성공담, 딱 어머니 닮았네.”, 한겨레 “워드·블러드굿, 한인어린이 8명 초청”)도 이 프레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행사도움 프레임은 <표 III-2>에서 보듯이 양 신문에서 하인스 워드의 성공 전 일 년과 그 이후 일 년 사이에 비슷하게 전체의 30%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프레임의 대상이 되는 이벤트 또는 의식은 양 신문이 거의 공통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2005년 11월25일자 ”코시안도 우리 학생, 선생님도 배워야죠: 전북지역 교사들 자발적인 ‘글로벌 교육 연구회’ 발족기사도 이 프레임의 예가 되겠다.

(2) 감동 프레임

감동 프레임은 동아(29.4%)와 한겨레(29.8%)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오마이뉴스에서는 단 한 번(3.3%) 나타난다. 하인스 워드나 한국의 혼혈 농구선수, 또는 한인혼혈 우주 비행사의 성공스토리 또는 힘겹게 사는 보통 혼혈인들의 감동적이거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주제가 되는 경우이다.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는 흑인계 혼혈인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혼혈 아이들을 후원한다는 감동의 편지를 소개한 한겨레 3월8일자 뉴스(“멋진 그를 알게 되다”)와 한겨레가 “혼혈, 이전 웃을래요”라는 기획연재를 통하여 한국의 평범한 ‘하인스 워드’의 좌절과 희망의 이야기를 소개한 시리즈가 그 예라 하겠다. 이 기획 시리즈의

“김동규 군과 싱글머더의 ‘희망가’”(2006년 4월6일자), “좌절 딛고 다시서
는 오조디”(2006년 4월7일자), “뮤지컬 가수 소냐”(2006년 4월8일), “하버
드대 출신 은행원 하트레즈”(2006년 4월10일자), 그리고 수원삼성 2군 선
수 김준(2006년 4월12일자) 등의 뉴스 스토리들이 감동프레임으로 범주화
된다. 동아의 혼혈농구선수의 성공이야기(“우리는 신참 포워드 장예은 ‘코
트는 행복공작소’” 2005년 12월7일자)도 그 예이다. 또 같은 해 동아의 10
월25일자 기사 “한국계 혼혈배우 문 블러드굿, 미ABC 드라마 주인공에 도
전”에서 한국계 혼혈여성으로 미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성공한 감동스토리
를 워드의 경우처럼 어머니의 힘겨운 생활과 함께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프레임에 속한다. 또한 동아는 2006년 2월11일에는 “‘혼혈의 굴레’ 미
국 울렸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버락 오바머 상원의원의 어린 시절 정체성
혼란과 좌절감 및 성공스토리를, 2007년 1월7일자에서는 “스포츠넷별: 귀
화 혼혈선수 이동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혼혈농구선
수 이동준의 어려웠던 시절과 현재의 이야기를 감동프레임을 통하여 재현
하고 있다. 2007년 2월6일자 동아와 한겨레는 각각 “기자의 눈: 미시청자
올린 ‘워드 모자스토리’”와 “미국도 올린 ‘혼혈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워드
의 성공스토리와 한국방문 이야기가 미국 CBS에서 10분간 소개된 것을 중
심주제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기사도 감동프레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감동프레임은 혼혈문제를 주로 워드나 블러드굿 같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명사들의 성공이나 고난극복 중심으로 프레임 하여 감동이나 연
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프레임은 혼혈인으로서의 차별 및 고난극복과
성공스토리를 부각하여 혼혈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문제로 프레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혼혈인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으
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게으름이나 부정적 자세 탓이라는 개인주의적 시
각(정재민 & 김호연, 2005)을 은연중에 전파한다. 특히 동아는 20개의 감
동프레임 기사들 중 18개(90%)가 하인스 워드 등 운동선수, 연예인, 우주
비행사, 정치인 등 명사들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으며, 한겨레는 17개의 기
사 중 13개(76.5%)가 보통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명사에 가까운 개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자성프레임

자성프레임은 하인스 워드로 인한 미디어 스펙터클 뒤에서 여전히 차별
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혼혈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함을 강조하는 주제를 표현한다. 동아(11개: 16.2%)와 한겨레(11개:
19.3%)에서는 이 프레임이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이다. 오마이뉴

스의 경우 30개의 뉴스스토리 중 6개(20%)가 이 프레임에 속한다. 동아일보 2005년 7월15일자 “한국에 시집왔어요, 농촌의 외국인 신부들/30, 40대 6쌍 중 절반이 국제결혼 장수군 식천리”에서는 국제결혼과 늘어나는 혼혈아동의 문제점을 이주여성과 한글교사와의 인터뷰, 정부통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뉴스스토리는 우리의 차별적 현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인권 억압적 문제점들도 함께 지적해 자성과 인권프레임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의 2006년 4월4일자 “‘다민족사회’ 환영해야 강한 나라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은 “편견과 차별”, “인종차별주의”, “단일민족의 허구”라는 키워드와 은유들을 중심으로 다인종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자는 주제를 재현해 내고 있다. 한겨레의 2월9일자 “기고/ 하인스 워드, 한국엔 없다”에서는 워드의 성공과 함께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현실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하며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단일민족의 신화와 순혈주의로 심화된 혼혈인 차별의 문제를 반성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2006년 한겨레 논설위원의 논단 “아침햇살: 검은 얼굴의 아름다운 청년”도 자성프레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인스 워드가 기자회견 중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부끄러워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을 천사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우리 현실에 대한 깊은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4) 정책프레임

동아일보(8개: 11.8%)와 한겨레신문(6개: 10.5%)의 전체 뉴스스토리들 중 10%가 조금 넘는 기사들이 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 동아의 2006년 1월14일자 “혼혈인, 그들도 한국인입니다/(하) 교육대책 마련 시급”이라는 기획기사는 혼혈아동에 가해지는 따돌림과 왕따 현상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 뉴스 스토리는 혼혈아동의 교육 문제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목소리 및 정책 대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겨레 4월8일자 뉴스스토리는 “사실혼 관계 외국인·자녀에 국적 준다”라는 제목 하에 “혼혈인”이라는 용어의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의 대체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자녀에게 국적과 영주권을 주는 방안,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대학입학 때 혼혈 자녀에 대한 할당제 부여와 동등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 등 여러 혼혈인 지원 정책 아이디어들과 대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한 개의 뉴스스토리(2007년 1월29일자, “10쌍 중 한 쌍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잘 사는 방법은?’ 국회의원정책연구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입법공청회”)만이 정책프레임을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국회의 혼혈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공청회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다.

(5) 인권프레임

인권프레임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도(백선기, 2005; 정재민 & 김호연, 2005), AIDS관련 뉴스(Bardhan, 2001, 2002)에 자주 등장하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주류 저널리즘 내에서는 한겨레(8.8%)에서 동아(2.9%)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한겨레가 혼혈 문제를 바라볼 때 인권 보호적 시각과 사회운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좀 더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이 프레임이 관심유도프레임(7개), 사회역사분석프레임(6개), 그리고 자성프레임(6개)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프레임이다(6개).

동아의 2005년 7월9일자 논설위원 논단인“횡설수설: 국제가족”에서는 “멸시”, “편견”, “평등권침해”, “평등한 권리” 등의 키워드들을 통하여 혼혈인 차별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한겨레의 2006년 6월5일자 “함께하는 교육-기획/토 스위힌 인터뷰/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교육에 달렸다”라는 기획 인터뷰는 외국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평화와 공존”, “폭력거부”, “연대의 정신”, “동화가 아닌 사회적 통합” 등의 키워드들을 통하여 인권과 사회운동의 시각으로 혼혈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회 운동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2006년 12월14일의 “피부색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다? 외모에 의한 사회적 차별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뉴스스토리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의 기고를 통하여 혼혈문제를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모집착”, “피부색”, “따돌림”, “인권” 등의 키워드들을 사용해 피부색이나 생김새 차이가 교육은 물론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가져와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6) 관심유도프레임

관심유도프레임은 동아와 한겨레에는 각각 두 차례 등장하고 있지만, 오마이뉴스에서는 7번 등장해 가장 핵심적 프레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프레임은 혼혈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강조함으로써 공론장의 의제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오마이뉴스의 2006년 11월18일 자 “설마, 아직도 ‘살색’크레용을?” 기사

에서도 관심유도프레임을 통하여 “혼혈”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혼혈가정 대신 “다문화가정”, “국제가정”, “온누리안“ 등의 단어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스토리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2006년 9월7일자 “농구계 ‘혼혈선수 열풍’의 명암” 기사는 이동준, 김민수, 장예은 등 혼혈선수의 등장과 함께 파생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배타적 경계의 시각과 농구계의 헤게모니 싸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7) 사회역사분석프레임³²⁾

사회역사분석프레임은 혼혈문제의 배경이 되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주요 주제가 되는 프레임이다. 한겨레신문에 한 차례 이 프레임이 나타나고, 동아일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오마이뉴스에는 여섯 차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역사분석프레임이 비판적 대안 저널리즘이 제공하는 공론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프레임임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대안 저널리즘은 보통사람들의 뉴스제작 참여를 넓혀주고(Mitra, 2004), 시민들의 의견이나 칼럼을 통하여 사회에서 소외됐던 그룹들의 목소리와 자기표현(self-representation)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하여 대안저널리즘은 한 사회 내의 토론과 재현의 장인 공론장을 더 다양하고, 심층적이며, 풍요롭게 하며(Gillett, 2003; Harcup, 2003), 보다 민주적인 대안적 공론장(counter-hegemonic public spheres)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Downing, 2003).

이 사회역사분석프레임은 혼혈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치·경제적 힘들에 관해 청중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Bennett, 2007), 맥락 중심의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오마이뉴스 2005년 3월30일자 “검은머리, 갈색눈, 노란 피부의 분노: 한국계 혼혈 2세 스포큰 워드 시인 미셸 마이어스”에서는 미국에 사는 혼혈2세의 삶을 “인종차별”, “인습의 벽”, “고통과 금지” 등의 키워드와 은유들을 통하여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혼혈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2006년 4월6일자의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들의 인종 의식: 주장, 하인스 워드

32) 자성프레임이 우리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면서 마치 미국이나 서구는 혼혈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의식을 은근히 재생산하는 반면, 사회역사분석프레임은 서구의 인종주의와 차별의 역사도 함께 공론장으로 끌어 들여 비판한다는 특징이 있다.

계기로 한국인의 인종관 돌아봐야”는 한국 언론들의 갑작스런 하인스 워드 관련 보도를 호들갑으로 비판하고 “순혈주의”의 문제점과 언론의 피상적 혼혈 보도를 비판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인종주의,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피의산물인가"(2005년 8월12일)에서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2) 뉴스프레임의 변화: 하인스 워드의 슈퍼볼 우승 전후를 중심으로

하인스 워드 우승 전 1년과 우승 후 1년 사이의 프레임의 변화는 뉴스스토리 수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우승 전: 32개 vs. 우승 후: 123개)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는 시기 별 프레임 변화에 있어서 각 매체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령 동아의 경우는 세 가지 지배적 프레임인 행사도움, 감동, 자성프레임이 하인스 워드 우승 후 약간 증가한 반면(31.2%→32.7%, 25%→30.8%, 12.5%→17.3%), 정책프레임과 인권프레임이 줄어들었다(18.8%→9.6%, 12.5%→0%). 한겨레는 행사도움과 감동프레임이 근소하게 줄었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30%→25.5%, 30%→29.8%), 자성프레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10%→21.3%) 나타났으며, 정책프레임은 큰 폭으로(20%→8.5%), 인권프레임은 근소하게 감소(10%→8.5%)하였다. 두 지배적 프레임인 행사도움과 감동프레임을 합칠 경우 동아는 증가(56.2%→63.5%)한 반면 한겨레는 감소(60%→55.3%)했는데, 이는 한겨레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다양한 프레임을 동원해 혼혈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양 주류 신문은 공통적으로 워드의 우승 전과 후에 여전히 행사도움과 감동, 그리고 자성프레임 중심으로 혼혈문제를 프레임링 하고 있으며, 정책과 인권프레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워드 우승 이후 혼혈문제에 대한 뉴스보도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책적 대안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나 인권 억압이라는 차원에서 비판하는 주제는 오히려 줄고 있으며, 우리의 차별적 현실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는 주제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인권프레임이 다소 늘고(16.7%→20.8%) 행사도움 프레임(16.7%→8.3%)이 줄어 두 주류 신문과 대조를 이뤘으며, 관심유도 프레임이 큰 폭으로 증가(0%→29.2%)하였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대안매체의 특징에 따라 이벤트와 흥미 중심이 아니라 혼혈문제에 있어서 다루지 않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사회역사분석 프레임도 함께 감소(66.6%→8.3%)했는데, 이는 혼혈문제에 대하여 복잡한 사회·역사적 배경 중심의 구조적 분석 보다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인권 차원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프레임 중심이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 하인스 워드의 슈퍼볼 우승 전후 뉴스프레임의 변화

프레임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전체	
	우승 전	우승 후	우승 전	우승 후	우승 전	우승 후	우승 전	우승 후
행사도움 프레임	5 (31.2%)	17 (32.7%)	3 (30%)	12 (25.5%)	1 (16.7%)	2 (8.3%)	9 (28.1%)	31 (25.2%)
감동프레임	4 (25%)	16 (30.8%)	3 (30%)	14 (29.8%)	0 (0.0%)	1 (4.2%)	7 (21.9%)	31 (25.2%)
자성프레임	2 (12.5%)	9 (17.3%)	1 (10%)	10 (21.3%)	0 (0.0%)	6 (25%)	3 (9.4%)	25 (20.3%)
정책프레임	3 (18.8%)	5 (9.6%)	2 (20%)	4 (8.5%)	0 (0.0%)	1 (4.2%)	5 (15.6%)	10 (8.1%)
인권프레임	2 (12.5%)	0 (0.0%)	1 (10%)	4 (8.5%)	1 (16.7%)	5 (20.8%)	4 (12.5%)	9 (7.3%)
관심유도 프레임	0 (0.0%)	2 (3.8%)	0 (0.0%)	2 (4.3%)	0 (0.0%)	7 (29.2%)	0 (0.0%)	11 (8.9%)
사회역사분석 프레임	0 (0.0%)	0 (0.0%)	0 (0.0%)	1 (2.1%)	4 (66.6%)	2 (8.3%)	4 (12.5%)	3 (2.4%)
기타	0 (0.0%)	3 (5.8%)	0 (0.0%)	0 (0.0%)	0 (0.0%)	0 (0.0%)	0 (0.0%)	3 (2.4%)
총계	16 (23.5%)	52 (76.5%)	10 (17.5%)	47 (82.5%)	6 (20%)	24 (80%)	32 (20.6%)	123 (79.4%)

흥미롭게도 세 신문 모두 자성프레임이 증가 했는데(동아: 12.5%→17.3%, 한겨레: 10%→21.3%, 오마이뉴스: 0%→25%), 이는 워드 우승으로 혼혈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국이라는 다문화 환경에서 워드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상대적으로 우리 현실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강조하는 주제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레임의 변화 외에도 언론보도는 하인스 워드의 슈퍼볼 우승을 계기로 양적으로 급증하였다. 아래의 <표 3>을 보면 전체적으로 워드의 우승 이후 1년 동안 혼혈(인)에 관한 언론보도가 그 전 1년에 비해 급증했다(20.6%→

79.4%). 즉 워드가 명사가 되고, 그의 슈퍼볼 우승과 최우수선수상 수상이라는 사건이 드라마틱한 미디어 스펙터클이 되면서 미디어의 혼혈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뉴스미디어에 의한 스펙터클 현상³³⁾으로 볼 수 있다. 즉, 미디어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또는 잘 알려진 정치인들이 관련될 경우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전환시켜 관심을 집중시키는데(Kellner, 2003; Willis & Okunade, 1997/2006), 하인스 워드 우승 이후 혼혈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집중적인 의제선택과 스펙터클화가 그 예라고 하겠다. 워드의 우승을 계기로 장기적이고 맥락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혼혈문제가 미디어 스펙터클의 관점에서 탈맥락화(de-contextualized) 되고, 더욱 흥미중심으로 프레임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하인스 워드 우승을 전후 한 시기별 혼혈보도 현황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전체
2005년2월10일~ 2006년2월 9일	16(23.5%)	10(17.5%)	6(20%)	32(20.6%)
2006년2월10일~ 2007년2월 9일	52(76.5%)	47(82.5%)	24(80%)	123(79.4%)
전체	68(100.0%)	57(100.0%)	30(100%)	155(100.0%)

3) 일화중심의 보도와 주제중심의 보도성향 비교

뉴스 스토리가 얼마나 심층적이고 분석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이엔가와 시몬(Iyengar & Simon, 1994)이 제시한 일화/주제 중심 뉴스보도 틀을 적용해 분석 하였다. 일화 중심의 보도(episodic news treatment)는 과정이나 맥락 보다는 단기적인 행위나 사건에 중점을 두고, 역사적·문화적 복잡성을 다루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관점이나 이미지에 의존하는 보도 스타일이다(Bardhan, 2002; Bennett, 2000, 2007). 주제중심의 보도(thematic news treatment)는 뉴스가 만들어지는 맥락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뉴스를 읽는 청중들이 뉴스의 대상이 되는 이슈의 사회적 인과관계와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보도 스타일이다. 따라서 언론이 하인

33)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정치적 논쟁이나 이슈들도 미디어의 선정적·드라마틱한 묘사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미디어 스펙터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Kellner, 2003).

스 워드나 버락 오바머의 성공이나 역경극복 스토리 또는 명사들의 혼혈후원행사 참여 등의 묘사에 치중할 경우 일화중심으로 혼혈문제를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접근하고 사회적 인과관계를 조명해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는 주제중심 보도 스타일로 범주화 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동아일보는 68개의 뉴스스토리 중 10개(14.7%), 한겨레신문은 57개의 뉴스스토리 중 6개(10.5%),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30개의 뉴스스토리 중 10개(33.3%)가 주제중심의 보도 스타일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에피소드 중심의 일화적 보도 스타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가 일화 중심의 보도 스타일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4> 각 매체별 일화중심과 주제중심 보도 스타일

	동아	한겨레	오마이뉴스	전체
일화중심보도 스타일	58(85.3%)	51(89.5%)	30(66.7%)	129(83.2%)
주제중심보도 스타일	10(14.7%)	6(10.5%)	10(33.3%)	26(16.8%)
전체	68(100.0%)	57(100.0%)	30(100.0%)	155(100.0%)

동아와 한겨레 양 신문의 저널리스트들은 소속된 매체들의 특성과 개별 저널리스트들의 성향을 뛰어넘어 주류 저널리즘이라는 장(a field of mainstream journalism)속에서 공유되는 인식의 틀(an articulated frame of interpretation, Konick, 2003)³⁴⁾ 또는 아비투스(habitus, Bourdieu, 1984)를 가지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아비투스는 저널리스트와 같은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재현해 내는데 이용되는 선택과 분류 및 해석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Bourdieu, 1984; Webb, Schirato, & Danaher, 2002; 조종혁, 2006).³⁵⁾ 반면 자본과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진보적 대

34) 여기서 장(field)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직화 된 사회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Bourdieu, 1998).

35) 이를 미디어에 적용시키면 저널리스트들은 우리 사회의 특정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체질화된 집합적 무의식의 성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문제들을 인지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조종혁, 2007).

안매체의 속성(Atton & Couldry, 2003)을 가진 오마이뉴스는 혼혈문제에 대하여 주제 중심 보도스타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다.

4)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의 뉴스 프레임 차이: 아비투스 중심적으로

<표 1>에 나타나듯이, 한겨레와 동아는 공통적으로 행사도움과 감동 및 자성프레임을 중심으로 혼혈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이 중 행사도움과 감동 프레임은 큰 이벤트나 영웅적 스토리, 성공담, 고난극복을 중심으로 한 과장된 이미지의 부각과 혼혈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규정(정재민·김호연, 2005; Lester, 1992)³⁶⁾하는 주제들을 주로 재현하고 있다. 이 프레임들은 워드의 우승이나 한국 방문과 같은 스펙터클이나 단발성 보도에 초점을 두고(백선기, 2005), 개인중심의 묘사를(Bardhan, 2001) 지속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본질에 대한 공적토론을 통하여 혼혈문제에 대하여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 장을 제공하기 보다는 이미지 및 오락성을 추구하는 주류저널리즘의 보도성향(McChesney, 1999)과 관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혼혈문제가 설사 미디어에 의해 다루어지더라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져 담론을 형성해 실제 사회변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한다. 백선기(2005)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뉴스 보도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겨레신문이 다소 진보적이긴 하지만 보수적인 동아일보와 비교했을 때 지배적 프레임과 에피소드 중심의 보도 스타일 의존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주류 저널리즘이라는 장에서 새로움(originality)이나 다양성 추구보다는 획일성(uniformity)을 선호하고, 경쟁보다는 공조를 통하여 비슷한 의제의 선택과 비슷한 방향의 담론의 틀이 전파되는(Bourdieu, 1998)경향과 관련된다.

윌리엄스(1976)는 저널리스트들이 언론사 내의 작업환경과 그 언론사가 위치해 있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특정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디어 생산을 포함한 문화생산에 있어서의 고도의 표준화와 형식성을 비판하고, 이 때문에 사회문제들에 대한 공적토론과 참여가 제한된다고 비판한다. 또한 주류미디어에 나타나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관해 대안적으로 보이는 담론들조차도 사실은 지배적인 질서의 관용의 범위 안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Williams, 1982). 특정집단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향과 습관은 그 집단내의 사람들의 믿음들과

36)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장애인 보도에서 이 같은 보도패턴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보도패턴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확대시킨다고 비판하였다.

가치들을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이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특정한 관점들과 행동들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난다(Bourdieu, 1984; Webb, Schirato & Danaher, 2002). 부르디외가 주장한 아비투스(habitus)는 집단적 경험 및 인지의 틀(현택수, 1998)인데, 사회적으로 형성된 특정 그룹의 분류시스템(classifying system)으로써 특정 그룹의 인식과 해석의 틀로 기능한다(Bourdieu, 1984). 저널리스트의 집단적으로 형성된 아비투스는 뉴스미디어가 생산하는 담론에 영향을 미치며 수용자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특별한 안경(special glasses, Bourdieu, 1998)을 쓰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겨레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일지라도 상업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류저널리즘 장 내에서 비슷한 뉴스제작 방식 및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와 유사한 보도행태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주류저널리즘은 자주 등장하는 공식적 뉴스 정보원과 엘리트 그룹들 사이의 갈등의 수준에 근거해 뉴스의 내용과 방향을 인덱스(index) 한다(Bennet et al., 2004). 또한 주류저널리즘은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잘 재현되지 않는 혼혈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표현해 담론을 구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Mitra, 2004). 이는 혼혈이라는 의제가 양 주류 신문의 저널리스트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관심의 우선순위가 낮은 의제인 점에도 기인한다. 또한 상업화된 주류 저널리즘 내에서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청중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 중심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대중추수주의(김예란, 2005, 93쪽)를 보인다. 부르디외(Bourdieu, 1998)는 “정신적 폐쇄(mental closure, p. 24)”와 “표준의 동일화(homogenization of standards, p. 26)” 등의 개념을 동원해 르몽드(Le Monde) 등 프랑스 주류 신문들이 서로의 의제선택과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비슷한 주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에 기초한 뉴스 구성의 메커니즘은 외국인 문제 등 복잡하고 심각하지만 엘리트들의 관심이 적은 문제 일 때 더 잘 작동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뉴스담론의 동질화 경향은 주류 언론들이 오락 중심의 보도에 치중해 오히려 공중을 공론 장으로부터 주변화 시키고, 비정치화 시키는(Herman & McChesney, 1997) 결과를 낳고 있다.

오마이뉴스와 같은 대안매체들은 청중을 뉴스의 수신자인 동시에 뉴스 생산 과정의 주체이자 참여자로 바라본다(Berger, 2000; Mitra, 2004). 대안저널리즘은 주류미디어에 의해 덜 재현되는(underrepresented)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 대안저널리즘 장에서의 프레이밍

은 헤게모니적 의미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항적 방법(counter hegemonic ways of seeing, Carragee, & Roefs, 2004, p. 228)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구체적으로 오마이뉴스는 행사도움, 감동, 자성프레임 등 지배적 프레임들에 대한 의존도(30개 중 10개: 33.3% vs. 동아: 77.9%, 한겨레: 75.4%)가 낮고, 보다 다양한 뉴스 프레임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맥락과 분석위주의 보도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마이뉴스의 뉴스 생산과정에 주류 저널리즘과는 다른 아비투스 작동하고, 이를 통하여 혼혈문제에 대하여 대안저널리즘이 제공하는 공론의 장(public sphere of alternative journalism)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오마이뉴스의 상대적 진보성과 청중이 저자가 쉽게 될 수 있는(Atton & Couldry, 2003; Mitra, 2004) 대안적 문화생산의 장인 인터넷 시민 저널리즘의 특징에도 기인한다. 특히 오마이뉴스에서는 “혼혈인들이 불쌍하고, 차별받으니 도와주어야 한다”, “고통을 견디고 성공한 혼혈인 영웅을 본받자”라는 행사도움이나 감동 프레임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배적 프레임들은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Best & Kellner, 1995; Bourdieu, 1998; Hall et al, 1978), 혼혈문제를 언론의 일시적 관심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지만(김예란, 2005), 진지한 토론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회의 공론 장에서는 여전히 소외된 주제로 존재하게 한다.

6. 스펙터클로의 미디어 재현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고 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대중매체, 특히 뉴스미디어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뉴스미디어는 지속적인 인식과 해석 및 표현의 패턴인 프레임을 통하여 현실에 관한 이미지와 인식을 전파한다(Gitlin, 1979). 또한 현대사회에서 외모나 스타일이 점점 더 중요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미디어 스펙터클은 우리가 가지는 외적 이미지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미디어 스펙터클은 미디어가 선정한 명사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외모나 성격, 패션 등과 관련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역할모델(role model)이나 상징들을 꾸준히 제공하는 과정을 수행한다(Kellner, 2003). 또한 뉴스미디어는 프레이밍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일차적 정의를 한다(Reese, 2001). 이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 스펙터클과 프레이밍과정을 중심으로 혼혈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도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바람직한 언론보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 논의한 대로 동아와 한겨레의 저널리스트들은 주류 저널리즘 장 내에서 명사 스펙터클

중심으로 뉴스를 프레임하고 있는데 이는 혼혈문제에 대한 논쟁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고, 이 문제에 관한 공론장의 기능을 위축(D'Angelo, 2002)시킬 수 있다. 즉 하인스 워드라는 인물이 뉴스 미디어가 선택한 명사로서 미디어재현의 아이콘(icon)이 되고 그의 우승과 한국방문, 혼혈지원활동 등이 스펙터클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재현되고 프레임되며 미디어 의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가 창조한 명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으로 스타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한데 미디어의 관심과 보도가 그 역할을 한다(Carragee & Roefs, 2004; Kellner, 2003). 이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스펙터클의 선택과 재현 방향에 관해 집단적 인식의 틀(a collective frame of interpretation) 또는 아비투스(Bourdieu, 1984; 현택수, 1998)를 공유하고 프레임과정에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낸다.³⁷⁾ 이 스펙터클 중심의 보도는 양 신문이 혼혈뉴스보도를 사회적 결과나 정책논쟁, 인권보호 또는 역사적 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와 드라마적 요소 및 개인 이야기 위주로(Bennett, 2007; Bourdieu, 1998; D'Angelo, 2002) 프레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과 맥락에 대하여 비판하고, 집단적 해결책을 찾는 시도가 사회적 약자 보도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Clarke, 1992).

주류 저널리즘이 획일적인 뉴스의제 선택과 행사나 감동중심의 프레임िंग을 선호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Bourdieu, 1998; Tai & Chang, 2002). 뉴스를 만드는 생산자들은 조직생활이라는 일상들(organizational routines)을 공유하는 직업인(professional)이기도 하지만, 문화생산자로서 특정한 해석의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에 속한다(Zelizer, 1997). 즉 저널리즘이라는 장 내의 해석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널리스트들은 미디어 및 사회의 상업화와 위계화·표준화된 뉴스생산 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공유하게 된다(Bardhan, 2001; Bourdieu, 1998). 하인스 워드 우승 이후의 혼혈문제에 대한 미디어의 공통된 관심집중과 유사한 방식의 의제 설정 및 프레임िंग은 해석공동체의 일원들인 뉴스생산자들이 가지는 비슷한 인식과 해석의 틀, 즉 아비투스에 의해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엘리트의 관여도가 떨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문제일 경우 주류 언론의 저널리스트들 사이에 비슷한 인식 및 해석 틀이 더욱 용이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37) 부르디외는 한 사회에서 인정받고, 합법성을 획득한 그룹이 언어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나타내고 그들의 사회·문화적 위치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Bourdieu 1990). 이 연구에서 그룹은 주류 저널리스트들이라 볼 수 있고, 언어는 뉴스내용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동아와 한겨레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혼혈보도에 있어서는 저널리스트들이 가지는 비슷한 감정의 구조(a structure of feeling, Williams, 1976, p. 126) 또는 아비투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해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7. 소결

앞서 살폈듯이, 주류저널리즘에 속하는 두 신문은 스펙터클 중심으로 혼혈문제를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혼혈인에 대한 보도집중이 오히려 혼혈문제를 사회의 공론장에서 주변화 시키고, 혼혈인을 우리와 다른 도움과 연민의 대상인 “타인”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정치·경제·조직적 상황으로 인하여, 혼혈문제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관심유도 프레임과 인권 보호 차원의 인권프레임 및 맥락 분석중심의 사회역사분석 프레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혼혈문제 보도에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우리의 현실에는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반면, “미국이나 서구의 현실은 괜찮다”라는 허위의식, 또는 신화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³⁸⁾ 이는 서구와 비서구(우리사회)의 권력관계의 불평등이 우리나라 주류 저널리즘의 인식 및 뉴스담론 차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임영호, 2002). 한겨레 2006년 2월9일자, “기고/하인스 워드, 한국엔 없다”, 한겨레 2007년 1월 19일자, “이지누의 인물로 세상읽기: 혼혈인 1세대 권재덕씨”, 동아 2006년 2월10일자, “시론: 하인스 워드가 한국서 자랐다면”, 동아 2006년 2월9일자, “국내 혼혈인들 ‘하인스 워드 열풍’ 명암: 한국에 살고 있는 혼혈인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하면서” 기사에서는 은연중에 “미국에는 인종차별이나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백인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미국중심주의 세계관(길윤형, 2007b)으로 본다면, 이런 보도태도는 우리현실에 대한 자성과 부끄러움이 지나쳐 또 다른 사대주의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동아의 경우 68개의 뉴스스토리 중 35개(51.5%)가, 한겨레는 57개 중 24개(42.1%)가 뉴스전개에 있어서 미국 또는 서구의 경우를 비교하거나,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워드에 대한 집중적 보도 외에도 두 명의 미국 풋볼 혼혈선수, 혼혈우주인, CBS의 워드 이야기 보도, 블러드굿 성공이야기, 워드와 블러드굿의 한인혼혈아 만남 등

38) 이러한 미국중심적 보도행태는 지난 4월 버지니아 총격사건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 “선의나라”로 보는 시각이 주류 사회의 의식에 남아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길윤형, 2007b).

미국이 중심이고 긍정적으로 관여되는 혼혈 보도가 동아와 한겨레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자성프레임을 통하여 한국의 차별적 현실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관심유도와 인권, 그리고 사회역사분석프레임 등의 비판적 프레임들을 이용해 서구권에 뿌리박혀 있는 인종주의와 차별문제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함께 비판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5년 3월30일자, “검은 머리, 갈색 눈, 노란 피부의 분노: 한국계 혼혈 2세 스포큰 워드 시인 미셸 마이어스”; 2005년 10월3일자, “흑인인 나, 26년간 백인으로 살았다: 백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검은 아이’의 기구한 삶”; 2006년 4월6일자,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들의 인종 의식: 주장, 하인즈 워드 계기로 한국인의 인종관 돌아보아야”).

따라서 언론이 지나친 자책 또는 외국 사례에 대한 근거 없는 선망이나 무조건적 비교를 통하여 또 다른 서구우월주의 신화를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중심의 이야기(김예란, 2005)를 통하여 혼혈문제를 조명하고, 인권차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의 노력을 통하여 혼혈 문제가 사회의 공론장에서 의제로 부상되고, 심도 있게 논의되며, 진전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화교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한국남성과 결혼한 다른 아시아지역 출신 여성, 혼혈인 등 인종적 소수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단절과 그들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박경태·장수현, 2003).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혼혈이슈에 관한 진전된 뉴스보도의 출발점은 혼혈인을 “동등의 시각”속에서 우리사회의 능동적 재현의 주체로(김예란, 2005, 54쪽)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부르디외(Bourdieu, 1998)와 케빈 등(Kevin et al., 2004)이 주장했듯이 우리/그들, 서구/비서구, 선/악, 문명/야만, 발전/퇴보 등의 이항 대립적 구조가 아니라, 혼혈문제의 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맥락의 분석에 치중하는 뉴스담론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적 사회구조로 변화하는 우리현실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에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우호적 관계설정에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위원 ◆

- 강태중** 중앙대학교 · 교수
- 김광민** 일본 오사카코리아 NGO센터 사무국장
- 김지수** 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팀 사무관
- 손소연** 안산 원일초등학교 · 교사
- 윤인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장
- 장수현** 광운대학교 · 교수
- 정유성** 서강대학교 · 교수
-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l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1-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 · 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구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 조혜영·이창호
07-R39 학교폭력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고유과제)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18일

발 행 2007년 12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98-0 (93330)